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북구의회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대만 · 싱가포르

(2019. 10. 2.~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목 차

발간사	2
-----------	---

제1편 연수개요	3
----------------	---

제2편 방문지

1. 타이페이시청 도시재개발국(공식방문)	12
2. 타이페이 시의회(공식방문)	24
3. 싱가포르 더플러튼 헤리티지	36
4. 싱가포르URA 시티갤러리	47
5. 싱가포르 비샨뉴타운 · 파크	58
6. 싱가포르 리아무이 치매요양원(공식방문)	72
7. 싱가포르 쥬롱새 공원	82
8.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90
9. 싱가포르 템시힐	99
10. 싱가포르 PUP(물재생 시스템)	107
11. 싱가포르 센토사섬	119
12. 싱가포르 수변 도시재생 클락키	128
[특별방문] 야시장(대만: 스린, 라오허, 싱가포르: 라우파샷)	139

제3편 결론

[붙임자료]

1. 방문지 녹취 자료	152
2. 기타 방문지에 대한 소감 및 사진자료	176
3. 공무국외출장을 마치며	181

발 간 사



존경하는 30만 북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10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아시아권의 선진국인 대만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야시장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공원관리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포함한 도시의 공공시설과 인프라 구축상태, 도시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방문지를 엄선하여 다녀왔습니다.

3개의 공식일정을 비롯하여 총 12개의 방문지와 대만과 싱가포르의 야시장을 특별 선정하여 그에 대한 사전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와 협의하면서 이들 국가에서 습득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 방문지인 대만의 타이페이시청 도시재개발국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등,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며, 다음날에는 타이페이 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회시설을 견학했으며, 시의회 부의장과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사에 대하여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치매 요양원을 방문하여 노인복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견학을 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야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특별주제로 하여 대만과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야시장을 방문하여 우리 구 대표 전통시장인 구포시장에 대한 야시장 접목방안에 대한 자료수집과 함께 저녁 늦게까지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5박 6일간의 일정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당초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하다 보니 피곤하기는 했지만, 이 모두가 우리 북구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라도 더 보고 배우기 위해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연수에 함께 참여한 의원님과 직원여러분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작년에 이어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개인별로 제출한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 기 수

제1편 연수개요

연수목적

-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경험함으로써 세계화 마인드 제고 및 선진 의정활동을 위한 의식을 함양하고,
- 글로벌 국제화 시대에 외국의 도시개발 전략과 문화·제도 및 교통·도시·관광분야 등의 시설 및 운영실태 견학을 통하여, 우리의 실정과 비교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모색과 벤치마킹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코자 함

□ 연수기간 : 2019. 10. 2.(수)~10. 7.(월) ▷ 5박 6일

□ 연수국가 : 대만, 싱가포르

□ 연수인원 : 20명(의원 14명, 직원 6명)

연번	직 위	성 명	연번	직 위	성 명
1	의 장	정기수	11	주민도시위원회 의원	김태식
2	부의장	김동선	12	주민도시위원회 의원	김효정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	13	기획총무위원회 의원	손분연
4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	14	주민도시위원회 의원	윤동철
5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	15	의회사무국장	하병수
6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	16	수석전문위원	허 전
7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	17	수석전문위원	정기섭
8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	18	주무관	정인숙
9	주민도시위원회 의원	강광진	19	주무관	박동준
10	주민도시위원회 의원	김명석	20	주무관	장원우

□ 주요 방문기관(공식방문)

○ 대 만: 타이페이시청 도시재개발국, 타이페이 시의회

○ 싱가포르: 리아무이 치매요양원

□ 연수내용

구 분	내 용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 분야
공 식 방 문 I (타이페이시청 도시재개발국)	도시재생 우수사례 벤치마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동권 강변창조도시 개발 자료수집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발 방안 관련 정책 자료 수집
공 식 방 문 II (타이페이 시의회)	의회운영에 관한 정책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운영에 대한 자료수집
공 식 방 문 III (싱가포르 리아무이 치매요양원)	노인복지에 대한 사례조 사 및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복지에 대한 자료수집
도시기반시설 시찰	안전, 교통, 문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사례 구 도시기반시설과 점목 검토 ●교통 및 관광자원화 자료수집 등
전통시장·도시재생 특성화사업	야시장 운영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야시장 관련 자료수집 ●야시장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

□ 연수 일정

일자	도시	방문지	내 용
10/2 (수)	대만 타이페이	①[공식방문] 타이페이시청 도시재개발국 (라오허제 야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 타이페이 이동 ●도시재생 관련 자료수집 ●라오허제 야시장 방문
10/3 (목)	타이페이	②[공식방문] 타이페이 시의회 (스린 야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운영 자료수집 ●스린 야시장 방문
10/4 (금)	타이페이 싱가포르	③더플러튼 헤리티지 ④URA 시티 갤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이페이 ⇨ 싱가포르 이동 ●도시재생 사례 자료수집 ●도시형성 및 발전과정 자료수집
10/5 (토)	싱가포르	⑤비산 뉴타운/비산파크 ⑥[공식방문] 리아무이 치매요양원 ⑦쥬롱 새공원 ⑧국립도서관 견학 ⑨템시힐 (라우파삿 야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복지 자료수집 ●도시재생 자료수집 ●공공도서관 자료수집 ●신도시/재개발 자료수집
10/6 (일)	싱가포르	⑩PUB 물재생 시스템 ⑪센토사섬 ⑫수변 도시재생 클락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재생 시스템, 수자원관리 ●공원관리 자료수집 ●관광레저시설 자료수집 ●수변 도시재생 사례 자료수집
10/7 (월)	싱가포르 타이페이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타이페이⇨ 부산

□ 연수 국가 개요



대만



- ◆ 수 도 : 타이페이
- ◆ 면 적 : 3.6만
- ◆ 언 어 : 북경어(공용어), 대만어
- ◆ 인 구 : 약 2,355만 1천명-세계 56위
- ◆ 주요민족: 대만성인(84%), 대륙 본토(14%), 원주민(2%)
- ◆ 종 교 : 불교&유교&도교(93%), 기독교(4.5%), 기타(2.5%)
- ◆ 환 율 : 1대만달러(TWD)=약44원 (2019. 9. 26.기준)

개요

중국의 동남쪽 타이완 해협에 위치한 대만이 주장하는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中華民國)’이다. 일반적인 명칭은 대만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에서 밀린 국민당이 남쪽으로 내려와 세운 나라로, 쑨원(孫文)을 국부로 삼고 있다. 최근 민주 선거에 의해 당선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첨예하게 얽혀 있는 양안(兩岸)관계로 늘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

현재 대만은 정치, 경제,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이며, 현대화된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타이페이는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며, 아열대 기후에 속하여 연평균기온이 23.6℃로 일 년 내내 따뜻한 편이다. 타이페이 시내에는 공해가 심한 편이라 마스크를 하고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야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서 밤이 되면 밤의 화려함과 현지인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과 다양한 먹을거리를 접할 수 있다.

기후

아열대성 기후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습하고 강우량이 많으며 연평균 기온은 북부가 22도, 남부가 24도 정도이며 평균 최저 온도가 12~17도이므로 일 년 내내 온화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무더운 여름은 5~9월 사이의 기간이며 낮에는 27~35℃까지 올라간다. 겨울은 12~2월까지이며 기온은 12~16℃ 정도이다. 눈은 고산지대에서만 내리며 흐린 날에는 쌀쌀한 기온을 느낄 정도이다.

시차

우리나라 보다 1시간 느리다(ex. 한국 AM 09시 = 대만 AM 08시).

통화

뉴타이완 달러(New Taiwan Dollor, NT\$)이며, 元으로 표기된다. 1원(元)=10각(角)=100분(分)이며 지폐에는 50圓, 100圓, 500圓, 1000圓이 있고, 동전은 1圓, 5圓, 10圓, 50圓이 사용 되고 있다. 외국 화폐는 정부 지정 또는 국제 관광호텔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환전할 때 영수증을 잘 챙겨 두어야 돌아올 때 남은 돈을 미국 달러로 바꿀 수 있다.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금액은 5,000元까지며, 대만의 대부분 은행은 평일에는 오후 3시 30분, 토요일에는 오전근무만 한다. 주요 도시에서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행자 수표는 관광객을 상대하는 곳이나 국제 수준의 호텔에 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일반적인 팁은 가방 한 개당 NT \$30이며, 10%의 팁과 5%의 부가가치세는 식비나 숙박비에 미리 포함되어 있다.

전압

대만의 일반가정 조명과 소형기기의 전압은 110V 혹은 220V이며 주파수는 60Hz이다.

경제

타이완 경제는 1946~67년에 자본 도입으로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 자본을 국내에 저축하고, 투자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을 지원하

였으며 최근 전자장비·의류 등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약품, 정밀기계, 전자기기 등 첨단산업도 발달하였다. 타이완은 대부분 제조업·서비스업·국제무역에 바탕을 둔 경제를 구성하고 있다.

지리

타이완은 타이완 해협을 두고 중국의 푸젠성과 마주하고 있다. 섬의 면적은 한반도 1 / 6크기인 36,179km²이다. 면적의 약 2/3이 산지와 구릉지대로 구성되어 있고, 험난한 타이둥 산맥, 좁고 긴 타이둥 지대, 중량 산맥, 아리 산맥, 위산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3개의 산맥으로 중량 산계, 구릉이 분포되어 있는 광대한 지대, 서부 해안평야·분지로 인구가 밀집하여 살고 있는 지대이다. 분지로 중서부에 타이중 분지, 북쪽에 타이베이 분지, 남쪽에 핑둥 분지, 북동쪽에 이란 분지가로 구분할 수 있다. 주된 강으로는 단수이 강, 쥐수이 강으로 이 강들은 관개와 수력발전으로 쓰이고 있다.

사회문화

원주민 전체 인구는 대략 2,336만 명으로 루카이, 파이완, 부눈, 트로코, 아미 등으로 불리는 13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원주민들을 제외하고 청나라 때부터 중국남부로부터 이주해 온 중국인들은 2천만을 넘는 것(80%)으로 추정되며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다. 공식 언어는 중국 북경어인데 여러 곳의 지방 방언들도 같이 사용된다. 외국어 중에서는 영어를 가장 많이 공부하므로 약간의 영어 회화는 가능하지만, 여행 중에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힘든 편이다.



싱가포르



- ◆ 수 도 : 싱가포르(Singapore)
- ◆ 언 어 :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 ◆ 인 구 : 약 579만명(2018 통계청 기준)
- ◆ 주요민족: 중국계(77.5%), 말레이계(14.2%)
- ◆ 기 후 : 열대기후
- ◆ 종 교 : 불교(53.3%), 회교(15.3%), 기독교(12.7%), 힌두교(3.7%)
- ◆ 면 적 : 697
- ◆ 환 율 : 1SGD(싱달러)=약 887원 (2019. 9. 26. 기준)

개요

'그린 & 클린 시티'로 불리는 머라이언의 나라 싱가포르는 14세기경에 수마트라섬의 한 왕자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상한 동물을 보고 사자로 오인하면서 '싱가푸라(Singa Pura, 사자의 도시)'로 불리다가 영국인들에 의해 싱가포르로 발음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있었던 탓에 1832년에는 영국의 해협 식민지였으며, 1942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후 영국 식민지로 환원되었던 싱가포르는 1959년 영국 연방 내 자치 정부를 설립했으나, 1963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다가 1965년에야 비로소 독립 공화국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117번째로 유엔에 가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싱가포르의 옛 명칭인 '테마섹(Temasek : 바다의 마을)'에 널리 알려진 전설속의 동물 '머라이언'은 1964년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처음 착안 되어 관광청 공식 문장으로 사용되게 되었으며, 현재 젊은 나라인 싱가포르의 발전과 성장을 상징하기 위해 싱가포르 강 입구에 위용을 뽐내고 있다.

지리

싱가포르는 본섬 외에 50여개의 조그마한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 총면적은 692.7km²다. 북위 1.09~1.29도, 동경 103.38~104.06도에 위치하며, 적도로 부터 북쪽으로 약 1백37km 떨어져 있다. 이웃 인도네시아와는 동서를 잇는 유명한 해상 루트인 말라카 해협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와는 조호 수로를 잇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항만 도시 국가이다. 싱가포르 본섬의 서남부는 암석지대로 저습지가 많고 동부지역은 모래가 많아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후

열대 기후에 속하며 연평균 섭씨 27~28℃로 기온의 변화가 거의 없고 강우량에 따라 다소 변화를 느낄 뿐이다. 연중 상하의 날씨로 11월에서 익년 2월까지 동북 몬순 기후로 우기에 속한다. 우기라고는 하지만 하루에 한 두 번 소나기(스콜)가 오고 나면 곧 날씨가 갠다. 연중 기후는 맑고 고온 다습한 기후이지만 건물 안이나 공공시설은 에어컨 시설이 완벽해 오히려 얇은 가디건 같은 겉옷이 필요하다.

문화

싱가포르는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등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 국가이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자국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는 물론 멀리 포르투갈까지 다양한 문화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인구는 4백 35만 명으로 공용어는 영어, 중국어, 타밀어, 말레이어이고, 종교는 불교,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이다. 천혜의 지리적 조건에 힘입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정유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무, 주석, 코코넛, 석유, 목재, 쌀, 향료, 커피, 황마 등 각종 산물의 거래시장으로 이 지역의 부를 창조하고 있으며, 관광도 주요산업으로 성장하여 하루 평균 1만 4천여 명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찾고 있다.

경제

국가주도의 개발정책은 싱가포르가 지리적 협소성과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전략이었다. 싱가포르는 1961년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을 설치하고 싱가포르를 세계 무역과 투자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1948년 싱가포르 진보당이 제안한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을 1955년부터 조성하여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적립하는 일정 기금을 공공주택건설사업, 후생복지사업, 교육사업에 투자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공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5년 현재에도 정부 예산안의 21%를 중앙적립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사회

싱가포르는 중국인·말레이인·인도 파키스탄인·유럽계인 등이 저마다 다른 언어·풍속·습관·문화·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문화가 섞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종에 따라 직업도 다른데 대부분 중국인은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상업에 종사하고, 말레이인은 하급공무원과 하급노동자로 일하며, 인도인은 공무원이거나 택시기사, 청소부 등이 많다. 이러한 복합사회는 인종간의 대립을 불러일으켜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중국인 사이에는 푸젠·광둥·커자차오저우·하이난등 출신지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적 결합관계인 방이 있는데, 상업활동은 이 방을 중심으로 행해지며 다른 방과의 관계는 희박하다. 이처럼 인종적으로 분단되는데다가 방 등으로 다시 분단되기 때문에 계층 문화가 표면화되지는 않는다.

제2편 방문지

1. 타이페이시청 도시재개발국(공식방문)

가. 방문지 개요

URS(도시재생 전진기지: Urban Regeneration Station, 약칭 “URS”)는 타이베이시 도시재생국(Urban Regeneration Office) 정책의 일환으로 <소프트 도시주의> 도시재생 전략에서 지역의 빈 공간을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주민 참여 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 정책 중 하나이다. 철거와 재건설, 용적률 제고 등 개발 모델은 도시재생의 유일한 답이 아니기에 유휴 공공건물과 새로 리모델링한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하며, 공모를 통해 입주한 민간단체는 현지 문화와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유동성, 거리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변화를 촉진한다. 주로 문화예술 단체 및 역사 단체가 이를 민간 위탁 받는 형태가 많으며,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타이페이시청 도시재개발국에서 설명을 듣고 기념촬영

URS 뒤에 붙은 번호는 공간이 있는 주소의 번지로 URS 44는 44번지에 있는 URS이다. URS는 ‘그대의’, ‘당신들의’, ‘동반자의’ 등을 의미하는 영문 yours와 같은 발음이다. 참가자가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URS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공공 유허 공간이나 기부 받은 공간에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심사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때 개인의 공간을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건물주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함께 하고 있어 상호 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타이페이시에 현재 9개 정도의 URS가 있는데 시정부에서 건물을 매입한 뒤 민간단체에게 맡겨 활동가와 주민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을 비롯해, 전시장, 공정무역 상품 판매, 밥 함께 해먹기 등 활동도 아주 다양하다.



타이페이시청 도시재개발국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의장 정기수의원

타이페이시청 도시재개발국을 방문하고 나서 ‘온고지신’이 떠올랐다. 옛것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대만사람의 지혜가 엿보인다. 언뜻 보면 촌스럽고 정리가 안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에서 통합적으로 보존·관리하니 자체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기도 하고 도시 개발 관련하여 효율

적 자원 배분으로 추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 구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고택이라든지 적산가옥 등은 이제라도 적극 보존하여 활용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 재생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것이 부지 또는 거점 확보인데, 민·관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유희공간을 도시 재생 거점 공간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2) 부의장 김동선의원

대만의 타이페이시청 재개발국을 방문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방문했다. 우리나라 70년대의 실정을 그대로 보존한 곳도 있었고 근대 문물을 잘 보존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우리 구포의 약초골목과 같은 곳도 있었는데, 과거 구포지역에 있었던 건물이나 시장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했더라면 우리도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인데,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의원

타이페이의 도시재개발에 대한 인상을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공존”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재개발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성과를 지향하게 됨에 따라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타이페이의 경우 도시가 과거부터 쌓아온 역사·문화적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도시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급속한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며 개발하는 URS의 이야기는 구도심 지역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우리 북구가 도시재개발에 있어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타이페이의 도시재개발 사업에서 ‘마을공동체’는 단순히 재개발사업의 피동적 주체가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한 주축을 담당하는 능동적 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4)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URS는 ‘소프트 도시주의’로 생겨난 타이베이 시 도시재생 정책의 일환으로, 개방성·사회성·실험성·이동성을 특징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

의 빈 공간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주민 참여 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 정책 중 하나이다.

각 URS는 유휴 공공건축물과 새로 리모델링한 개인주택 등을 활용하며 공모를 통해 입주한 민간단체에게는 무상임대형식으로 공간을 대여하고 있으며, 입주한 민간단체는 현지문화와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의 유동성, 거리 활성화를 통해 도시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전략이며, 주로 문화 예술 및 역사 단체가 이를 민간 위탁 받는 형태가 많고,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타이베이 시정부는 근대유적을 보존, 복원하는 형태로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다. 도시의 변신은 항상 사람과 함께 해야 하며, 변화된 공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창조와 변화의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구의 도시재생 사업도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민들과 함께 진행해 나가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5)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의원

타이페이 도시재개발청 건물은 1920년도에 완성됐다고 하는데 보전을 잘 한 것 같다. 타이페이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한국에 자주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에 많이 보러 갔다고 한다.

한국에서 느낀 점은 가정집이라든지 환경들이 잘 되어 있다고 한다. 도시개발이 주민의 주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만도 인구밀도가 아주 높기에 주민이 사는 주거지를 많이 중시하는 편이다.

대만이나 한국의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는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6)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타이페이에서 처음 일정으로 시청 도시재개발국을 방문했다.

URS(도시재생 전진기지)는 도시재생국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빈 공간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주민 참여 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9개의 정도

의 URS가 있는데 건물을 매입하고 민간단체에게 맡겨 활동가와 주민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도시재생에서는 모든 건물이 사적 재산이므로 도시계획 시작부터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하지만 건물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로 보존가치를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노력한 결과 보존건물 91채 현대식 건물은 110채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의 도시재생에 성공했다. 타이페이 시는 현재 9개의 도시재생 전진기지를 두고 있으며, 개인의 공간을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고 건물 기증자에게 건물평가 후 이주 보상 제도를 도입해 다른 곳에 건물을 새로 지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적 재산을 보호하고 정책적 배려도 함께 하고 있다고 했다.

옛 건물을 보존 리모델링하고 현대식 건물과 함께 도시계획변화의 방법으로 도시재생 전략을 성공시켰다. 앞의 건물을 먼저 철거하여 계획도로를 만들고 변화가의 부족한 주차장은 초등학교에 만들고 여기에서 주차장 수익금은 모두 학교로 돌아가는 수익구조로 편성되어 있어서 도심의 부족한 주차장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 북구도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학교에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바 교육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제시대의 서양식 건물이지만 잘 보존해서 함께하고 일본의 식민지 역사에 우리나라와 다르게 반감이 크지 않고 좋은 사이라고 한다.

오래된 건물이 많지만 전신주가 모두 지하에 있어서 건물 외각모습도 깨끗했다. 우리북구도 남아있는 전신주 지하화에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타이페이의 심각한 오토바이의 매연은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고 수많은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타이페이가 해결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7)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의원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타이페이와 우리보다 상위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최고 관심사는 도시재생과 야시장이다.

타이페이 땅을 밟고 드디어 출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아파트 주택, 옥상

마다의 물탱크가 참 특이하다. 자전거주차대와 오토바이주차 그리고 자동차 주차까지 그어진 선 안에서 벗어난 차량을 구경할 수 없다.

불법주정차는 이 나라에는 없는듯하다. 카메라 영향일까? 벌금 영향일까?

빈 도로만 있음. 불법주차를 일삼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대조적이다. 좌회전이 없는 것 차량도 신호대기시간이 표시되는 것도 운전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듯하다.

타이페이 첫 번째 공식방문지, 타이페이 시청 도시재개발국. 지역의 빈 공간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주민참여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공간활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정책,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면서 앞에 URS를 첨가했다.

그대의, 당신들의, 동반자의... 추가해서 따뜻함으로 해석해 본다.

오래된 주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에겐 그만큼의 보상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준다. 도시재개발의 최상의 모델인 것 같다.

옛것을 보존하면서 새로움을 창출하는 우리 구 구포역 인근만 하더라도 보존되어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다. 더 나은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구에서 보상을 해주고 개발을 돕는다면 누가 마다할까만은 보상비용이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8)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도시재생 전략에서 지역의 빈 공간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주민 참여 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시 정책 중 하나이다.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철거와 재건설 등은 도시 재생의 유일한 답이 아니기에 공공건물과 새로 리모델링한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하며 공모를 통해 입주한 민간단체는 현지 문화와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유동화, 거리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변화를 촉진 시킨다는 것이 도시 재생의 전략으로 보인다.

우리가 방문한 URS 44는 타이페이의 디화제(Di hua street) 거리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리고 도시 재생 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의 의견 수렴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디화제 항구와 친수 공간(스카이파크) 건설 계획 및 개발형 도시 계획에 따른 야시장 및 전통 시장 상권 약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도시 재생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과 방문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디화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디화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URS 44 다다오청 이야기 공방의 미션이다. URS 44는 시민단체인 역사 자원협회가 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북구는 구포시장이라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재래시장이 있는 곳이다. 또한 금빛노을브릿지와 리버워크 다리 건설이라는 큼직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계획한 만큼 문화와 예술 그리고 전국에서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9) 주민도시위원회 강광진의원

공항에서 내려서 첫 번째 방문지로 타이페이시 도시개발국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도시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만의 일본통치(식민)시기는 청일전쟁의 패전으로 청나라가 자국의 영토였던 타이완(대만)을 일본제국에 할양한 1895년 4월17일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인 1945년 10월 25일 중국 국민당 정권하에 들어갈 때까지의 50년간을 가리킨다. 도시재개발 중인 건물 중 일본통치시기때 건축된 건물이 많으며, 기후변화가 한국보다 크지 않아 건물의 노후화 속도가 늦어서 현재까지 콘크리트 골조가 양호한 상태라서 리모델링을 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타이페이시 주도하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으며,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은 매입하고 다른 신도시에 동일한 가치의 건물을 신축해 주어 이주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전략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재탄생한 건물은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단체 및 역사단체가 이를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들의 명칭은 URS(도시재생 전진기지:Urban Regeneration Station)로 정해 호칭을 쓰고 있으며 현재 타이페이시에는 9개의 URS가 있으며, 그중 URS 155를 방문하였습니다. URS 155는 과자를 만들어서 전시해 놓고 있었으며, 건물 안쪽 강의실에서 시민들에게 과자 만드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현재 북구에서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존가치가 있었던 고(古)건물은 구의 재정상 매입을

하지 못해 철거되고 현대적 건물이 들어섰으나, 타이페이시의 도시재개발은 고(古)건물의 중요성을 시에서 인지하고 적절한 예산을 마련하여 보존하고 도시재생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제8대 의회 국외공무연수 첫 공식방문지로 타이페이시청 도시재개발국을 방문하였다. 담당직원으로부터 타이페이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다. 타이페이시의 도시재생정책은 지역의 빈 공간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주민참여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도심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존의 삶의 터전에서 더불어 잘살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건물주가 건물을 기증하면 감정을 하여 그에 상응하는 건물을 정부에서 특별지구예다 마련하여 준다고 하니, 면밀히 말하면 도시재생이 아니라 일본식 민지 시대에 형성되었던 구도심을 보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더 큰 것 같다. 말이 기증이지 돈이 있는 건물주에게만 더 나은 삶의 공간을 제공하여주고 건물이 없는 서민들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없으니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면서 불편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더불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 정책이 더 우수한 정책인 것 같다.

(11)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대만은 과거 단수이 강과 쥐수이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된 국가로서 동고서신(東古西新)의 특성을 지닌 곳으로 동쪽은 예부터 큰 항구를 중심으로 조성된 곳이며 현재는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된 곳이며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서쪽지역을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URS는 ‘그대의’ ‘당신들의’ ‘동반자’의 의미를 담은 영문 yours와 같은 발음을 의미한다.

대만은 도시재생전략으로 낡고 오래된 건물들을 철거하여 그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나 주택을 짓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오래되고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건물주로부터 기증을 받고 다른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옛 건물들을 훼손하지 않고 정부가 기부 받아 문화예술단체등과 협의하여 역사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건물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문화관광 지역으로 조성하여 상호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때 매입된 유휴공간을 지역의 주민과 문화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옛날 역사가 있는 건물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디화제거리, 한약제 거리, 공예공장, 근대생활사 박물관등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비롯해 전시장, 공정무역 상품판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대만에는 9개정도의 URS가 있다고 한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북구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고장이지만, 지역의 향토역사와 문화를 한데 모은 박물관이나 역사적 공간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얼마 남지 않은 근대적 가치를 지닌 건물이나 물건들조차 그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지금이라도 역사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물건들을 매입하여 이를 역사문화 거리조성 등 문화관광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과 주민, 학계와 문화예술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가장 우리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12)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타이페이시의 도시재생사업은 무조건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보존’ 과 ‘개발’ 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담아 내기위한 흔적이 많이 보였다. 1988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을 시정부에서 매입한 뒤 민간단체에 맡겨 활동가와 주민 전문가들이 운영을 한다고 한다. 시청 도시 재개발국이 위치한 곳도 1927년부터 병원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0년 공유재산으로 계획, 3대째에 시에 기능을 하고 2007년 약간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시민에게 개방되었다고 하니 재개발국 하나 보더라도 타이페이시의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읽기에 충분했다. 구역의 거리는 크게 4섹터로 구분이 되는데 연구 개발하는 구역(27w), 주택과 가게

가 병행된 구역(127w), 한약재를 소개하고 판매되는 구역(155w), 쌀과 관련된 가게들이 있는 구역(329w)으로 마치 북구의 만세 거리, 창조의 거리, 젊음의 거리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었다. 아주 체계적인 계획 아래 거리를 테마 별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인상이 깊다. 또한 도시재생구역을 알리기 위해 QR코드를 도입해서 관광객 또는 외부인들을 유입해나가는 데도 세심하게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질의응답 시에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북구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의 큰 걸림돌중의 하나가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거점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 가치가 급등한다거나, 민간인들의 변심 등으로 인해 어려운 일이 비일비재하다. 타이페이의 경우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해서 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의 가치만큼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또 인근 주민들과 자주모여 회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만큼,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이러한 부분이 잘 해결되어야만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다.

북구에서도 구포역과 덕천권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한창이다.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지역의 특색은 살리고 그 속에 개발이라는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주민들과의 소통, 보존과 개발이라는 큰 가지 아래 북구의 도시재생사업도 큰 틀에서 한 번 더 되짚어봐야 할 때이다.

(13) 기획총무위원회 손분연의원

대만의 도시재생은 구 건물을 시에서 훼손 없이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물 소유자가 구 건물 기증 후 계획했던 것을 시에서는 지정한 장소에 협의하게 신축지원을 한다. 또한 건물을 기증한 소유자와 생활병행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을 한다.

기증자가 많은 편이고 조건에 맞게 시에서는 연구 개발하여 관광사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협조가 잘 되고 있다.

더위와 비 피해, 또한 쇼핑객의 편의를 위하여 앞쪽은 기둥만 있는 복도식으로 건물 안쪽으로 본건물을 지어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시내 곳곳에 자전거 자동대여 시스템이 있다. 버스교통카드와 공용으로 사용

하며 30분당 200원의 저렴한 비용과 운동효과로 좋은 정책으로 판단된다.
 대여 장소와 관계없이 타 지역 대여 장소에 환원시킬 수 있고, 대여 장소는
 주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잘 정돈되어 있다.
 량과 보행자 신호등 모두 신호의 잔여시간 표시가 되어있어 편리하다고 판
 단된다.
 도시 건물들이 외관상 깨끗하지 못해도 건물내부에는 청결을 유지하고 있어
 서, 보여주기 식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과 정책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
 각된다.

(14) 주민도시위원회 운동철의원

타이페이의 도시재생 전진기지(URS)는 도시 재생 전략에서 지역의 빈 공간
 을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부족한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주민 참여 공간
 으로 재탄생 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장소를 적극 활용한다면 역사 문화 국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 재생 과정에서 관과 주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
 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결국 사람이 움직여야 부지도 매입(교환)이 가능하
 고 프로그램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서로 꾸준히 소통하며 신뢰를 쌓
 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생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 오늘날 경쟁력 있는 도시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 보다는 주민의 생활과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 역사·문화적 자원을 토
 대로 하는 창조적 도시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그린도시, 주민의
 다양한 소통 공간 확보로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 함양, 주민들의 일상적
 인 삶을 창조적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타이페이의 도시재생은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잘 활용하여 전면적인 개발보다는 커뮤니티 복원을 중심으로 한 모범적인 도시재생이다. 역사와 문화가 깃든 지역의 고유한 모습을 잘 살리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보존할 것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도시재생을 통한 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창조도시를 추진하는 주체 세력으로 결집시킨 것이 타이페이 도시재생의 성공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 타이페이에서는 공공 유허 공간이나 기부 받은 공간에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심사하여 지원하고 있고, 개인의 공간을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건물주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함께 하고 있는 점이나, 마을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도시재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성공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우리 구포지역의 도시재생(구포 이음 프로젝트)도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활동가들의 자유롭고 진취적인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타이페이 시의회(공식방문)

가. 방문지 개요

타이페이 시의회의 의원정수는 63명(여성의원 24명, 중국 국민당 29석, 민주 진보당 19석, 기타 15석)이고, 임기는 4년이다. 시장은 30세, 시의원은 23세 이상이 피선거권을 가지며, 시의원은 임기의 제한이 없다.

특징으로는 지방 자치 단체 규정에 따르면, 여성당선할당보장제 25%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선거구의 4개 의석 중 1개는 여성의원을 위해 예약 되어있다. 5명 중 1명이 여성인 경우 득표율이 낮아도 당선되도록 하는 법으로 여성의원의 비율이 대략 33%가 넘는다.

위원회는 9개이다(상임위원회 7개, 특별위원회 2개).

시의회는 행정을 감독하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최대 복지 달성을 보장한다.



타이페이 시의회 입구에 마련된 부산시 북구의회 대표단 환영 조형물 앞에서 기념촬영



타이페이 시의회 소개 영상물 시청

의회 조직은 의장과 부의장, 민정, 재정건설, 교육, 교통, 위생, 공무, 법규위원회 등 7개의 상임위원회와 절차, 기강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국제적인 교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타이페이는 전 세계 32개국에서 48개 자매도시, 2개 파트너 도시 및 2개 우호 도시와 체결하여 국제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1968년 3월 23일 자매도시로 체결하였고, 두 번째로 대구가 2010년 11월 4일 자매도시로 체결하였다.



타이베이 시의회 본회의장(위의 왼쪽)과 의회청사 앞에서 기념촬영(아래)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의장 정기수의의원

타이페이 시의회는 가히 인상적이었다. 물론 규모나 구성 면에서는 우리 구보다 월등히 크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지원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선 정책보좌관을 두어 의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홍보영상과 설명에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각종 위원회나 회의 때에도 도시락을 먹으며 치열하게 논쟁한다고 들었다. 본회의장을 견학해보니 각 의원들 자리에 전화와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우리 의회도 의회 청사 독립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시설면에서 의원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갖출 필요성을 느꼈다.

(2) 부의장 김동선의의원

타이페이 시의회는 우리의 부산광역시의회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타이페이 시의원 정수는 63명으로, 부산시의원 47명보다 많으나, 본회의장 규모나 시설은 비슷한 것 같다. 하지만 7명의 의원보좌진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지방의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의원들에게 충분한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의원

타이페이 시의회 방문하며, ‘우리가 환영받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시의회 1층 로비의 가장 중심에는 부산 북구의회를 위한 환영조형물이 있었는데, 방문객에 따라 영문표기를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인데 타이페이 시의회의 세심한 배려 덕택에 타이페이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대만은 우리와 같은 기초의원 제도는 두고 있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지방정치체제의 모습은 닮아있었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의원들의 성별 구성이 균등

했고, 30대 젊은 정치인이 상당수 있었다는 점이었는데 대만 역시 시민들이 변화의 바람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이 지방선거에 반영되었다는 평이었다.

(4)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타이베이 시의회의 의원정수는 63명으로 여성당선할당보장제 25%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선거구의 4개 좌석 중 1개는 여성의원을 위하여 예약되어 있다. 현재 여성의원이 30% 정도이고, 30~40대 젊은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교육, 문화, 과학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복지분야 예산은 16%정도로 우리구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을 자매 우호 도시로 체결하여 국제 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서울과 대구도 자매도시로 체결하였다.

복지분야 예산 투입으로 교육, 문화, 과학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 여건이 아쉽게 느껴지며, 우리구도 국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키우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의 문화 교류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의원

타이페이 시의회는 시청건물과 독립되어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느낄 수 있었다. 본회의장을 둘러본 결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또한 우리 지방의회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 특히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직원을 7명이나 둘 수 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우리 지방의원의 경우 보좌직원이 없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고, 회의에도 참석을 해야 하니 늘 시간이 부족하다. 앞으로 지방의원들에게도 보좌직원을 1명이라도 둘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6)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기초시의원 63명중 여성의원이 24명이

었으며 임기는 4년 우리나라와 같다. 지방 자치 단체규정에 여성당선할당보장제 25%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선거구의 4개 의석 중 1개는 여성의원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웠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여성을 위하는 정책 또한 많으리라 생각한다.

이제는 신세대로 바뀌는 문화로 젊은 사람의 기초의원 선호도가 높다고 하였고 기초의원 1명당 7명의 비서진을 두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놀라웠고 부럽기도 했다.

교육·문화·과학 분야의 예산은 37% 사회복지 분야는 16%의 예산집행을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시의원들을 우대하고 인정하는 국민성이 있다고 한다.

시원의 세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월 880만원 가까이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 세비를 묻는 질문에 우리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았다.

(7)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의원

특이하게 대만은 기름, 주류를 나라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가가호호 오토바이가 있는듯하다. 도로도 신호대기 첫선에 오토바이주차 표시선이 있다.

환경오염이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느끼는 공기는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듯하다.

오늘 첫 방문지는 타이페이 시의회, 이곳은 구의회가 없고 비례대표도 없다. 또 지자체에서 새로운 정당도 만들 수 있다. 물론 국민당과 민진당이 주축이기는 하지만 신당이 서너 개는 된다한다. 작년 12월 선거이후 의장이 신당을 만들어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64명의 의원중 초선의원이 20명이란다. 초선은 30대 전후의 의원이 다수라고 한다.

현장 유세 없이 인터넷 매체 활동으로만 당선된 의원도 있다하니 우리에게도 곧 펼쳐질 미래인 듯하다.

본회의장 내부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각각의 테이블에 스탠드 마이크가 설치되어있어 누구나 의사발언신청을 하여 그 자리에서 발언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자리마다 물병과 물티슈 등이 놓여 있는걸 보니, 꽤 오랜 시간 진행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복장도 간편복장이 많은가보다. 권위를 벗어 던지는 것 우리 의회도 본받아야 할 듯하다.

(8)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타이페이 시의회 의원 정수는 63명이며 4년의 임기를 보장한다. 시장은 30세, 시의원은 23이상이 피선거권을 가지며 시의원은 임기의 제한이 없다. 타이페이 시의회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르면 여성 당선 할당 보장제 25%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선거구의 4개 좌석 중 1개는 여성의원을 위해 예약되어 있는 실정이다. 4~5명중 1명이 여성인 경우 득표율이 낮아도 당선되도록 하는 법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이 33%가 넘는다. 시의회의 기능은 시정부의 민주주의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시 행정을 감독하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최대 복지 달성하는데 그 기능이 있으며 의회의 조직은 의장,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및 2개의 특별 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우리 북구도 지역 주민을 생각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과 민원을 수렴하여 협치의 자세와 이해로 더욱더 발전하는 북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9) 주민도시위원회 강광진의원

둘째날 타이페이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타이페이 시의회에 관한 홍보영상을 방문자에게 시청하게 해 주었는데 화면 밑에 한국어로 번역해서 자막이 있으면 보다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순서로 타이페이 시의회장을 방문하여 의회장 규모와 좌석배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원좌석에 마이크가 일어나서 발언할 수 있도록 높게 되어 있었고, 전화기와 모니터가 좌석마다 배치되어 있어서 한국의 국회급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여 방문단 접견실로 이동하여 타이페이 시의회 葉林傳부의장과 洪樹林비서장과 만나서 타이페이 시의회 관련해서 질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타이페이시의 2019년 예산은 약 1,800억원으로 한화로 계산하면 약7조2천억원이 됩니다. 교육, 문화, 과학에 37.8%, 사회복지에 16%가 예산편성되어 있어 북구의 예산과 비교해 보면 복지예산에 70%를 조금 상회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입니다.

2019년 타이페이 시의회 의원정수는 63명이며, 정당별로는 중국국민당 29명, 민주진보당 19명, 기타 16명이며, 성별로는 남성 39명, 여성 24명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의하면 여성당선할당보장제 25%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선거구의 4개 좌석 중 1개는 여성의원을 위해서 예약되어 있어 여성 의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타이페이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수당은 의장 8백만원, 부의장 680만원, 의원 520만원으로 직위별로 다른데 반해 북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수당은 직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7개와 특별위원회 2개가 설치되어 있다.

국제교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타이페이는 전 세계 32개국에서 48개 자매도시, 2개 파트너도시, 2개 우호도시와 체결하여 국제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두 번째 공식방문지인 타이페이 시의회를 방문하였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 같이 지리적으로 시청과 구분된 시의회 독립건물이 경이롭다. 시의회 직원의 안내로 대강당에 들어가서 타이페이 시의회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동영상 시청을 하였다. 타이페이는 기초단위의 의회는 없고 광역 단위의 타이페이 시의회만 있어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의원 정수가 63명이고, 이중 여성의원이 24명으로, 전체의원의 38%에 해당한다. 특이한 점은 비례대표가 별도로 없으며, 원주민 중에서 2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 두 개의 구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대선거구제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원을 선출한다.

여성당선 할당보장제 25%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어 4명 중 1명은 여성이 당선되게 되어 있으나,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기가 높아 여성의원의 당선비율이 38%에 달해 이 제도는 무의미하다.

임기는 4년으로 2018년 12월 25일 임기를 시작하였고 초선의원이 20명이며, 초선의원 대부분이 30대이다. 초선의원 1명은 인터넷으로만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인기가 상당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인터넷으로만 선거운동을 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다음으로 본회의장을 견학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의원석과 집행부석 모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모니터와 의원석과 집행부석에서도 발언할 수 있도록 마

련된 마이크, 회의 중에도 의원 간, 회의에 참석한 집행부와의 통화는 물론, 외부와도 수시로 통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선전화 등 스마트한 시스템이 부러웠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우리 북구의회도 스마트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더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밖에 타이페이 시의회 부의장과 환담을 하였는데, 상호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등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11)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타이페이 시의회는 의원정수 63명(여성의원24명, 중국국민당 29석, 민주진보당 19석, 기타15석)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4년이다. 시장은 30세, 시의원은 23세이상 피선거권을 가지며, 시의원의 임기 제한은 없다고 한다. 타이페이 시의회의 특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의하면, 여성당선할당제를 채택하여 25%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4명중 1명은 반드시 여성의원으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규정에 따르면 5명중 1명이 여성인 경우 득표율이 낮아도 당선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현재는 여성의원 비율이 대략 33%가 넘는 것으로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타이페이 시의회의 의장, 부의장과 민정, 재정건설, 교육, 교통, 위생, 공무, 법규 등 7개의 상임위원회와 절차와 의원들의 기강을 다루는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시의회의 기능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견제와 균형으로 행정을 감독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현과 시민들의 복지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또한 타이페이 시의회는 국제적인 교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32개국에서 48개 자매도시와 2개의 파트너 도시 그리고 2개의 우호도시를 체결하여 국제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서울과 자매도시로 체결하였으며, 2010년 대구가 두 번째 자매도시로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타이페이 시의회의 특징은 우리나라처럼 비례대표제는 없고 여성의원 당선할당제를 통하여 일정한 비율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주민 출신을 2명 뽑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수민족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12)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타이페이 시의회에서 부산 북구의회를 크게 환대해주심에 감사드린다. 인상 깊었던 것은 지난해 12월 선거에서 30대 젊은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와 지역은 달라도 젊은 청춘을 다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 젊은 의원들을 마음속으로 응원했다. 지하1층 브리핑실에서 의원 활동사항을 짧은 동영상으로 시청 후 본회의장 방문을 했는데, 북구의회와는 다르게 각 개별 의원들의 책상마다 마이크가 있고 아주 신랄하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모습들이 본회의장 내에서 연출이 되고 있다. 10층 접견실에서 타이페이 시의회 부의장이 우리 일행을 맞이했다. 대만돈 1800억 원이 한해 예산이라고 하니 한국의 광역시급에 해당하고, 타이페이는 구의회가 따로 없다고도 한다. 교육·과학·문화에 전체 37.8%의 예산이 투입되고, 복지에는 16%가 투입이 된다고 하는 점도 북구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였다. 교육·과학·문화분야에 비중을 두는 만큼 타이페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의원 1인당 7~8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는데 예산낭비 차원에서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인사권이 독립된 만큼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만큼 앞서 의원들의 열성적인 질의 모습이 그 이유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북구의회도 현재 수석전문위원이 5급 별정직으로 집행부의 시선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조언을 해주시는데, 이러한 의회직원 인사권 독립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3선 부의장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부산 북구의회에서도 손님을 맞이하게 될 경우 우리 북구주민들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잘 대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13) 기획총무위원회 손분연의원

타이페이 시의회의 의원정수는 63명으로 25%이상의 여성 할당보장제로 강제되어 있지만 여성 지원자가 많아서 큰 문제 없다.

현재 30% 여성의원이고 예전에는 국민당이 대다수, 현재에는 국민당 28석 민진당 19석등 다수당과 타이페이 시장 당 1석도 있음. 대부분 30~40대 젊은 의원이다. 인터넷으로만 선거운동하여 당선된 의원도 있다.

국민들이 신세대를 원함으로 젊은 의원이 많은 것이 인상적이고 다수당의 현실에서 화합부분이 의문이 되지만 서로 화합을 위한 노력으로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한다고 한다.

주요 정책과 예산배정에는 교육, 문화, 과학 순이고 복지는 16%수준이다.

타이페이 시의회 부의장과의 접견시 한국과 문화 창조 등 많은 교류를 원했다.

타이페이의 시의원 의정활동비가 6~7,000만원이고, 시의장은 8,000만원에 업무추진비도 8,000만원 지급되고 있음.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북구 지방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가 적어서 겸업하지 않는 의원은 생계에 지장이 있다.

(14)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타이페이 시는 32개국에서 48개의 자매도시, 2개의 파트너도시, 2개의 우호 도시를 체결하며 국제 친선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문하였을 때 보여준 시의회 홍보 영상이나 타이페이시 부의장 영접 행사를 볼 때 우리 북구도 여러 자매도시를 체결하기 전에 그에 걸 맞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의회 및 지자체와 소통을 하여 구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계 도입 필요

-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가지고, 지방의회 사무처 직렬의 신설과 사무직원의 광역 단위 순환보직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2. 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97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의 임용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개정 2016. 12. 30.>

1.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전문개정 2014. 4. 21.]

○ 타이페이 시의회의 경우 의원 보좌관을 7명 정도 두고,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원보좌관제를 주장해 왔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4급상당 보좌관 2명, 5급상당 비서관 2명, 6, 7, 8, 9급상당 비서 4명 등 총 8명의 별정직 국가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별표4: 보좌직원의 정원)과 인턴직원 1명이 보좌를 하는 반면 지방의원의 경우 인턴 1명도 없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하다.

3. 싱가포르 더 플러튼 헤리티지

가. 방문지 개요

플러튼 지역(플러튼 로드)은 역사적 유산과 현대의 세련된 시설 및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플러튼 헤리티지'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등지고 머라이언 석상을 찾아 정면으로 바라보면, 머라이언 석상 좌측 방향으로 순서대로 플러튼 헤리티지 관광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 플러튼 헤리티지 웹사이트(thefullertonheritage.com)나 인터넷에서 '클리포드 피어(Clifford Pier)'로 검색해 과거의 사진을 미리 확인하고 간다면, 초창기 동남아 무역항으로 발돋움하던 싱가포르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지역의 주요 건물로는 등대 관측소처럼 보이는 작은 타워가 있는데, 이 건물은 과거에는 세관사무소였으나, 현재는 식당들이 즐비하다. 특히 3층에 있는 긴키 루프탑 바가 유명하다. 또한 최신 스타일의 특급 호텔인 플러튼베이 호텔은 6층 루프톱에 있는 랜턴 바가 유명하다.



더 플러튼 헤리티지에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등지고 촬영

그밖에 유리 돔 구조로, 수상 레스토랑, 바, 클럽이자 수상 전망대 역할도 하는 플러튼 파빌리온과 식당가로 1층 스타벅스에서 휴식과 함께 풍경을 감상하기 좋으며, 특히 야간에 인기 좋은 휴식처인 원 플러튼과 더 플러튼 호텔이 있다. 이 호텔은 1928년에 세워진 건축물로 과거 우체국이자 수출입 사무소, 상공회의소 등 각종 관공서로 사용됐던 곳이다. 현재는 최고급 호텔로 애프터눈 티가 유명하다. 또한 과거 선박들의 물 공급처로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곡선의 미가 돋보이는 건물로서, 현재는 싱가포르 스타벅스 100호점이 입점해 있는 플러튼 워터보트 하우스 등이 있다.



더 플러튼 헤리티지에 있는 더 플러튼호텔



머라이언 석상



더 플러튼 헤리티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머라인언 석상



더 플러튼호텔(위)과 원 플러튼(아래)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의장 정기수의원

플러튼 지역은 우리 구포역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역사적 유산과 현대의 세련된 시설이 조화를 이룬 곳으로 우리구도 도시재생 사업을 발판으로 구포지역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싱가포르를 과거에 세워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최고의 호텔, 휴식공간, 전망대 등으로 조성해 전 세계 사람이 이 지역을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국 50주년을 기념하여 건설한 다리는 디자인도 수려하고 바다위로 놓여져 관람객들이 많이 이용하였다. 우리 구 감동진 나루터와 도시철도 구포역을 잇는 감동나룻길 리버워크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주변의 볼거리를 같이 조성하여 관람객이 돌 수 있게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밀당프로젝트와 구포만세거리에 기

존 시설물 외에 지역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부가해야 할 것이다.

(2) 부의장 김동선의원

더 플러튼 헤리티지 지역은 역사적 유산과 현대의 세련된 시설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는 곳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강 건너 눈 앞에 보이고, 왼쪽 편으로 멀리 머라이언 석상도 보인다. 이곳을 걸어서 머라이언 석상까지 이동을 하였는데, 그곳에는 계란을 얹어 놓은 듯한 원형으로 된 오페라하우스도 있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더 플러튼 헤리티지도 결국은 철저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싱가포르의 걸작이다.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의원

싱가포르에는 수많은 복합문화공간이 있다. 그중에서도 더플러튼 헤리티지는 고풍스러운 건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1928년 우체국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건축된 건물을 호텔, 쇼핑스팟, 다이닝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는데 그 고풍스러운 매력에 매료되었다. 더플러튼 헤리티지는 싱가포르 리버에 위치하고 있다는 위치적 이점도 잘 활용하였는데 북구의 낙동강변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복합문화공간(해운대 더베이 101같은)을 만들면 북구의 위상을 고취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4)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더 플러튼 헤리티지는 더 플러튼 호텔, 플러튼 베이 호텔과 다이닝, 쇼핑 스팟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더 플러튼 호텔은 1928년 우체국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었으나, 2001년 400여 개의 럭셔리 룸을 가진 호텔로 변신하였고, 19세기에 배를 검열하던 세관 건물은 커스텀스 하우스로, 과거 배에 물을 공급해주던 공간은 더 플러튼 워터보트 하우스 등 다이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역사적 유산과 현대의 세련된 시설 및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관광지로, 우리구의 관광자원 개발 시 참고할 만한 곳이라 여겨진다.

(5)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중학의원

싱가포르의 도시재생의 중심은 더 플러튼 헤리티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50년 전만 해도 전부 바다였는데, 지금은 매립을 해서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이곳에는 1887년도에 지어진 래플스시티라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 된 호텔이 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전통과 역사가 있는 호텔이다. 더 플러튼 헤리티지는 부두였는데 지금은 호텔과 카페가 들어서 있다. 주변에 고풍스러운 건물이 있는데 과거 중앙부처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도 플러튼 호텔로 바뀌어져 있다. 더 플러튼 헤리티지에서 머라이언 공원 주변 쪽으로 걸어가니 머라인언 석상이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머라이언은 싱가포르의 상징이다. 머리는 사자, 몸통은 인어이다. 영어로 사자가 라이언이고 인어가 머메이드이기 때문에 합성어로 머라이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곳에서 바라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우리나라 쌍용건설에서 지었다는 6성급호텔, 우리 건설 기술의 위대함을 보여 준다.

(6)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모습을 뒤로하고 사진을 찍었다. 세계의 건물을 이어주는 배모양의 건물을 엮어 아름다움을 한껏 뽐낸 내가 본 최고의 건물이라고 하고 싶다. 멀리서 본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 또 감탄! 이다. 세계의 관광객이 몰려와 감탄하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건설은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지었다고 하니 마음속에서 자부심이 갑자기 생겨났다. 싱가포르는 건물 하나하나를 작품처럼 짓는다는 것이다. 건물 외관의 모습이 작품처럼 대부분 다른 모습으로 지어져서 예술적인 건축물이 되어 보이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는 기술이 있으니 도시계획 시 건축기획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 지역에 있는 더플러튼 호텔은 영국 식민지와 일본식민지 때 사용하던 건물을 허물지 않고 지금은 6성급의 고급호텔로 바뀌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공유되고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찾아 재생설계하고 보존하면서 철저한 수익 위주로 가는 싱가포르

정책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7)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의원

1900년대 초에 건립된 건물, 우체국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최고의 호텔로 변신했다. 영국의 지배 영향으로 애프터눈 티가 유명하다. 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옛 건물들이 잘 재생되어 멋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8)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싱가포르의 더 플러튼 헤리티지는 과거 부두와 세관 등이 있었던 곳이다.

플러튼 베이 호텔의 경우에는 우체국 건물이었는데,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300미터 정도를 걸어가면 머라이언 석상이 나오고, 강 건너편에는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격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도 보인다. 이곳에는 특히 야경이 멋있기로 소문난 곳이다. 클락키에서 배를 타고 이곳까지 왔다가 돌아가는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싱가פור는 더 플러튼 헤리티지 주변의 호텔과 카페 등에서 많은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우리 북구도 강변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 개발을 시도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9) 주민도시위원회 강광진의의원

셋째 날 싱가포르 창이공항 도착후 첫 번째 방문지로 도시재생 사례지인 더 플러튼 헤리티지를 방문하였다. 더 플러튼 헤리티지는 두 개의 호텔과 맛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리티지호텔인 플러튼호텔과 모던한 분위기의 플러튼 베이 호텔은 본래 우체국이었던 곳으로 로비에서 1,800년대 당시에 쓰던 빨간 우체통을 볼 수 있습니다. 식당 공간에도 역사가 깃들여 있고, 각기 한때 등대와 부둣가, 워터보트, 세관이 있었던 장소들입니다. 아름다운 데다 스토리까지 있어 더플러튼 헤리티지에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는 것 같습니다. 특히 머라이언상이 인상적이었는데 관광객이 많이 찾아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머리는 사자, 몸통은 인어를 형상화 해놓은 조형물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더플러튼 헤리티지는 과거의 유산에 현대적인 조형미를 가미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보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관광명소 인 것 같습니다.

(10)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싱가포르로 이동하여 첫 방문지가 더 플러튼 헤리티지이다.

플러튼 지역은 역사적 유산과 현대의 세련된 시설 및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플러튼 헤리티지’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등지고 머라이언 석상을 찾아 정면으로 바라보면 머라이언 석상 좌측 방향으로 순서대로 플러튼 헤리티지 관광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상징인 머라이언상은 8.6m의 거대한 크기로 사자의 머리와 물고기의 몸체를 가지고 있으며, 머라이언은 바다를 뜻하는 ‘Mer’와 산스크리트어로 ‘Singa’로 해석되는 ‘Lion’이 합쳐진 이름이다.

과거에는 세관 사무소였던 등대 관측소처럼 보이는 작은 타워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현재는 식당가로 변모하였으며, 특히, 3층에 있는 ‘긴키 루프탑’ 바가 유명하다.

더 플러튼 호텔은 1928년에 세워진 건축물로 과거에는 우체국, 이자 수출입 사무소, 상공회의소 등 각종 관공서로 사용되었던 곳이며, 현재는 최고급 호텔로 애프터눈 티가 유명하다.

과거 선박들의 물 공급처로서 오래된 보트하우스를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매장인 플러튼 워터보트 하우스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곡선의 미가 돋보이는 건물이며, 현재 싱가포르 스타벅스 100호점이 입점해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주의에 밀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많이 파괴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역사적인 건물이 거의 없는 것이 아쉽다.

(11)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더 플러튼 헤리티지는 더 플러튼 호텔, 플러튼 베이 호텔과 다이닝, 쇼핑 스폿으로 구성된 복합문화 공간이다. 플러튼 지역은 역사적 유산과 현대의 세련된 시설 및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플러튼 헤리티지’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마주보고 머라이언 석상과 좌측 뒤편 싱가포르강 수변을 따라 플러튼 헤리티지 관광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 초대 총독이었던 스탠퍼드 래플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래플스 호텔’은 최고(最古)로 오래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소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할 수 있다. 병원으로 사용되던 곳을 호텔로 개조를 하였다. 1928년 우체국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더 플러튼 호텔’은 2001년 400여개의 럭셔리 룸을 가진 호텔로 변신했으며, 또한 19세기에 싱가포르 리버를 따라 들어오는 배를 검열하던 세관 건물은 커스텀스 하우스(Customs House)로 개조 되었으며, 과거에는 세관 사무소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작은 등대 모양의 타워를 지금도 그대로 보존하여 식당가들이 들어 서 있으며, 전망대 같은 루프탑 바가 유명하다. 더 플러튼 워터보트 하우스 등 다이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뒤편에 금융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높은 고층빌딩숲과 어우러져 신·구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과거 식민지 시대의 건물들을 잘 보존하고 현대의 호텔과 병원 등으로 재생하여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지역이다.

싱가포르 리버를 따라 형성된 과거의 식민지 시대의 병원과 우체국, 세관 등의 건물들이 여러 형태의 호텔과 박물관과 식당, 투프탑 바 등으로 개조되었고 초고층 건물 숲으로 이루어진 금융복합단지와 어울려 신구간의 조화를 이루고 싱가포르 리버의 주변경관과 어울려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문화관광 자원이 조성되고, 강을 따라 주변에 형성된 수많은 상업시설과 어울려 싱가포르 관광수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때 무한한 경외감마저 든다.

우리 구도 미미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역사문화를 지금이라도 구에서 매입하고 보존계획을 세워, 금정산과 백양산, 그리고 낙동강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 개발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각 계 각 층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12)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싱가포르의 상징 ‘머라이언 석상’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한국의 쌍용건설에서 건축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도 정면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세관으로 쓰였다고 지금은 식당으로 쓰이는 등대도 있고, 1928년에 세워져서 우체국, 상공회의소 등 각종 관공서로 사용됐던 더 플러튼 호텔, 과거

선박들의 물 공급처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플러튼 워터보드 하우스 등이 있다. 싱가포르의 가장 중심이라 할 수 있고, 관광객은 이 곳을 보러 싱가포르에 오기도 한다. 북구에서 금빛노을브릿지 등 구포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한창 준비 중에 있다. 건물만, 다리만 짓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볼거리, 즐길거리 등이 조화롭게 있어야만 관광객들 사람들이 봄비는 것 아니겠는가?

구포역 인근에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 있다. 바로 우리은행(1912년 9월 21일 문을 열고, 1980년 현재 위치로 이전).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소식들도 잘 접목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 속에 개발과 현대화를 입힌다면 관광객 유입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도 우리 지역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13) 기획총무위원회 손분연의원

해양도시에 걸맞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머라인언 석상이 많은 관광객의 호평을 자아내고 있다.

우체국, 세관등 주요기관이 들어섰던 역사적인 건물들이 호텔과, 다이닝, 쇼 핑센터로 변신했다는 것이 위대하게 보인다.

(14)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동남아 무역함으로 비상하던 싱가포르의 유서 깊은 장소를 여러 고급 호텔과 다양한 레스토랑을 집약적으로 유치시키면서 싱가포르만의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역사적인 장소에 상업 시설을 적절히 이와 같이 배치한다면, 우수한 관광지로 거듭 날 것이다. 우리 구도 옛 감동진 나루터 자리에 상업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고 스토리를 입혀 관광객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구포 헤리티지 조성을 위한 큰 그림 그릴 때

○ 헤리티지(Heritage)는 자연, 사회, 문화 등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인류의 유산(遺産)이라는 뜻이다. 구포는 우리 구의 역사가 간직된 곳이므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면, 훌륭한 역사문화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싱가포르의 더 플러튼 헤리티지는 과거 부두와 세관 등이 있었던 곳인데, 이 지역의 역사적 유산과 현대의 세련된 시설이 잘 조화되어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우리 지역의 감동진 나루터, 구포시장, 만세거리, 구포역이라는 역사적 유산과 현대의 세련된 시설이 될 금빛노을브릿지와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등을 잘 조화시켜 스토리텔링을 만들게 되면 우리도 구포 헤리티지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4. 싱가포르 URA 시티 갤러리

가. 방문지 개요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국(URA, Urban Regeneration Authority)은 싱가포르의 중장기적인 도시의 비전(vision)을 이끌어내고 도시계획방향을 구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직이다.

특히 도시재개발국(URA)에서는 상·하위 도시계획들을 직접 수립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심지의 개발과 도시문화유산의 보존을 함께 고려하여 가치있는 도시공간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전시·출판·교육 등을 통해 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일반인의 공감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실효성의 확보는 도시의 계획·관리·개발을 전문성을 담보한 공공의 기관에서 도시의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도시를 계획-개발-보존-관리-홍보-교육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가능하다.

국내의 도시들에서 다양한 도시계획 간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 및 관리에 관한 실무 전문가의 부족,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담조직의 부재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공의 차원에서 도시계획업무에 관한 전문 지원 및 도시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이러한 점에서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국(URA)의 역할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①잭슨플랜(The Jackson Plan): 도시 내에 말레이인, 중국인, 인디언 그리고 유럽인 등 주요 인종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상업과 행정구역을 특징에 따라 구획하였다. 오늘날 캄풍그람(Kampong Glam), 차이나타운(Chinatown), 리틀인디아(Little India) 등으로 알려진 지역으로 각각 말레이 중국, 그리고 인디언들의 성격을 잘 간직하고 있다.

②1958년 도시계획: 점차 싱가포르가 개발되면서 인구증가, 교통 혼잡, 빈약한

위생상태 그리고 과밀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주택과 실업문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으며 이 문제는 각각 HDB(주택개발위원회, Housing & Development Board, 1960년 설립)와 EDB(경제개발위원회, Economic Development Board)에서 담당하였다. 특히 제조업 분야와 금융부분의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③1971년 컨셉 플랜(최초의 컨셉 플랜): 신생국가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시설과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센트럴 수변지역 주변의 고밀도 위성도시의 계획을 가시화하였다. 위성 도시는 고속도로와 서로 연결되게 계획되었으며 이 안에서 Mass Rapid Transit System(MRT, 대량고속전철)이 계획되었다.
- ④1991년 컨셉 플랜: 경제발전과 양질의 삶에 중점을 두었다. 10년 동안 MRT네트워크는 연장되었고, 아주 폭넓고 다양한 종류의 주택들이 공급되었으며 새로운 지역 중심지와 비즈니스파크가 개발되었다. 그리고 더 많은 Re Creation 지역과 더 많은 도시공원과 연결녹지를 조성했다.
- ⑤2001년 컨셉 플랜 :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도시, 편리한 주택의 공급, 레크리에이션 시설 선택의 다양성, 상업의 유연성 조장, 국제경제에 발맞춤, 전철노선의 연장과 문화적 정체성등이 계획되었다.
- ⑥2003년 마스터 플랜(가장 최근의 마스터플랜): 양질의 삶, 상업환경의 개선,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체성을 지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계획은 특히 싱가포르 전역에 걸쳐 공원과 수변의 계획, 정체성 계획에 역점을 두었다.



싱가포르 URA 시티 갤러리



싱가포르 URA 시티 갤러리의 미니어처(miniature)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의장 정기수의원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는 도시개발 역사와 발전 계획, 그리고 미래의 도시를 조망하는 도시 전시관이다. 이런 시설이 북구에도 조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전시관을 통해 우리 지역의 발전상을 이해하고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어 구정에 관심을 갖게 되며, 향후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사항

에 대해 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도시의 흥망성쇠와 시행착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벤치마킹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의장 김동선의원

URA 전시관에는 싱가포르 도심주변의 모습들을 그대로 축소해 놓았다. URA전시관에서는 싱가포르가 어떤 형태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싱가포르의 도시를 재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 도시재개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1층과 2층에서 머라이언 공원 주변을 비롯해서 도심의 중요 시설들을 챙겨 볼 수 있었다.

좋은 교육관이고 홍보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의원

싱가포르를 과거와 현재를 만날 수 있었던 URA 시티갤러리는 볼거리가 매우 많은 장소였다. 싱가포르 전체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건축모형도 인상적이었고, 2030년 싱가포르의 발전 계획을 보여주는 2030전시회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싱가פור는 지속 가능하며,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목표로 2030 장기플랜을 계획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30년, 69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인구가 좁은 도시 안에서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기반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대중교통 시스템 확장, 거주지와 가까운 산업단지 조성, 공원개발 및 접근성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계획안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공원개발 및 연결로 건설 분야였는데, 싱가포르 여러 지역에 조성된 공원 산책로도 현재 150km 수준에서 2020년까지 360km로 확장하고, 85%의 가구가 공원에서 400m 안에 거주하도록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북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이라 녹지는 많은 편이지만 접근이 용이한 공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북구의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싱가포르와 같이 녹지공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URA는 싱가포르의 중장기적인 도시비전을 이끌어내고 도시계획방향을 구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추진하는 국가차원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직이다. 상·하위 도시계획 등을 직접 수립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심지의 개발과 도시문화유산의 보존을 함께 고려하여 가치 있는 도시 공간정보를 수집,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전시·출판·교육 등을 통하여 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일반인의 공감대를 유도하고 있다.

국내의 도시들에서도 다양한 도시계획 간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 및 관리에 관한 실무 전문가의 부족,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전담조직의 부재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공의 차원에서 도시계획 업무에 관한 전문 지원 및 도시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이러한 점에서 싱가포르 URA의 역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의원

URA는 싱가포르의 도심을 재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이다.

1층과 2층의 전시관에는 싱가포르의 중심부 건물을 미니어처로 축소해 놓았어요. 그래서 한눈에 싱가포르 도심이 어떤 모습인지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교육관이면서 도시재생 홍보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도심개발을 이해하기 쉽도록 각종 자료들을 많이 전시해 두고 있어서 도시재생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쉬웠다.

싱가포르 도심개발 포인트는 과거의 건물도 허물지 않고 새로운 건물과 함께 조화스럽게 어울리게 하는 도심개발이 포인트라고 한다.

우리 북구의 도시계획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6)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싱가포르 URA의 전시관을 보니 도심주변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 해놓고 도심개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모형도로 설명을 들었다. 도심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도시의 비전을 계획하고 방향을 구상하며 새로운 실천 방안을 추진하는 국가 차원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조직 URA의 역할이 싱가포르의 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티갤러리 바깥쪽 유희공간의 벤치에 반했다.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한 미술 작품처럼 보이는 의자에 반해 이리 저리 앉아 보기도 하고 사진으로 모두 남겨왔다. 우리 북구에도 이런 예술적인 의자를 설치해보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자리를 옮겼다.

(7)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의원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다민족국가인 싱가포르, 땅소유주가 국가인 싱가포르. 작은 면적의 나라에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다보니, 국가차원의 도시계획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있다.

아파트 분양을 해도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비율별로 분양을 해 줄 정도로 체계적이다.

아름다운 도시국가를 유지하기위해 도시공원과 녹지를 마스터플랜으로...

(8)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URA 시티 갤러리를 방문하였다. 싱가포르의 중장기적인 도시의 비전, 도시계획방향을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추진 등, 국가 차원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직으로 상·하위 도시계획들을 직접 수립하여, 도심지의 개발과 도시문화유산의 보존을 함께 고려하여 가치 있는 도시공간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 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9) 주민도시위원회 강광진의의원

그 다음 방문지로 싱가포르도시 형성 과정을 미니어처화 해놓은 곳인 URA 시티갤러리를 방문하였다. 후미진 작은 마을이 50년 만에 세계적인 수준의 메트로폴리스로 다시 태어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싱가포르가 바로 그런 곳으로, 이제는 고층 빌딩과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들어서 싱가포르만의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는 3층에 걸쳐 10개가 넘는 테마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50개 이상의 시청각 전시 및 쌍방향 전시를 통해 이처럼 놀라운 변신에 성공하기까지 싱가포르의 역경과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빛과 소리를 통해 도심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대한 건축물 모델이 유명합니다. 또한 해가 뜨고 지기까지 싱가포르의 일상을 묘사하며 몰입도 높은 경험을 제공하는 270도 파노라마 쇼도 유명합니다. 기타 쌍방향 활동을 통해 싱가포르의 도시 계획과 보존 노력에 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주변은 매립지로 50년 전에 바다였습니다. 매립에 필요한 모래, 자갈은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주변국에서 가져왔다. 현재 싱가포르 정책은 도심에 인구 집중으로 동서남북 인구 분산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거공간 주변에 병원, 학교, 쇼핑몰을 만들어 굳이 도심지에 가지 않고도 편리한 교육, 문화, 쇼핑 등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 교통정책은 자동차가 없이 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하철역사가 180여개가 있으며 전 국민 80%가 지하철 역세권에서 살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다음으로 URA 시티갤러리를 방문하였다. URA 시티갤러리는 싱가포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모형을 축소시켜 놓아 전시되어 있는 곳 이다.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URA, Urban Regeneration Authority)은 싱가포르의 중장기적인 도시의 비전을 이끌어내고 도시계획방향을 구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직이다.

특히, 도시재개발국에서는 상·하위 도시계획들을 직접 수립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심지의 개발과 도시문화유산의 보존을 함께 고려하여 가치 있는 도시공간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전시·출판·교육 등을 통해 도시의 발

전방향에 대한 일반인의 공감대를 유도하고 있다.

URA 시티갤러리는 싱가포르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모습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모형을 전시해 놓아 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일반인의 공감대를 얻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투명성의 확보는 전문성을 담보한 공공의 기관에서 도시의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도시를 계획-개발-보존-관리-홍보-교육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에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담보한 공공 기관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방안을 수립하여 일반인들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URA)의 역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1)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싱가포르는 1819년 이전에는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작은 섬에 불과했으나, 2차 대전까지 영국의 식민지로, 또한 1942~1945년 기간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1963년 말레이시아와 합병을 거쳐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나라로 현재는 국민소득 5만 불이 넘는 세계14위의 부강한 나라로 금융과 물류의 허브국가로 클린시티, 그린시티, 화인시티를 표방하는 도시국가이다.

URA(Urban Regeneration Authority)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은 싱가포르의 중장기적인 도시의 비전을 이끌어내고 도시계획방향을 구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추진하는 국가차원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원조직이다.

싱가포르는 동쪽으로 창 의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물류지구와 마리나 베이와 래플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의 금융지구, 중앙싱가포르지구와 비산 뉴타운 중심의 새로운 신도시 개발지역 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도시재개발국(URA)에서는 상·하위 도시계획들을 수립하여 각 계획 간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개발과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환경유산의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관리 함으로서 도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정립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오늘날의 도시재개발은 수십년을 내다보는 도시개발 종합계획(Master Plan)과 융통성 있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화이트 존(White Zone) 설정, 도시계획을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Business Mind)로 접근하는 정부의 3박자가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구의 2030 마스터플랜 수립 시에도 4~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50~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각 계획 간의 연결성 확보도 중요할 것 같다.

권역별 주거개념 재확보와 신·구도심 간의 조화, 전통재래시장 특화성 확보와 젊음의 거리간의 연결성과 조화성 있는 개발, 낙동강과 금정산, 백양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권역 개발, 근대역사 문화거리 조성 등의 계획들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창의적인 도심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2)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싱가포르의 중장기적인 도시비전을 이끌어내고 도시계획방향을 구상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곳이다. 이곳을 방문하면 싱가포르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모두 다 볼 수가 있다. 북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등 도시계획의 통합적인 관리와 계획을 싱가포르만큼 잘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 물론 서울면적보다 조금 더 큰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정말 철저한 계획에 의한 개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더 볼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나라라 간척사업으로 국토면적을 점점 확장해왔는데 이것마저도 싱가포르 사람들의 지혜와 철저한 계획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북구뿐만 아니라 부산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의 차원에서 도시계획 업무에 관한 전문 지원 및 도시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전체적인 계획 그리고 시대별 주요계획 등 우리 북구도 5년, 10년 기준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장기플랜 속에 실행 가능한 사업이 몇 가지나 있었을까? 또 얼마나 실행이 되었는지 되짚어볼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와 같이 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일들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목표를 이루어 내어간다면 북구가 지금의 정체기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13) 기획총무위원회 손분연의원

URA는 도시재개발 부서로서, 주포인트는 구의 보존과 신의 조화, 동서조화를 이루며 국가차원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정부정책이 기업마인드 정책으로 수익창출효과를 내고 있다. 전 국민의 85%가 자가 소유로, 주택과 민영과 정부아파트로 구분된다. 그린시티 도시에 걸맞게 환경부 직원이 개인소유의 주택과 아파트 주변관리 단속으로 오물서식지등 모기, 해충 서식을 막고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린시티 도시로 정원속의 국가로 가꾸어져 있으며, 공원의자도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침대식 스타일 의자를 배치해 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더운나라 싱가포르는 건물의 입구쪽을 복도식으로 기둥과 지붕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지어서 비와 더위를 막아주는 탁월한 방식 시스템 건물이 많다.

(14)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싱가포르 URA 시티 갤러리는 싱가포르 국가 발전 단계를 보여주고 또한 역사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이는 곳이다. 역사적인 장소만이 관광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발전 단계를 보여주면서 싱가포르만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다민족 편의를 구성하는 모습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차이나타운처럼 먹거리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50년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도시화로 발전되면서 그 안에서 시민들의 생활권을 적합하게 이루기 위한 노력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과 금융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지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인구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컨셉 플랜을 내 놓았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다양한 현대 건축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 진다. 우리 지역도 단편적인 건축물이 아닌 지역특색, 특성을 살린다면 자연적으로 특색 있는 관광지가 급부상 할 것이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필요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 URA(Urban Regeneration Authority)는 싱가포르의 중·장기적인 도시의 비전을 이끌어내고 도시계획 방향을 구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추진하는 국가차원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원조직이다.
- 싱가포르의 경우 과거의 건물도 허물지 않고 새로운 건물과 함께 조화롭게 어울리는 도시개발을 하고 있으며, 새로 짓는 건물은 도시경관에 맞게 모두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우리 구도 복구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복구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도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과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한 사업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신청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 경제기반형: 20~50만 m^2 내외, 국비 250억 원 지원, 사업기간 6년
- 중심시가지형: 20만 m^2 내외, 국비 150억원 지원, 사업기간 5년
-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5~15만 m^2 , 국비 50~100억 원 지원, 사업기간 3~4년

5. 싱가포르 비산뉴타운 · 파크

가. 방문지 개요

싱가포르의 도시건설 철학과 건축미학을 대표하고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비산은 주변 언덕 어느 곳에서 내려다봐도 아름다운 도시다. 비산은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는 싱가포르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비산은 "공동묘지위에 건설된 신도시"이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싱가포르 도심외곽의 거대한 공동묘지였던 곳이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을 갖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 것이다. 비산은 743ha(225만평)로 여의도의 2배를 약간 넘는 규모로 개발돼 인구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3만3,650가구가 지어져 있다. 도시국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철저한 주거중심지로 조성됐다.

비산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은 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싱가포르정부는 당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내집 마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 주택공급확대방안에 고심하고 있었다. 이에 착안한 것이 주거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춘 텍선텍공동묘지를 없애고 그곳에 신도시를 만들자는 방안이었다. 좁은 국토, 과밀한 인구로 특징지어지는 도시국가가 선택할 수 있었던 "싱가포르적 발상"이었던 셈이다. 계획이 발표되자 당장 격렬한 반대여론이 빗발 쳤다. 국민의 75%가량을 차지하고 있던 화교의 정서는 어떻게 조상을 모셔놓은 묘지를 헐고 집을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비산 파크와 비산 뉴타운 전경



비산 공원 내에 있는 애견놀이터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주택수요는 결국 다른 대안을 없게 만들었다. 당국은 국민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좁은 땅밖에 없는 싱가포르의 현실을 이해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러기를 1년여, 당국과 묘지주인들은 묘지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타협을 이뤄 냈다. 성숙된 싱가포르국민의식을 바탕으로 비산뉴타운 개발의 첫 삽질이 시작됐다.

비산은 주거용지 304ha, 상업용지 25ha, 경공업 및 비공해업종용지 48ha, 공공용지 78ha, 휴식공간용지 87ha, 도로 등 인프라용지 150ha 등으로 구성됐다.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가 46% 도로 및 휴식공간이 32%에 달하는 점을 봐도 비산은 철저한 주거중심지역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거지의 밀도배치는 쾌적한 주거환경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곳은 5,100가구의 저밀도지구, 4,500가구의 중밀도지구, 2만4,050가구의 고밀도지구로 이뤄져있다. 저밀도지구는 2~4층 규모의 단독주택만 짓도록 하고 중밀도지구는 10층짜리의 아파트, 고밀도지구는 20층, 30층짜리와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도록 했다. 주택보급 확대에 개발의 초점이 맞춰져



비산 뉴타운 전경



홍수경보계

있던 만큼 고밀도지구에 많은 비중이 두어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저밀도지구를 중밀도지구와 고밀도지구 사이사이에 적절히 배치하는 묘를 살림으로써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화려하면서도 포근한 감을 주는 아파트 색깔도 특별히배려한 부분이다. 상자와 같은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 아파트 꼭대기에 얹은 단독주택형 지붕은 자주색, 고동색, 하늘색 등으로 칠해 도시전체가 포근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아파트외벽도 옅은 황토색과 짙은 고동색을 바둑판처럼 입혀 고급스러움을 살렸다. 상업지역은 중심상가 단지별 상가 외곽상가 등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도시 곳곳에 배치됨으로써 퇴근 때나 주말에 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돼있다. "주민편의 제일주의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특히 중심상가지역 내에 있는 복합상업역사 내로 도시지하철역을 넣어 쇼핑이 더욱 용이하도록 했다. 거미줄 같은 교통망 역시 비산의 자랑거리다.남북으로 매리몬트로드 비산로드 어퍼툼슨로드가 주도로로 뻗어있으며 비산로드 밑으로는 대중지하철(MRT)이 운영돼 유동인구의 분산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이 3개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각 아파트 단지마다 2~3차선의 도

로가 실핏줄처럼 건설돼 있다. 이들 교통망을 통해 비산주민들은 싱가포르의 업무중심지역인 중앙지구 주룽 티옹바루 일대까지 30분 내에 출퇴근할 수 있다. 공업지역을 도시 한복판에 둔 것도 이채롭다. 경공업과 비공해 업종으로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신명단지, 잘란페림핀 단지는 주거지로 착각할 정도로 깔끔하고 아름답다. 또한 도시 곳곳에 수영장 테니스장 등 각종 레저시설을 설치, 언제 어느 때건 주민들이 자유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싱가포르 주택청 비산지구 양국유치장은 "공동묘지를 신도시로 개발했지만 이제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비산"이라고 말했다. 지난 92년 개발이 완료된 비산지구는 현재 인구 9만 명이 사는 세계적인 신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북적이는 주요 지역을 벗어나 하트랜드로 들어가 본다. 싱가포르 중부 하트랜드에 위치한 비산-양 모키오 파크에서 하루를 시작해보자.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렌트해 이 62헥타르의 공원을 돌아본다. 공원을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3킬로미터 강의 양편으로 풀이 난 독이 있으므로 피크닉 장소도 많다.



비산 파크 시찰 후 기념촬영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의장 정기수의원

비산타운을 시찰 후 우리 구는 이 정도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할 부지가 없어 매칭이 되지 않지만, 공동묘지 위에 건설된 신도시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미 화명 신도시가 개발되어 뉴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관내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예전에 덕천동 산지에 있는 공동묘지를 없애고 수목장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해당 부지가 개발이 가능하다면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는 곳이라 지역에 활기를 넣어 줄 수 있는 컨벤션 시설이라든지 문화회관 등을 유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외에 비산파크에서 눈여겨 본 것이 홍수경보계이다. 물이 일정이상 차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낙동강 화명생태공원도 가끔씩 홍수가 나면 저지대에 물이 상습적으로 차오르는 지역에 이런 경보계와 차량차단기를 연계시켜 홍수 발생 시 자동으로 도로가 차단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2) 부의장 김동선의원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신도시주거지역인 비산 뉴타운.

예전에는 공동묘지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급 주거지로 재탄생되었다는 것이 놀랍다. 특히 국토면적이 좁은 싱가포르에서 이처럼 넓은 공원을 조성해 두고 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공동묘지를 신주거지역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어려울 것이다. 개인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비산 뉴타운이 말해 준다. 우리 북구의 화명생태공원도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비산 파크와 같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의원

비산뉴타운의 파크는 도심 속 녹지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애완동물과 매우 친화적이라는 점 이었다.

넓은 면적에 애완동물들을 위해 조성된 애완동물전용 파크는 애완동물들이

간단한 훈련을 할 수도 있고, 쉽게 취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동물 애호가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 북구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닐까 생각되는 장소였다.

(4)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싱가포르 비산뉴타운은 싱가포르의 도시건설 철학과 건축미학을 대표하고 있는 곳으로, 주변 언덕 어느 곳에서 내려다봐도 아름다운 도시다.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는 싱가포르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비산은 "공동묘지위에 건설된 신도시"이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싱가포르 도심외곽의 거대한 공동묘지였던 곳이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을 갖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 것이다.

비산은 743ha(225만평)로 여의도의 2배를 약간 넘는 규모로 개발돼 아파트, 단독주택 등 인구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3만3,650가구가 지어져 있다. 도시국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철저한 주거중심지로 조성된 이곳은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가 46%, 도로 및 휴식공간이 32%에 달한다.

주거지의 밀도배치는 쾌적한 주거환경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도시전체가 포근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 상업지역은 중심상가, 단지별 상가, 외곽상가 등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도시 곳곳에 배치됨으로써 퇴근 때나 주말에 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돼있다. "주민편의 제일주의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업무중심지역인 중앙지구 주룽 티옹바루 일대까지 30분 내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한 거미줄 같은 교통망 역시 비산의 자랑거리이다. 또 도시 곳곳에 수영장 테니스장 등 각종 레저시설을 설치, 언제 어느 때건 주민들이 자유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지난 92년 개발이 완료된 비산지구는 현재 인구 9만명이 사는 세계적인 신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우리구의 화명동 일대도 신도시로 개발된 곳인데, 아파트 위주로 주거지가 개발되어 휴식공간이 부족하나, 다행스럽게도 화명생태공원이 있어 위안이 된다. 그러나 아직 쉽게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 앞으로 주민편의위주로 꾸준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중학의원

싱가포르의 비싼 뉴타운지역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신도시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공동묘지였다고 했는데, 중국계 싱가포르 사람들 77퍼센트가 공동묘지를 옮기고 거기에 주거지역을 세운다는 계획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1년여 넘게 거기에 묘지 주인들과 협상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주거지역이 만들어졌는데, 1984년 시작에서 1992년도에 신도시가 완성되었다고 한다. 그후 싱가포르의 주거의 중심지역으로서 탈바꿈하게 되었다.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싱가포르처럼 개인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성이 없다면.

(6)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신도시 재개발 계획은 82년 당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내집 마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조성한 신도시이다. 조상들의 묘지위에 집을 짓는다고 주민들의 빗발치는 항의를 대화로 현실을 이해시켜 턱선텁 공동묘지를 없애고 주민편의 제일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싱가포르의 중심지역으로 미래를 내다본 계획된 설계로 거미줄 같은 교통망을 만들고 주거, 상업, 공업, 공공, 도로, 인프라용지, 휴식공간 등 계산된 혁신적인 방법으로 부족한 주거환경을 만들었고 인구 10만 명이 살 수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 3만 3,650가구를 지었다.

싱가포르의 중장기적 도시의 비전을 이끌어내고 도시계획방향을 구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추진하는 국가차원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직인 능력있는 도시재개발국이 있기에 성공이 가능했을 것이다.

(7)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의원

공동묘지를 없애고 개발한 신도심. 집에서 문만 열고 나오면 공원이다.

편안하게 반려동물과 부담없이 자리 깔고 앉아 즐기고 있다.

꾸밈없이 잔디와 나무 계곡만으로 구성된 공원이 편안하다.

우리나라같은 체육시설을 곳곳에 들여왔을 것 같은데...

(8)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비산은 주거용지 304ha, 상업용지 25ha, 경공업 및 비공해 업종용지 48ha, 공공용지 78ha, 휴식공간용지 87ha, 도로 등 인프라용지 150ha등으로 구성됐다. 토지이용 계획상 주거용지가 46% 도로 및 휴식공간이 32%에 달하는 점을 보다 비산은 철저한 주거중심지역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거지의 밀도배치는 쾌적한 주거 환경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곳은 5,10가구의 저밀도 지구, 4,500가구의 중밀도지구, 2만 4,050가구의 고밀도 지구로 이뤄져 있다. 저밀도 지구는 2~4층 규모의 단독주택만 짓도록 하고 중밀도 지구는 10층짜리의 아파트, 고밀도 지구는 20층, 30층짜리와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저밀도 지구를 중밀도 지구와 고밀도 지구 사이사이에 적절히 배치하는 묘를 살림으로써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화려하면서도 포근한 감을 주는 아파트 색깔도 특별히 배려한 부분이다. 상자색 같은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 아파트 꼭대기에 얇은 단독 주택형 지붕은 자주색 고동색 하늘색 등을 칠해 도시 전체가 포근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아파트 외벽도 옅은 황토색과 짙은 고동색을 바둑판처럼 입혀 고급스러움을 살렸다.

상업지역은 중심상가 단지별 상가 외곽상가 등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도시 곳곳에 배치됨으로써 퇴근 때나 주말에 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있다. “주민편의 제일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특히 중심상가 지역 내에 있는 복합 상업 역사대로 도시 지하철역을 넣어 쇼핑이 더욱 용이하도록 했다. 거미줄 같은 교통망 역시 비산의 자랑거리이다.

우리 북구도 가장 쾌적한 환경을 갖춘 주거단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으로 살기 좋은 북구로 만들어 나가야겠다.

(9) 주민도시위원회 강광진의의원

싱가포르(Singapore)의 최상위 계획인 <Concept plan 2003>에서 제시하는 비전(Vision)은 "Work, Live, Play"다. 그 만큼 주거는 싱가포르 정부가 중요시 하는 정책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다민족 국가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 하면 국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잘못하면 민족 간의 분파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주거정책에 대해 대략 얘기하면 일단 모든 국민은 HDA(주택개발청)가 공급하는 주거를 두 번 분양 받을 수 있고 두 번 모두 매매할 경우 민간업자가 지은 공동주택을 사야 하는데 이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한다. 일단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비중에서 HDA가 공급하는 양이 85%로 민간 주택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결국 땅으로 귀결된다.

HDA(주택개발청)가 최근에 공급한 비산 뉴타운(Bishan New town)은 싱가포르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과 택지개발방향을 둘러볼 수 있는 사례다. 비산 뉴타운의 총 면적은 6,900,000m²로 이 중 주거지역이 1,720,000m²로 총 가구수는 30,650가구가 지어져 있다. 총 인구수는 67,800명이다. 비산 뉴타운이 개발된 지역은 그 전에 공동묘지였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도 공동묘지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비산 뉴타운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접근성으로 인해 현재도 평균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공공이 제공한 주거답게 건축물의 구조는 정직하고 베란다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넓다.

비산 뉴타운의 주거시설은 대부분 HDA(주택개발청)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주로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부 주거는 3개의 방이나 5개의 방을 가지고 있다. 작은 크기는 120m²~140m²이고 이보다 더 큰 규모로 153m²~158m² 크기의 주거도 있다. 이 정도 규모는 HDA가 공급하는 집합주택 중 큰 편이라고 한다.

주거단지는 시원시원하게 구성되어 있다. 주거단지 내를 지나는 도로의 구성도 마찬가지다. 주거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구성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런 구성의 필요성은 주거용지에 과잉 계획되는 상업시설로 인해 아니면 대형 할인점 입점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형되고 침체되는 우리나라의 상업용지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용지와 가까운 지하철역 주변에는 거대한 상업시설이 있고 점적인 할인점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시설의 1층부에 배치돼 있다. 상업시설이 선적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이다.

비산파크는 면적은 62헥타르에 이르고 조깅,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dog run에서는 개들이 신나게 뛰어 놀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하천에는 홍수위시 알람장치가 있어 비가 많이 와서 하천수량이 불어나서 위험수위에 이르면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구조장치가 상시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원 면적에 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화장실이 없어 맥도날드가게에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10)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1982년에 시작하여 거의 10년에 걸쳐서 조성한 비산 뉴타운(신도시 주거단지)은 공동묘지위에 건설된 신도시이다. 무덤이었던 지역을 싱가포르의 중심 주거공간으로 활용된 대표적인 신도시 주거지역이다.

비산 뉴타운은 전체가 225만평으로 여의도의 2배를 넘으며, 인구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독주택 등 3만3,650가구가 건설되었다.

이중 16만평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는데, 이곳이 우리가 탐방한 신도시 한 복판에 있는 비산 파크 이다. 신도시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으니, 누구나 손쉽게 나와서 산책을 하거나, 친구나 가족단위로 놀이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힐링하는 공간으로 적합한 것 같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넓은 공원 내에 맥도널드가게의 화장실 및 관리하는 직원의 화장실은 있지만 공중화장실이 없어 우리와 같은 탐방객이 찾기에는 불편한 점이 다소 있는 곳이다.

당시 싱가포르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내 집 마련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여 주택공급확대 방안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고심 끝에 텍선뎡 공동묘지를 없애고 그곳에 신도시를 만들자는 방안을 착안하였다. 이는 좁은 국토와 과밀한 인구로 측정지어지는 도시국가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안이었고 싱가포르적 발상이었던 셈이다. 계획이 발표되자 유교를 중시하는 국민의 75%가량을 차지하는 화교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좁은 땅밖에 없는 싱가포르의 현실을 이해시키는데, 혼신을 쏟았으며, 그 결과 1년여 만에 묘지이전에 다른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타협을 이뤄냈다. 성숙된 싱가포르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비산 뉴타운 개발의 첫 삽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1)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비산 뉴타운은 싱가포르의 도시건설 철학과 건축미학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곳이다. 비산 뉴타운은 싱가포르의 중앙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신주거지로서 원래 이곳은 70년대만 하더라도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던 지역을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을 갖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 곳이다. 비산은 743ha(225만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2배를 넘는 규모로 개발되어 인구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와 단독주택등 약 3만 3천 6백여 가구가 지어져 있다. 도시국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철저한 주거중심지로 조성됐다고 한다.

1980년대 초 싱가포르 정부는 당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내집 마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고심하고 있었다. 이에 착안한 것이 주거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택선텍 공동묘지를 없애고 그곳에 신도시를 만드는 방안이었다. 좁은 국토와 과밀 인구로 특징지어지는 싱가포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었다. 계획이 발표되자 처음엔 격렬한 반대여론이 빚발쳤다고 한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주택수요는 결국 다른 대안을 없게 만들었고,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좁은 땅 밖에 없는 싱가포르의 현실을 이해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다. 1년여 간의 싱가포르정부와 묘지 주인들과의 이전에 따른 협상으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타협을 이루어 냈다고 한다. 이는 싱가포르의 성숙된 국민의식이 있었기에 비산 뉴타운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2~4층 규모의 단독주택만 짓도록 저밀도지구와 10층이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중밀도지구, 20~30층과 3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고밀도지구를 나누어 중밀도와 고밀도지구 사이사이에 단독주택 단지인 저밀도지구를 적절히 배치하여 도시전체의 스카이라인이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남북으로 메리몬트로드와 비산로드, 어퍼툼슨로드가 주도로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중지하철(MRT)이 운영돼 유동인구의 분산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인간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산-앙 모 키오 파크를 개발하여, 주민들이 산책과 조깅, 자전거로 숲 생활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민국이나 우리 북구도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때에는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미래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사안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변 환경과의 적절한 조화로 교육과 교통, 문화와 상권이 잘 반영되고 사람과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울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12)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현재의 비산 뉴타운을 보고 이전에 이곳이 공동묘지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싱가포르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비산뉴타운의 모습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도심외곽의 거대한 공동묘지였던 곳이 싱가포르에서 가장 쾌적한 주거단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지 상상이 된다. 싱가포르는 특히나 주택가격이 비싼 곳으로 유명하다. 이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최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고심하고 진행된 사업이다. 특히 중요하는 것은 모든 구역을 주택으로 짓지 않고, 아주 큰 공원을 조성했다. 대부분의 나라나 지역에서는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물을 더 지으려고 애썼을 텐데 장기적인 관점과 계획아래 공원 조성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강아지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애견파크가 별도로 한 공간에 조성이 되어있고, 특히 정부가 조성해놓은 허브가든이 있었는데 이곳은 정부가 조성하고 필요한 개인 누구나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켜 둔 것이 특징이었다. 국민의식이 투철해서 그런지 아니면 관리를 철저히 해 와서 그랬는지 아주 깨끗했다. 누구라도 필요하면 이곳에 머물고 개인에게 필요한 허브 식물 등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하니 인근 주민 또는 국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되는 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북구에는 화명생태공원이 있다. 관리권이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국토부 등 우리 북구청이 스스로 공원을 가꾸고 만들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어 이 부분이 하루 속히 개선이 되어, 화명생태공원이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 가까이 오고갈 수 있는 시민들의 공원으로 탈바꿈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3) 기획총무위원회 손분연의원

싱가포르의 상징성으로 자랑할 만한 신도시, 주거지, 교통 요충지에 공원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싱가포르 외곽의 거대한 공동묘지를 이전하여 225만평(여의도의 2배)을 주거와 공원(16만평)으로 조성되었다. 공동묘지를 1여년에 걸쳐 국민을 설득해 이뤄낸 것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 평가한다.

공원은 16만평으로 호수와 잔디 거대한 수목으로 더운 나라에 맞게 그늘을 만들어 주고, 호수의 수위조절을 범람위기 전에 자동시스템으로 철저를 기하고 있다.

(14)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싱가포르 섬 한 가운데 있는 비산 뉴타운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을 갖춘 주거단지이다. 70년대 도심외각에 공동묘지였던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우리구도 최적의 입지를 갖춘 곳을 찾아 서울 은평 뉴타운이나 가까운 명지 국제 신도시 등, 북구에 맞는 신도시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비산 뉴타운의 또 다른 매력이 비산파크 였다. 우리구도 낙동강 하구 독 산책로와 연결하고 화명 생태공원 곳곳에 보다 넓은 잔디 광장을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물금 등 가까운 지역에 신도시 개발이 되면 구포역의 활성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도시숲 조성으로 뉴타운에 버금가는 주거환경 개선 필요

- 뉴타운은 기존 대도시의 인구과밀화와 지역적 개발편중과 도시환경의 악화, 산업집중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을 통한 새롭고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말한다. 뉴타운을 통한 새로운 도시계획은 19세기 말 영국의 도시계획가인 에버니저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에서 비롯되는데, 뉴타운은 계획개발로 조성된 도시로서 적정한 거주인구와 자족적인 도시경제권, 시경계에 녹지대를 갖춘 자립도시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 건설도 이런 개념으로 건설되었는데, 일산 신도시의 경우 넓은 녹지에 호수공원이 일품인 계획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 싱가포르의 비싼 뉴타운은 1970년대까지 도심 외곽의 거대한 공동묘지였는데 싱가포르 최고의 주거단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다. 뉴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보상금과 개발비용이 나갔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공원면적을 줄이고 아파트를 더 지으려고 했을 것이다. 특히 싱가포르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은 국가에서 이처럼 넓은 공원을 조성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 싱가포르는 어디에 가더라도 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는 연간 에스프레소 1잔(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여 제거해 준다고 한다. 1ha의 나무숲은 미세먼지 46kg을 흡수하는데, 이는 경유차 27대가 1년에 내뿜는 미세먼지와 동일한 양이다. 이처럼 미세먼지를 흡수한 나무 한그루는 성인 7명이 연간 필요한 산소량(1.8톤)을 방출한다고 한다.
또한 도시숲은 대기열을 흡수하여 여름 한 낮의 평균기온을 낮추는 기능도 한다. 도시숲이 있는 여름 한낮 평균기온은 없는 곳에 비해 3~7도 낮아 사람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플라타너스는 하루 평균 m^2 당 약664kcal의 대기열을 흡수하는데, 이는 하루에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 동안 가동하는 효과와 같다고 한다.

- 우리 구의 화명신도시도 처음 계획할 때, 아파트 주변에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유휴공간에 나무를 많이 심고, 도시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싱가포르 리아무이 치매요양원(공식방문)

가. 방문지 개요

싱가포르 리아무이 치매요양원은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영향력이 큰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 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종, 언어 또는 종교에 관계없이 싱가포르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경제적이고 전문적이며 개인화된 노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5월 31일, 리아무이 요양원(Lee Ah Mooi Old Age Home)은 향상된 치료 및 생산성 향상으로 권위 있는 National Health IT Excellence Awards 2017을 수상했다.

리아무이 요양원은 작년 중반 NHS(Napier Nursing Home Solution)를 시행했다. 이는 중장기 치료를 위해 싱가포르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강화된 요양원 표준을 충족하는 완전 디지털 요양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클라우드와 모빌리티의 이점을 활용하여 현대 기술을 갖춘 요양원 중 하나가 되었다.



리아무이 치매요양원 입구에서 기념촬영



리아무이 치매요양원 운영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의장 정기수의원

리아무이 치매요양원은 우리 구에도 금번에 조성한 행복키움센터와 대조되었다.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치매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한 시설이고 이곳은 요양원으로 노인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 곳이었다. 어려운 사람은 지원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상이하지만 포괄적 지원은 우리나라가 더 완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싱가포르도 고령화가 빠른 국가이고 노인 부양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원칙아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극빈층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 부담을 지움으로써 재정적 건전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2) 부의장 김동선의원

리아무이 치매요양원은 1960년대 초에 설립했다고 한다. 1960년대 초에 요양원이 설립되었을 때는 중국의 삼수이 여성들 5명과 함께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환자가 5~6명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인원수가 110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한다. 여기 인원수는 여자 수용자 55명, 남자수용자 25명이 있고 최연장자가 108세 여자 분이라고 한다. 다음 분이 102세. 평균

나이는 80세, 젊은 여성 한 분이 있는데 40대이고 일종의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정상인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직원이 46명 전부가 외국인(필리핀,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출신)이란다. 수간호사도 있고 전체 요양원에서 관리사 매니저가 있는데 두 사람은 싱가포르사람이란다. 급여는 90만원~150만원 받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여 싱가포르가 과연 선진국인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복지시설은 우리나라가 더 나은 것 같다.

(3)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이 요양원은 인종, 언어 또는 종교에 관계없이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경제적이고 전문적이며 개인화된 노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이다. 싱가포르에서는 현대 기술을 갖춘 요양원 중 하나라고 하나, 설립된 지 오래되고 정부의 지원이 열악한 관계로 우리나라 요양원에 비하면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실망감을 느꼈다.

싱가포르는 일하는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싱가포르에 비하면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복지도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4)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의원

리아무이 치매요양원의 시설은 정부로부터 임대받은 것이라고 한다. 1982년부터 연장해서 내년 만기되는 날인데 정부에서는 연장을 해 주겠다는 답변이 없어서 고민이 많은 모양이다. 옮기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드니까 문제다. 노인을 여기에 맡기려면 가계소득이 1,900불 이하인 가족만 보조를 받고, 1,900불 이상 소득 있는 사람은 정부의 보조를 못 받고 있다. 정부는 75% 보조해주고 15%만 가족이 부담을 한다고 한다. 그나마 3개월 이후에 정부가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운영에 애로가 많은 것 같다.

(5)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개인화된 노인 간호서비스를 제공 110명의 노인이 보호 받도록 허가되어 있고 46명의 직원이 돌보고 있는 개인 요양원이었다. 노인 2명당 직원 1명 정도로 집중 케어 하는 개인 요양원이라고 했다. 현재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인 이유로 직원 모두가 외국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설은 많이 낡고 에어컨도 없는 영세함에 궁금하여 질문을 했는데 에어컨은 여러 가지 병균을 옮기므로 없는 곳을 선호한다는 답을 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 눈으로 보고 느낀 생각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열악하고

수준이 낮은 모습의 환경이었다. 이런 환경을 보고 난후 싱가포르의 복지 예산을 물어봤더니 18%의 작은 예산을 쓰고 있었다. 사회복지부분에서는 분명 우리나라는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의원들과 입을 모으며 그 곳을 나왔다.

(6)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의원

중국 삼수이족이 처음으로 개원을 했다한다. 정부지원이 수월하지 않아 현재는 후손들이 어렵게 유지를 하고 있는 듯. 복지시설이 우리나라 보다는 많이 떨어져 보인다.

3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에 에어컨 시설보다는 자연바람에 선풍기에 의존에 더위를 물리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현실이다.

복지천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실감 한다.

(7)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리아무이 치매요양원은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영향력이 큰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두 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인종, 언어 또는 종교에 관계없이 싱가포르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경제적이고 전문적이며 개인화된 노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리아무이 요양원의 활동을 보면 2017년 5월 리아무이 요양원은 향상된 치료 및 생산성 향상으로 권위 있는 National Health IT Excellence Awards 2017을

수상했다. 리아무이 요양원은 작년 중반 NHS(Napier Nursing Home Solution)를 시행했다. 이는 중장기 치료를 위해 싱가포르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강화된 요양원 표준을 충족하는 완전 디지털 요양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클라우드와 모빌리티의 이점을 활용하여 현대 기술을 갖춘 요양원 중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 북구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으로 개인의 삶을 보장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으로 치매 및 돌봄 사업을 국가가 지원하고 항상 가까이에서 관리 지원함으로써 개인화된 노인 간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8) 주민도시위원회 강광진의원

요양원의 역사는 1960년대 중반 캄푹 총팡(Mampong Chong Pang) 거주지의 문을 연 삼아 여사와 은퇴한 삼수 여성과 전직 Amahs가 황혼의 시기에 그들을 돌봐 줄 수 있도록 훈련된 간호사를 원했던 Madam Lee Ah Mooi가 설립했습니다.

중간층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자격이 없지만 저렴한 비용과 개인화된 노인케어를 우선 순위로 하여 더 비싼 수익 중심 개인 주택을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영향력이 큰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인종, 언어 또는 종교에 관계없이 싱가포르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경제적이고 전문적이며 개인화된 노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960년대는 5~6명 정도 수용 가능했으나 현재는 111명 정도 수용가능합니다. 환자의 거동이나 도움이 필요함에 따라서 1번에서 4번으로 분류하고 환자 수용건물은 A, B, C동이 있으며, A동은 거동가능환자, B동은 남성, 휠체어, 거동불편환자, C동은 여성 휠체어, 거동불편환자를 입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식사는 3회와 간식3회이며, 점심식사는 보통 외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요양원의 임대기간은 2020년말까지이며, 이전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민간요양원이 60개 정도 있으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재 없습니다. 요양원의 한 달 관리비는 25,000불(한화 22,500,000원)이며 인건비와 임대비, 관리비, 경비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방문한 리아무이 요양원은 한국에서 운영하는 일반요양원보다 시설이나 지원서비스 측면에서 많이 낙후되어 있었다. 다음에 싱가포르 요양원을 방문 시에는 좀 더 나은 환경의 요양원을 방문해야 좀 더 배울게 있지 않을까 한다.

(9)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세 번째 공식방문지로 리아무이 치매요양원을 방문하였다.

리아무이 치매요양원은 1960년대 초에 개원하였으며, 개원할 당시에는 환자가 5~6명이었으나, 지금은 남성이 55명, 여성이 55명, 총110명의 환자가 입원하여 있다.

1982년에 이곳으로 이전하였으며, 이곳은 싱가포르 초등학교가 있었던 곳이다. 2020년에 임대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이곳에서 계속 요양원을 운영하고 싶지만, 정부에서는 연장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 향후 어떻게 될지 매우 불안하다고 한다. 이 요양원의 최고 연장자는 108세이고, 평균 연령은 80대이며, 일종에 장애가 있는 40대 여성 한명이 있다고 한다.

입원기준은 카테고리1에서 카테고리4까지 있는데, 카테고리1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요양원에는 한명도 없으며, 카테고리2는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카테고리3는 치매환자이고, 카테고리4는 거동이 아예 불가능하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A동에는 거동이 가능한 사람이 입원해 있고, B동은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남성이 입원해 있으며, C동은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여성이 입원해 있다. 입원비용이 정상인은 월 1,600~1,800불이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는 월 2,300~2,500불이 들어간다고 한다.

가구당 월 소득합계 금액이 1,900불미만의 가정이면서 카테고리3과 카테고리4에 해당하는 환자는 7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가족부담은 25%라고 한다. 리아무이 치매요양원 입원환자의 75%가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다. 또한 가족이 없는 환자는 정부가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여 관리한다고 한다.

건물이 건축 된지 오래 되어서 그런지 침대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80~90년대 양로원의 시설과 비슷하다.

(10)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1960년 초 중국에서 넘어 온 리아무이 여사가 건립하였으며, 산하여수이회 소속 중국인들과 함께 시작하여 젊은 미혼녀들이 막노동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싱가포르 초등학교를 매입, 임대하여 싱가포르 초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여성55명, 남성55명등 고객 수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주어졌다.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적이고 영향력이 큰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립요양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리아무이 치매요양원은 인종, 언어 또는 종교에 관계없이 싱가포르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경제적이고 점진적이며 체계화된 노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5월31일 리아무이 요양원(Lee Ah Mooi Old Age Home)은 향상된 치료 및 생산성 향상으로 권위 있는 National Health IT Excellence Awards 2017을 수상했다.

여성55명과 남성55명의 환자를 수용하여 4개의 카테고리 즉 ①거동가능한 자 ②도움이 필요한 환자-경제적 요보호자, ③치매환자, ④거동불편 움직일 수 없는 환자로 구분하여 3개동의 건물에 수용하고, 하루에 6번의 식사를 나누어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매니저 1명, 수간호사 1명의 싱가포르 출신인사를 두고 그 외 말레이시아 직원을 채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립요양원은 싱가포르에서 60개 정도 운영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와는 사회복지 체계가 사뭇 달라서 비교 평가의 대상은 어려운 것 같으며, 전체 시스템으로 미루어 본다면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은 세계 최정상급의 복지 서비스를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아울러 우리 구는 통합돌봄 복지서비스 시범사업 구로 선정되어 가정에서도 원스톱으로 선진화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다.

(11)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1960년도에 설립되어 그런지 환경이 열악해 보였다. 111명의 환자들이 보호되고 있고, 총 3개 블록으로 환자들을 구분해 두고 있다. 직원 46명중 싱가포르인은 한명도 없고 필리핀,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관리자 2명만 싱가포르 사람이다. 급여가 작아서인지 싱가포르에서는 요양사들이 3D 업종에 속한다고 대표는 설명했다. 정부로부터 임대를 받아 내년에 임기가 만료가 되어 걱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개발논리라면 이 요양원도 언젠가는 터전을 옮겨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느 기준에 의해 정부보조금신청도 가능하고, 무연고자는 별도의 정부시설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환자의 75%가 정부보조를 받고 있으나 정부보조금이 90일 이후에 지급이 되어 요양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도 했다. 우리가 방문한 요양원은 시설이 열악했으나, 싱가포르에 타 요양원의 시설 등이 매우 궁금했다. 모든 요양원이 우리가 방문했던 요양원 수준이라면, 내 부모님은 절대 맡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타 요양시설은 방문을 허락하지 않아 일정을 잡을 수 없었지만, 아쉬운 부분이었다. 가이드의 말을 빌리자고 하면 싱가포르의 경우 퍼주는 복지가 없다고 한다. 일정부분 퍼주기식 복지에 본 의원도 반대를 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싱가포르는 일하는 복지에 중점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호텔 도어맨이 80이 넘는 노인께서 근무를 하고 계셨으니 그 말이 맞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요양시설의 문제를 떠나 향후 국외공무연수계획에는 차라리 싱가포르 정부의 복지정책방향 또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기관 방문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요양원 대표도 복지분야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답변의 정확성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느 나라이든 복지는 필요하다. 가이드의 말 대로 포폴리즘, 퍼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복지, 선별적복지가 조금씩 도입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12) 기획총무위원회 손분연의원

싱가포르의 높은 수준에 비해 시설과 정부지원이 열악하며 우리나라의 20~30년전 수준으로 느끼며, 국가를 상대로 실망했다. 부족한 지원금과 특히 일부의 후원금으로 운영됨이 안타깝게 한다.

요양원 자체에서 3회에 걸친 소독으로 비용절감에는 도움이 된다고 본다.
설립자 리아무이씨와 이어받은 자녀분의 자원봉사 개념이 크게 느껴져 존경할
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지부분에 더 많은 혜택을 원하고 있지만, 타 국가에 비해서
복지 지원율이 높고 일부의 반발도 있다고 보지만 복지부분은 상당히 자랑할
만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3)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각 지역마다 의무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위해 노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 요양원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고 우리나라 현실이 국가나 지자
체가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3%도 되지 않으며 민간단체나 사회 법인이 운
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열악한 시설과 낙후된 서비스로 사고도 많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지원을 하여 국가나 지자체에서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할 것 이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폐 주기식의 복지’ 가 아닌 ‘일하는 복지’ 정책

- 리아무이 치매요양원의 시설은 싱가포르의 높은 국민소득에 비하면 실
망스러울 정도로 그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1960년도에 설립되어 111명의
환자들이 있는데, 직원의 46명 전부가 외국인(필리핀, 미얀마, 인도, 스
리랑카 출신)이며, 수간호사도 있고 전체 요양원의 관리자 매니저가 있는데
두 사람은 싱가포르사람이라고 한다.
- 리아무이 치매요양원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난 후 싱가포르의 복지
제도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보다도 못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폐 주기식의 복지’ 는 아니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다.

-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와 복지의 동반 성장’을 발전 패러다임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능동적 복지’를 국정지표로 삼아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모든 국민의 복지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될 정도로 정부당국자들의 인식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이 합리적·분석적으로 결정되거나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과거 유럽식 복지국가의 모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였다. 하지만 현재 유럽은 혹독한 긴축정책으로 인하여 그러한 복지정책 시대는 마감하고 새로운 복지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새로운 복지는 바로 ‘일하는 복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퍼주기식의 복지를 했다가는 국가부도가 다시 회귀할지 모를 일이다.

7. 싱가포르 쥬롱 새공원

가. 방문지 개요

싱가포르의 쥬롱 새공원은 새만 있는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곳이다. 거의 50년 되다 보니 새로운 새공원을 내년 하반기에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트램을 타고 새공원을 둘러볼 수 있으며, 열대림 속에서 새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

원래는 공업단지였던 곳이 새들이 사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 바로 쥬롱 새공원이다. 전 세계 380여 종, 5,000여 마리의 다양한 조류를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쥬롱 새공원에는 울스타 버드쇼 공연을 하는 곳도 있다. 울스타 버드쇼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직접 새들의 쇼에 참여도 할 수 있고, 새들의 재능을 보며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장소다. 앵무새가 중국어로 1에서 10까지 세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박수를 보낸다.

쥬롱 새공원에는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코뿔새나 큰부리새 등 희귀종에서부터 남극의 신사 펭귄까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대형 새장에도 입장할 수 있어 가까이에서 새들을 직접 구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필수코스이기도 하다.



쥬롱 새공원 안내표지판(왼쪽)과 트램(오른쪽)



주룽 새공원에서 운행 중인 트램 탑승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의장 정기수의원

싱가포르를 시찰하며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선천적으로 가진 자연환경이 없는 곳에 타 지역의 좋은 아이템을 도입하여 자기 것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주룽새 공원도 마찬가지이다. 당초에는 공업단지였던 곳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들의 천국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종류의 새와 숲조성 및 공연까지 환상적인 공간을 만든 것에 감탄하였다. 우리 구 차원에서 이 정도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는 어렵겠지만 없는 환경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정신은 배워야 할 것이다.

(2) 부의장 김동선의원

쥬롱 새공원은 숲으로 둘러싸인 공원에 새들이 사는 곳이다. 싱가포르의 자연적인 것보다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많은데, 그런 곳도 모두 세계적인 것이 많아. 쥬롱 새공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다른 나라의 좋은 정책을 모방하여 새롭게 싱가포르에 맞게 잘 정착시킨 것으로 보인다.

(3)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새공원으로, 원래는 공업단지였던 곳에 새들이 사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코뿔새나 큰부리새 등의 희귀종에서부터 남극의 신사 펭귄까지 전 세계 380여종, 5,000마리의 다양한 조류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새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공연도 즐길 수 있다.

(4)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의원

쥬롱 새공원, 새만 있는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곳이다. 거의 50년 되다 보니 새로운 새공원을 내년 하반기에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트램을 타고 새장을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들이 무리를 지어 있다. 앵무새가 쇼를 하는 곳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모였다. 앵무새들이 중국어로 1에서 10까지 세기도 하고 플라스틱병 등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할 줄도 안다. 10월에 어린이날 행사를 해서 어린이 동반은 무료인데 굉장히 복잡하다고 한다.

우리 북구에도 주제가 있는 동물원이나 전시관을 만들어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공업단지를 새들의 공원으로 탈바꿈 시킨 곳이다. 다양한 조류를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고, 새들이 사는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고 새장에 입장하여 가까운 곳에서 새들을 볼 수 있었다. 중국어로 말하는 공연자의 말을 알아듣고 행동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싱가포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나라라고도 생각했다. 새를 훈련시켜 관광객을 즐겁게 만들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변신 시키는 능력이 탁월했다.

(6)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의원

동물원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산.

희귀새부터 펭귄까지 5,000마리의 조류를 만날 수 있는 도심공원이 부럽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잘 길들여진 앵무새 쇼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7)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쥬롱 새공원은 세계 최대의 조류 생태 전시장 이라고 한다. 멸종 위기에 처한 12종의 새들을 포함하여 600여종 8,000여 마리의 새들이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원 안에서 자유롭게 서식하고 있다. 새공원에는 각종 새 쇼가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공원전체를 쉽게 돌아 볼 수 있는 트램이 운행된다. 새들의 요새이기도 한 이곳 쥬롱 새공원을 우리 북구 화명생태공원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북구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겠다.

(8) 주민도시위원회 강광진의원

싱가포르 서쪽 20.2헥타르의 면적에 조성되어 있는 이 공원은 도보 또는 트램을 타고 각종 새를 구경할 수 있으며, 600종에 이르는 새 8,000마리가 모여 있어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매일 먹이를 주는 시간이면 벃뿔닭, 무지갯빛 찌르레기, 부채머리새와 같이 평소에는 보기 힘든 새를 포함하여 다양한 새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새장 중 하나인 워터폴 에이비어리(Waterfall Aviary)도 구경하고 600마리의 새와 30미터 높이의 폭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울창한 공원에는 다른 명소도 있습니다. 9층 건물보다 높은 세계 최대의 로리 새장에서는 15종의 화려한 로리 앵무새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펭귄 코스트(Penguin Coast)에서는 날지 못하는 새인 펭귄의 다양한 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점잔을 빼는 듯한 모습의 플라밍고가 수백 마리 모여 있는 플라밍고 레이크(Flamingo Lake), 세계에서 펠리컨이 가장 많은 펠리컨 코브(Pelican Cove)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엄한 새들의 비행을 감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킹 오브 더 스카이 쇼

(Kings of the Skies Show)에서 강력한 독수리와 매가 사냥하는 모습을 직접 보거나 하이 플라이어 쇼(High Flyers Show)에서 사람과 새들과 하나가 되어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9)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원래는 공업단지였던 곳이 새들이 사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 바로 주룽 새공원이다. 전 세계 400여종에 5,000여 마리의 다양한 조류를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코뿔새나 큰 부리새 등의 희귀종에서부터 남극의 신사 펭귄까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대형 새장에도 입장할 수 있어 가까이에서 새들을 직접 구경할 수 있다.

트램을 타고 공원을 일주하였는데, 곳곳에서 희귀한 조류들을 만나보았으며, 올스타 버드쇼 공연을 하는 연목 원형 극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대형 수족관에서 수영을 즐기는 펭귄도 만나볼 수 있었다. 이후, 연목 원형 극장에서 올스타 버드쇼를 관람하였는데, 조련사의 지시를 따라서 보여주는 새들의 퍼포먼스와 재능, 자유롭게 날아서 무대 중앙으로 모이기도 하고 소리 높여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있으니 참으로 신기했다. 앵무새가 노래도 불러보고 여러 나라 언어로 말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도 하는 것 같았으나,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였고, 꼭 말투가 서툰 유치원생 같았다. 버드쇼 공연 내내 다들 한 마음으로 박수치며 새들이 좋은 공연을 보여주길 바라며 어른, 아이들 모두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관람객에게는 손에 새를 올려보게도 하고, 홀라후프 같은 원형을 들고 있게 하여 새가 날아와서 원형을 통과하게 하는 이벤트도 진행하였다. 보여 주기식의 버드쇼를 벗어나 관람객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버드쇼라 더 흥미진진했다. 우리나라도 관객이 함께하는 공연들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 보는 공연에서 참여하는 공연으로 스탠스가 바뀌는 것은 동서를 불문하고 시대적 흐름인 것 같다.

(10)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원래는 공업단지였던 곳이 새들의 천국이며,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 바로 주룽 새공원이다. 전 세계 380여종의, 5,000여 마리의 희귀하고 다양한 조류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공원으로 가꾸어져 있으며,

트램을 타고 코스별로 각 희귀 새들의 보금자리마다 둘러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자연과 함께 새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더해주는 것 같다.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코뿔새나 큰부리새 등의 희귀종에서부터 남극의 신사펭귄까지 구경할 수 있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대 새장에도 입장할 수 있어 보다 가까이에서 새들을 눈으로 관찰 할 수도 있다. 또한 Julong Bird Park에서 잘 훈련 된 새들이 조련사의 지휘에 맞춰 멋진 공연을 함으로 사람과 새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원형 공연장도 있다.

우리 구에도 빼어난 금정산 자락에 잘 가꾸진 화명 수목원이 있으며, 화명 수목원에는 잘 가꾸진 희귀한 꽃들과 나무들이 조화롭게 잘 배치되어 있으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산책로가 구성되어 있으나, 류롱 새공원처럼 ‘새를 주제로 한 전문성 있는 특별한 공원’ 으로 개발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숲 체험과 힐링을 위하여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11)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희귀한 새들이 모여 있는 곳, 류롱 새공원이다.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한글 표지판 등도 잘 만들어져있다. 트램을 타고 15분을 도는 동안 각종 새들을 만날 수 있다. 자료를 보니 이곳이 원래 공업단지였는데 새들이 사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한다. 공업단지가 새들의 천국으로!!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단위의 관광객과 손님들이 많이 보였다. 트램을 탄 이후에 공연장을 둘러 새들의 공연을 보았는데, 30여분이 지루하지 않게 잘 지나갔다. 특화된 새공원, 하나를 만들어도 어떤 특색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하듯 류롱 새공원은 싱가포르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듯하다.

(12) 기획총무위원회 손분연의원

싱가포르의 류롱 새공원은 공원관리의 정석을 보여 준다. 공업단지였던 곳을 새들의 천국으로 만들었고, 이 공간에 전 세계 희귀종의 새들을 모아 공원화함으로써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특히 어린이 동반 시에는 무료로 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13)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싱가포르 장관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했다가 그곳의 거대시장을 보고 착안하여 1971년 동남아 최대 규모의 새공원으로 세계 희귀 조류들을 연구 보호하고 시민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각종 다양한 공연과 함께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가 있고 싱가포르 핫플레이스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단순한 종합 대공원이 아닌 한 가지 주제로 집중화하여 특색 있는 동물(예: 사파리투어)들로 만들어 진다면 새로운 공간과 지역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다.



쥬롱 새공원에서 무리를 지어 한가롭게 놀고 있는 새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화명생태공원에도 닭, 토끼, 염소, 사슴, 다람쥐 등과 잉꼬새, 앵무새 등이 있는 미니동물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 싱가포르의 주룽 새공원은 약 600종, 8,000마리의 새들이 서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공원으로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다녀가는 인기 관광지이다. 싱가포르의 장관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했다가 그곳의 거대 새장을 보고 착안하여 공업 단지였던 주룽 타운을 자연 공간으로 변모시켰다고 한다.

○ 새공원은 관광지로 더 유명한 곳이지만 새병원, 조류 연구 보존 센터 등을 함께 운영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조류를 보호하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 싱가포르의 주룽 새공원은 세계적인 관광지이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장이 될 수 있다. 새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마련되어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 부산의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삼정더파크 동물원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루트백화점 부산광복점 옥상에 있는 실내동물원 규모로 화명생태공원에 어린이들의 교육장이 될 수 있는 닭, 토끼, 염소, 사슴, 다람쥐 등과 잉꼬새, 앵무새 등이 있는 미니동물원을 조성하면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8.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가. 방문지 개요

싱가포르 국립 도서관은 예술,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싱가포르에 대한 다양한 서적과 자료를 다루며 싱가포르 지식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궁금한 관광객이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현지인 또한 많이 방문하는 장소로, 책을 통하여 현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곳이다. 16층 높이의 건물로, 내부에는 책이 차지하는 공간 외에도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각 층마다 전시회, 공연장, 휴식공간이 있어, 독서 외의 문화생활을 체험해 보며 휴식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층별 안내도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의장 정기수의원

국립도서관답게 규모는 제법 컸으며, 싱가포르의 지식 허브센터라는 느낌을 받았다.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한다. 기존에 쓰는 공용어가 있으나 정책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취해 자연적으로 국민이 영어 사용이 가능한 나라로 변모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게 된 원동력이 허브도서관이 있어서 국민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 생각이 든다. 특히 열람실에 아이들이 놀수 있도록 놀이방을 상당한 규모로 들여놓은 것을 보았다. 어릴때부터 도서관 환경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 가족 단위로 책도 보고 쉴 수도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 북구도 도서관 정책을 펴는데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2) 부의장 김동선의원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책을 읽거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층마다 다른 문화공간들, 공공도서관을 비롯하여 영화관, 전시실, 세미나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취미활동을 하기에 도 좋고, 가족들이 함께 독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좋았다.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의원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 그 자체였다. 독서라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세미나,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독서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 북구에서도 도서관이 단순히 독서를 위한 공간을 넘어서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4)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회원 확인 없이도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층도 다양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한다. 국립도서관인 만큼 16층 높이의 규모가 큰 건물로 도서관뿐 만 아니라 복합 문화센터의 역할도 겸하고 있어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우리구도 화명, 금곡, 디지털 등의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이 책을 보고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의원

싱가포르의 국립도서관은 다양한 문화공간이 있다. 공공도서관, 영상실, 갤러리, 스터디룸, 그 외 전문서적. 어린이놀이시설도 마련해서 친근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제 우리나라의 도서관도 주민들의 소통공간이자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16층 높이의 건물로 내부에는 책이 차지하는 공간 외에도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각 층마다 전시회, 공연장, 휴식공간이 있어 독서 외의 문화생활을 체험하고 만남의 장을 만드는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함께 만드는 도서관이라는 점이 특징이었다.

(7)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의원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우리나라구조와는 달리 각층마다 전시장 공연장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체험활동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방문한 그 시간에도 야외테라스에서 결혼식 뒤편이인지 공연뒤편이인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회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도서관은 독지가 이공찬이 기증한 건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잘 정착되어 있는 것 같아 부러움을 산다.

(8)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싱가포르의 시청역과 부기스 사이 Victoria Road 근처에 위치한다. 방문했을 당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웅장하고 이렇게 멋진 건물이 국립도서관이었기 때문이다. 5층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작지만, 싱가포르 도서관의 역사에 대해 소개해 놓은 전시물을 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국립도서관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이다. 또한, 싱가포르 도서관의 역사는 200년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스터디 라운지 옆에는 2개 정도의 세미나 룸이 있어 빌려서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또한, 외국대학 캠퍼스가 도서관 안에 있기도 하다. 우리 북구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국가가 직접 운영 건립하는 국립도서관을 유치하도록 북구의회와 북구청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9) 주민도시위원회 강광진의원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의 개관연도는 1823년이며, 자료현황(2016년 기준)을 살펴보면 실물 자료(7,550,000), 전자책(4,580,000)을 구비하고 있는데, 2015년에 천만장서 달성, 개관 70주년 행사를 한 서울국립중앙도서관 보다 조금 더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있다.

‘평생 독자, 학습 사회, 지식 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싱가포르 빅토리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는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국립문서보관소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학교 및 기관을 포함해 27개의 도서관이 정부기관 관리 하에 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 기후 특성과는 다른 아열대 기후로 1년 내내 더운 날씨로 인해 건물 신축 시에도 그 특성이 감안하여 건물을 짓는 것 같다. 싱가포르 건물의 외벽은 밖으로부터 태양열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두껍게 지어졌으며 내부의 공간은 그늘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태양의 방향과 그늘을 이용해 일광을 최적화하면서 인공조명의 사용을 줄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일광 센서를 달아 건물 외관에 자동 블라인드가 설치 되어있으며 화장실의 경우 도서관 운영 시간 외에 필요한 경우에만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 물 절약을 위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 옥상 정원은 주변 온도를 낮추는 용도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동 냉각기 조절 시스템을 통해 야간에 도서관 내부의 에어컨 작동을 멈추게 하고 있으며, 1층 광장 공간은 자연 채광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건물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에너지 사용 실태와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설계로 상당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둔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여러 개의 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러한 친환경 정책과 설계는 한국의 사정에 맞게 적용시켜야 하겠다.

(10)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싱가포르 국립 도서관은 예술,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싱가포르에 대한 다양한 서적과 자료를 다루며 싱가포르 지식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16층 높이의 건물로 내부에는 책이 차지하는 공간 외에도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층마다 전시회, 공연장, 휴식공간이 있어 독서 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체험해 보면서 휴식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입구로

들어가기 전에 옆쪽에 무인으로 책을 반납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도서관 운영시간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방문해서 반납하면 된다.

지하 1층은 센트럴 공공도서관, 1층은 카페, 광장, 전시 공간, 3층에서 5층까지는 드라마센터, 국립예술위원회, 7층부터 13층까지는 Lee Kong Chian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7층은 비즈니스, 과학, 기술 컬렉션, 8층은 예술, 사회과학 컬렉션, 9층은 중국, 말레이, 타밀 컬렉션, 10층은 기증자 컬렉션, 아시안 아동 컬렉션, 11층은 싱가포르, 동남아 컬렉션, 13층은 희귀자료 컬렉션으로 구성되어있다.

14층은 국립도서관위원회, 16층은 POD(갤러리 및 행사진행 공간)이다.

리콩치안(Lee Kong Chian, 1893년-1967년)은 자신의 고무 가공회사를 말레이시아에 설립하고, 고무와 파인애플 농장 사업으로 크게 부를 축적해 1930년대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로 불리기도 했다.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중국계 사업가이자 자선가 중의 한명인 리콩치안은 싱가포르 국립대학 (NUS)의 의과대학의 설립을 위해서 1밀리언 싱가포르 달러(한화 9억원 정도)를 기부했고, 국립도서관의 이 엄청난 도서들도 리콩치안의 기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특히 교육면에서 많은 자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더욱 더 유명하지 않을까 싶다.

지하1층은 일반자료열람실이 있는 곳인데, 열람실보다는 시청각자료감상, 신문·잡지, 어린이도서관, 멀티미디어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며, 책상보다는 소파나 개별 의자 등이 있어 편히 독서하기에 좋은 곳 같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은 부모님과 함께 해야만 입장할 수 있고 안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인데, 책상을 많이 두지 않고 어린이들이 뛰놀면서 즐길 수 있도록 놀이터처럼 꾸며 놓았는데, 아이들이 책에 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공간을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활용한 점도 흥미롭고 독특한 것 같다. 군데, 군데, 바닥에 편히 앉아서 아이들에게 동화책 같은 것을 읽어주는 모습도 참 보기에 좋았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 즐기는 가족도서관으로 변모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독서문화를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11)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싱가포르의 국립중앙도서관은 16층 높이의 건물로 싱가포르 최대의 지식문화의 보고로서 예술·문화에 관련한 서적과 엔터테인먼트, 건설, 건축 등의 각종 기술서적 외 다양한 서적과 정보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과 거주 외국인들 그리고 현지인들이 많이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독서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교류할 수 있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각종 전시회와 세미나, 연극 외 다양한 공연 등으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의 역할도 훌륭히 해내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구도 거점도서관 위주의 도서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거점도서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공·사립형 작은 도서관을 두어 독서와 정보습득을 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전시회 세미나 그리고 공연 등 주민들이 손쉽게 찾아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사람과 사람이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이 갖는 소극적 기능보다 세계적 트렌드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보교류와 문화복합 공간으로서의 적극적 기능을 하고 있다.

(12)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도서관이면서 멀티플렉스 공연장 같은 느낌을 받은 곳이다. 지하1층에는 아주 자유로운 공간에서 책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키즈 존이 마련되어 있다. 그 위층으로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공연도하고, 전시도 하고 있었고, 어느 공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 토론하고 회의하는 장소로도 쓰이고 있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조용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조금은 자유로운 문화공간으로 다가오는 점이 참 와 닿았다. 만덕2동 디지털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기능이 더욱 더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령 예컨대 키즈 존을 좀 더 세분화해서 0~2세, 3~5세, 초등학교 등으로 약간의 구분을 해주면 아이를 데려가는 부모의 입장에서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또 큰아이들과 작은아이들이 뒤섞여 발생하는 안전상문제에서도 좀 더 아이들을 배려해주는 것

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아울러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사실 창원의 지혜의 바다 등 국내에 잘되어있는 도서관이 더 많기도 하다. 어떤 하드웨어적인 건축물에 대한 고심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국립도서관에서처럼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간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더욱 가미시키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13) 기획총무위원회 손분연의원

지하1층부터 시작되어 총 16층으로 전층을 에스컬레이트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전층을 관람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하1층 공공 도서관은 자유로운 분위기로 어린이 놀이터와 신발을 벗고 누워서 쉬는 공간 등 극히 편안한 휴식처의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층을 시간관계상 모두 관람하지 못했지만, 하루를 도서관 건물 안에서 있어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공간 등 도서관이지만 도서관보다는 예술, 문화, 휴식 공간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치중을 한 것이 인상적이다.

(14)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국립 도서관은 예술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서적과 자료를 다루며 지역 거주자, 현지인, 외국인 등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우리구도 서적,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 예술 영역이 확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삼성동 코엑스 스타필드 별마당 도서관에는 다양한 도서 보유는 물론이고 도서관 중앙을 장식한 조형예술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입소문 난 명소로 자리 잡은 바 있다. 또한 소소하게나마 도서관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도서관 입구에 무인 대여함 설치도 고려해 볼만 하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공공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

○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도서관에 가보라” 는 말이 있다.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에서 미래를 볼 수 있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시험 공부하는 열람실이 대부분이다.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의 공공도서관도 과거 열람실 중심의 도서관에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동아리방이나, 영상실, 전시실 등을 일부 갖추어 나가고 있다.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에서 인상적으로 본 것은 자유로운 열람환경이다.

지하1층의 공공도서관에는 가정의 거실에서 책을 읽는 듯한 환경을 조성해 두었다. 어린이들도 쉽게 책을 빼서 볼 수 있는 낮은 서가(개가식)와 편안한 쇼파와 바닥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해 두었고, 키즈존이 있어서 책을 보다가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아이들과 동반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놀이시설에서 놀게 하고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열람시스템. 정말 놀라운 발상이다.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에는 전시실과 영화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시설이 함께 있어서 도서관이라는 생각보다는 복합문화공간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전시실이 아니라도 통로 등 공간에도 전시된 예술작품이 많아서 마치 갤러리에 온 것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우리의 공공도서관도 이제 열람실 중심의 도서관이 아닌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9. 싱가포르 템시힐

가. 방문지 개요

템시힐은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에서 걸어서 30분 이내의 거리다.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면 5~10분 내 금방 도착한다. 템시힐은 과거 영국 군인들의 주둔지였으며 The Central Manpower Base of Singapore(CMPB)로 불렸다. 당시 영국군의 막사 건물은 1980년대 이후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골동품상으로 변하였다. 지금은 도심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 한적하면서도 아름다운 마을을 이루고 있다.

템시힐의 대표 미술관 중 하나가 레드 씨 갤러리(Red Sea Gallery)다. 2001년 설립된 레드 씨 갤러리는 템시힐의 중심에 위치한다. 레드시 갤러리는 호주 브리즈번에 2008년 지점을 내기도 하였다. 현대 작가들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판매한다. 구매하지 않고 둘러보기만 해도 괜찮다. 전시는 매번 바뀌며 흥미를 돋우는 전시들을 자주 연다. 레스토랑 예약 후 기다린다거나 잠깐 한낮 폭우를 만났을 때 들르기 좋다.



템시힐 입구에 있는 연못과 조형물(영국 군인의 모습)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영국군 막사를 개조하여 만든 레스토랑, 카페, 기념품 판매점 등이 있다.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의장 정기수의원

템시힐은 부산 지역의 부촌같았다. 도심에서 적당한 거리에 한적하면서도 여유가 있는 마을이었다. 이 부촌이 새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막사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 매우 놀라웠다. 100년 정도 시간이 흘러도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개성이 넘치고 이로 인해 카페, 골동품상이 모여서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한 것이 우리 북구도 낙동강이나 금정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카페거리를 조성하거나 피아노 거리와 만세거리를 연계하여 소규모 갤러리나 카페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2) 부의장 김동선의원

싱가포르의 템시힐은 과거 영국군의 막사 건물을 외관은 거의 그대로 두고, 내부를 현대식으로 고쳐서 카페, 골동품상 등으로 만들어 놓았다.

도심과 떨어진 넓은 공간에 만들어져 있어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휴식처로도 이용될 수 있는 곳이다. 관광객은 별로 보이지 않지만 싱가포르가 과거를 잘 보존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모습이 잘 보여 진다.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의원

싱가포르의 템시힐은 작은 유럽을 옮겨온 듯한 인상을 풍겼다. 우리나라에도 이국적인 주택단지를 관광지로 개발한 사례가 많은 데(통영 독일마을 등) 이곳도 유사한 곳으로 생각된다.

마을 자체가 관광지가 된다는 점에서 만덕2동에 위치한 레고마을이 떠올랐다. 옹기종기 쌍둥이 주택들이 모여 있는 레고마을은 수십 개의 알록달록한 지붕이 명물이 되어, 전국에서 사진동호인들이 출사를 위해 북구를 찾게 만들고 있다.

레고마을의 유명세가 지역상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템시힐의 성공사례를 연구해 볼 예정이다.

(4)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템시힐은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에서 걸어서 30분 이내,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면 5~10분 내 금방 도착하는 거리다. 템시힐은 과거 영국 군인들의 주둔지였으며 the Central Manpower Base of Singapore ("CMPB")로 불렸다. 당시 영국군의 막사 건물은 1980년대 이후 외관은 거의 그대로 두고, 내부를 현대식으로 고쳐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골동품상으로 변하였다. 지금은 도심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언덕에 오밀조밀 모여 있는 작은 미술관, 카페, 레스토랑이 모여 있는 곳으로, 한적하면서도 아름다운 마을을 이루고 있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으로 옛것을 보존하면서 관광지로 개발한 도시재생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5)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중학의원

우리 부산에도 과거 70년대까지 남아 있었던 미군막사는 콘텐스 막사가 많았다. 초등학교 건물도 미군막사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던 곳이 있었는데, 템시힐에서 그 때의 모습이 연상된다.

도시재생은 재개발과는 달리 과거의 형태를 잘 보존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템시힐은 오래된 건물도 잘 보존하고 관리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6)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과거 영국군 주둔지의 막사 건물을 허물지 않고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골동품상점으로 변화시킨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지난 과거를 버리지 않고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중요함에 가치를 함께한 곳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식사를 하기위해 온 손님들의 고급 자동차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다.

(7)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의원

군인들의 막사였다는데 도시재생이 멋지게 되어있다. 옛것의 멋스러움을 간직하면서 세련미까지 겸하였다. 주변이 작은 베러리힐즈 마을이라 그럴까? 고급레스토랑, 골동품, 명가구점까지 잘 어우러져있다.

(8)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템시힐은 과거 영국군의 주둔지였으며, CMPB(the Central Manpower Base of Singapore)로 불렸다. 당시 영국군의 막사 건물은 1980년대 이후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골동품상으로 변화였다. 지금은 도심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 한적하면서도 아름다운 마을을 이루고 있다. 템시힐의 대표 미술관중 하나가 레드 씨 갤러리(Redsea Gallery)다. 2001년 설립된 레드 씨 갤러리는 템시힐의 중심에 위치한다. 레드 씨 갤러리는 호주 브리즈번에 2008년 지점을 내기도 하였다. 현대 작가들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판매한다. 구매하지 않고 둘러보기만 해도 괜찮다. 매번 바뀌며 흥미를 돋우는 전시를 자주 연다. 우리 북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전하여 후세에게 우리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9) 주민도시위원회 강광진의원

싱가포르의 숲속의 비밀동네! 뎀시힐은 원래는 영국군대의 부대막사와 연병장이 모여 있던 곳이었지만, 그 이후 공원으로 탈바꿈했고 1980년대 이후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골동품상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싱가포르에서 식도락으로는 빠지지 않는 곳으로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 카페 등이 모여 있다. 커다란 공원 안에 위치해 있어서 식사 전후로 산책을 하기에 좋다. 싱가포르의 날씨는 덥지만 커다란 나무들이 많아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걷기 어렵지 않다. 늦은 오후나 저녁 식사 전에 방문하면 좋다.

뎀시힐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카페로 P.S Cafe가 있다, 숲속에 숨어 있는 느낌의 카페로 아침8시 운영하고 아침 브런치(brunch)부터 늦은 디너(dinner)까지 가능하다. 또한 뎀시힐에는 미술관과 갤러리가 많은데 그 중에 MOCA(현대미술관, Museum of Contemporary Art)는 주로 아시아의 최신 현대미술작품을 전시한 갤러리로 추천 할 만합니다. 북구에도 뎀시힐과 같은 명소를 만들어 도시숲에서 식사와 커피 한잔 하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벤치마킹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북구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뎀시힐과 같은 큰 면적으로는 안되나 작은 면적의 뎀시힐을 계획해 봅니다.

(10)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뎀시힐은 싱가포르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공간으로 싱가포르 중산층들의 삶을 엿보고 체험하기 좋은 공간이다.

공원에는 잔디구장으로 된 축구장도 있고 전체를 다 둘러볼려면 한 시간 이상은 소요될 것 같은 상당히 큰 규모였으며, 전체가 나무와 잔디로 둘러싸여 있어서 싱그러운 녹음으로 가득했다.

고급 식당들이 모여 있고,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구 매장들이 있어 쇼핑이 가능하고 싱가포르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스파도 있다.

과거 영국 군인들의 주둔지였으며 the Central Manpower Base of Singapore(CMPB)로 불렸다고 한다.

당시 영국군의 막사 건물은 1980년대 이후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골동품상, 예술 전시관 등 음식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였다.

음식 가격이 1인당 200달러 내외로 일반 서민들은 접하기 힘든 고급 음식 점들이다.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 같지만 한적하면서도 아름다운 마을을 이루고 있다.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에서는 걸어서 30분 이내의 거리이며,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면 5~10분 내 금방 도착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대부분의 미군부대가 도심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어 주거지로 개발되기도 하고 공공청사가 들어서기도 하였지만 범전동에 있었던 하야리아 부대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써 부산 시민공원으로 조성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부산 시민공원을 잘 가꾸어 앞으로 부산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면서 부산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11)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템시힐(DempseyHill)은 과거 영국 군인들의 주둔지였으며 the Central Manpower Base of Singapore(CMPB)로 불렸다. 당시 영국군의 막사 건물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있으며, 잘 정돈된 조경과 운동장 그리고 어린이 교육시설 등이 들어 서 있으며, 고급레스토랑과 카페, 골동품상 등으로 변하여 한적하면서도 아름다운 마을을 이루고 있어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힐링을 위해 찾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구에서도 구포역을 중심으로 3.1 만세운동의 역사와 일제시대의 잔재들인 적산가옥이 남아 있고 해방 후 영남제분을 비롯한 밀 가공과 구포국수 공장들이 즐비하던 지역으로 해방 전·후 대한민국 현대사의 흔적들을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역을 3.1운동 역사 테마거리와 밀과 국수의 거리로 보존을 하고 구포역과 연결 된 구포이음 리버워크와 구포시장, 금빛노을 브릿지로 연결한다면 신·구가 조화된 또 다른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로 새로운 관광산업의 메카로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2)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보타닉가든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템시힐, 이곳은 영국군의 주둔지로 군의 막사 건물이 있었던 자리다. 막사 건물은 그대로 두면서 내부는 고급레스토

랑과 카페, 골동품상으로 변해 있었다. 가격은 직접 사보지 못해 알 수 없었으나,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조금 한적했다. 막사의 슬레이트가 예전 형태 그대로 있어서 석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몇몇 중심부 외의 건물들은 문이 닫힌 곳도 있었다. 면적은 상당히 넓었는데, 중간 중간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조성되어 있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날이 손님이 유독 없었는지 아니면 적은 인원의 손님으로도 유지가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재생사업이 정부의 지원이 끊기고 나면 영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곳도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들의 형체는 유지를 하면서 개발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였다.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루느냐에 방점을 두는 것이 국제적인 방향이고 우리도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3) 기획총무위원회 손분연의원

과거 영국 군인들의 주둔지였고, 도심에서 차량으로 약15분 떨어진 곳이다 1980년대 이후 레스토랑과 카페, 골동품상으로 변해 있다.

낮은 구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수목, 조경이 잘 정돈된 말 그대로 VIP형 가족 휴양처 느낌이었다.

전시판매하는 골동품 및 그 외의 물품도 고가이며 찾아오는 손님의 차량은 거의 최대 고가의 차량들로만 보였다.

(14)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템시힐은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어 여유를 즐기고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과거 영국 군인들의 주둔지를 그대로 살려 옛 것을 보존하고 현대의 카페에 갤러리를 세워 여러 작품을 구매하지 않고 전시만 관람해도 되는 좋은 곳이다. 우리 구는 도시재생 사업지에 예를 들자면 구포만세거리에 있는 기존 상업지 건물 여러 채를 연결하여 외관을 보존하고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커피나 밀맥주를 만드는 공간을 제공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구의 적극지원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핫스팟이 많이 갖추어 지기를 기대한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역사 문화 자원의 보존과 관리로 관광자원화

○ 싱가포르의 템시힐은 과거 영국 군인들의 주둔지로서 그 곳에 있던 막사 건물을 잘 보존하여 지금은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 갤러리, 골동품 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조용한 마을로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같은 고급 저택이 많은 부자 동네이다. 템시힐 근처 주택가에는 고급 승용차가 즐비하다. 우리 돈으로 1억 원 이상 되는 포르쉐 승용차 등 고급승용차가 넓은 정원을 갖춘 주택에 2대씩 주차된 곳이 많아서 놀라게 한다.

○ 템시힐과 같은 역사 문화 자원은 그 보존과 관리를 잘하게 되면 오늘날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역사 문화 자원은 원형유지를 기본으로 하여, 변형이나 변질을 최소화하고, 본래 자리와 공간에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

10. 싱가포르 PUB(물재생 시스템)

가. 방문지 개요

PUB는 환경 및 수자원 부서 산하의 정부 기관으로서, 싱가포르의 물 공급 및 집수와 하수의 통합 처리 등을 담당하는 수자원 전문 기관이다. PUB는 2006년 글로벌 워터 어워드(Global Water Awards)에 의하여 우수 수자원 부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PUB의 슬로건은

"Water For All: Conserve, Value, Enjoy"

(모두를 위한 수자원: 보전, 가치, 생활)이며, 싱가포르의 물 공급을 다각화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역집수, 물수입, 뉴워터, 담수화의 4가지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배수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인 요소로는 저지대의 완만한 섬지형, 높은 조수간만의 차, 도시화로 인한 강우유출수 증가, 약 2,350mm에 달하는 강우량(우리나라 2006년 강수량 : 약 1,680mm), 2회의 몬순주기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홍수 방지 및 피해완화 대책으로써 배수로와 운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배수시스템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이를 위해 연간 약 천 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배수로와 운하 관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①운하 및 하천을 정기적으로 준설(921km)
- ②표류화물 및 파편 잔해 수거 및 제거
 - 수직 설치된 창살 무너 기구(48대)
 - 물에 떠 있는 방재 기구 (27대)
 - 기계 파편 제거 장치 (3대)

싱가포르의 PUB 프로그램(ABC수자원 프로그램)

- 역동적인 (Active)

- ①저수지와 수로를 적극 활용
- ②적극적인 생활과 활동
- ③사람들의 생활과 물을 연계시킴

- 미학적인 (Beautiful)

- ①홍수방지 및 물보존 이상의 가치 실현
- ②역동적이고 위생적이며 심미적인 라이프 스타일 접근방식

- 위생적인 (Clean)

- ①재순환 전략 및 완화 조치를 통한 수질 개선
- ②사람들의 생활과 물을 연계시킴
- ③시민홍보

이러한 ABC 수자원 프로그램의 성과로 수로와 저수지가 도시의 상징물 역할을 하며 관광지로 부상 했으며, 주거 및 산업 지역에서의 성과, 수자원과 공원과의 통합, 자연보호의 실현 등, 수로 관리에 심미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를 접목한 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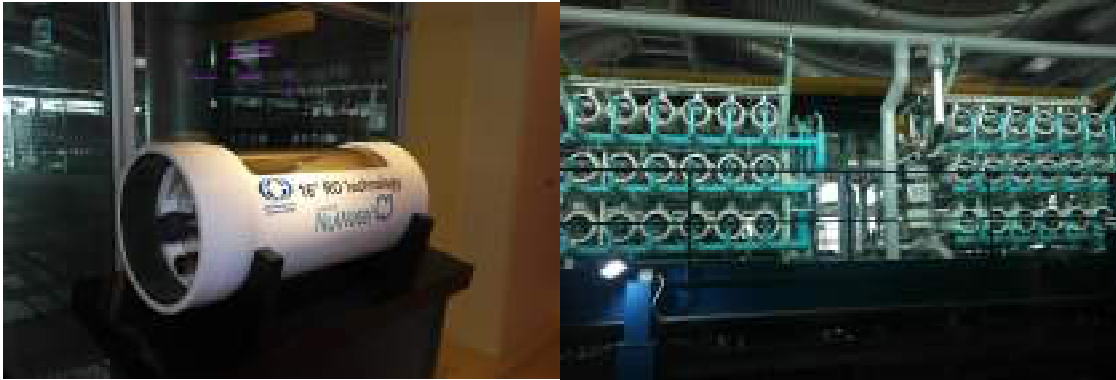
PUB의 홍보 전략은 메시지를 부드럽게 전달하고, 간접적인 이미지 전달 방식을 사용하여 물이 단순한 필요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예) ABC 수자원 프로그램, NEWater 방문센터에서의 국민 여배우 Zoe Tay 의 뮤직비디오 촬영, 물에 관한 팝송 작곡, Water Wally를 통한 재미있는 메시지 전달, 저수지 결혼식, 지식과 오락이 결합한 TV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PURE 잡지 발행 등이다.

또한, PUB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여 PUB의 자료들이 늘 새로운 생각과 혁신적인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상호 소통이 가능한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PUB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PUB에서 물재생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물재생 시스템(필터)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의장 정기수의원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이다. 당장은 그 문제가 시급하지는 않겠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는 분명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수를 상수원으로 바꾸는 뉴워터 시스템인 것이다. 하수는 상수원 중 가장 수질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뉴워터를 통해 재생산된 물은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될 만큼 품질이 우수하다고 한다. 현재 낙동강 수질도 좋은 편이 아니지만 지류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은 상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를 분류식 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향후 미래 물 부족을 대비해 중수도 시스템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2) 부의장 김동선의원

싱가포르의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잘 홍보하고 있는 것 같다.

뉴워터 시스템은 오염된 물이라도 재생하여 마실 수 있는 수준의 물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지금은 음용수로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이므로 중수도 시설을 관공서뿐만 아니라 기업체 등까지 확산하여 물을 아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의원

싱가포르는 강이나 호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며 토지면적 대비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은 도시국가이다. 싱가포르의 물 자급률은 60%수준으로 1인당 가용수 자원량은 연간 121m³로 세계평균(6383m³/년)의 5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물 부족위기에 봉착한 싱가포르는 물 보유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 이에 수자원 시스템 재활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에 매진해 획기적인 물 재활용시스템을 구축, 현재 수자원 재활용 선진국으로 급부상했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뉴워터(NEWater) 공장은 고급막 기술과 자외선 소독을 사용, 폐수를 추가로 정제해 생산된 재생수이다. 매우 깨끗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싱가포르의 5개 뉴워터 공장은 현재 물 수요의 최대 30%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한다.

(4)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PUP는 싱가포르의 물 공급 및 집수와 하수의 통합 처리 등을 담당하는 수자원 전문기관으로 싱가포르의 물 공급을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역집수, 물수입, 뉴워터, 담수화의 4가지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직접적인 원수가 없어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싱가포르에서 PUP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시민홍보 및 ABC 수자원 프로그램, 빗물관리 및 DTSS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하는 만큼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끗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5)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의원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이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엔 한강, 낙동강, 섬진강, 금강, 남한강 등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하여 각 가정에 공급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원수를 수입하고 있다. 최근 부산시에서 해수담수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담수화시설을 설치했으나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여 사실상 담수화 정책은 실패했다.

싱가포르의 뉴워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실패한 정책에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이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뉴워터는 우리의 담수화보다도 더 나은 물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비교적 성공한 정책으로 보인다.

(6)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PUB는 싱가포르의 물 공급 및 하수처리까지 담당하는 수자원 전문기관으로 보전, 가치, 생활의 슬로건으로 지역집수, 물 수입, 뉴워터, 담수화의 4가지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이 부족한 나라인 관계로 특히 뉴워터 시설에 싱가포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한다.

뉴워터 시설은 한번사용한 물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도록 설계된 시설이었다. 머리카락 천만분의일의 미세한 정수시설의 획기적인 개발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웃 말레이시아에서 지금도 식수는 수입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물 공급을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중요한 물의 가치를 전달하는 노력도 하고 있었다. 뉴워터 시설 기술은 세계 1위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아직은 풍부하게 물을 쓰고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물 부족한 환경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7)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의원

new water. 현물을 새물로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

오수가 새물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마시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긴 하다.

이웃말레이시아에서 60%의 물을 수입해 사용하는 절대 물부족 국가.

이 시스템으로 2060년까지 60% 자체 충족계획이다. 머리카락의 1/1000까지 미세한 먼지도 걸러내는 시스템. 마지막 단계에선 영양까지 주입을 한다니 물부족 국가로 가고 있는 우리도 곧 도입이 되겠지.

현재는 싱가포르에서도 마시는 물보다는 산업현장 에어컨냉각수로 사용되고 있다.

(8)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PUB는 물 재생 시스템 기관으로 환경 및 수자원 부서 산하의 정부기관으로서 싱가포르의 물 공급 및 집수와 하수의 통합 처리 을 담당하는 수자원 전문 기관이다. PUB는 2006년 글로벌 워터 어워드에 의하여 우수 수자원 부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PUB 프로젝트 중 빗물 관리는 싱가포르의 배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인 요소로는 저지대의 완만한 섬지형, 높은 조수 간만의 차, 도시화로 인한 강우 유출 수 증가, 약2,350mm에 달하는 강우량, 2회의 몬순 주기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홍수 방지 및 피해 완화 대책으로서 배수로와 운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배수 시스템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이를 위해 연간 약 천 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PUB 프로그램 중 시민 홍보 및 TV마스코드 제작, 활용 정기 간행물 발행, 방문객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 북구도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절약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하여 물의 소중함을 지역 주민, 가정에 홍보하고 알려야 할 것이며 근검, 절약으로 밝은 미래를 설계해야 될 것이다.

(9) 주민도시위원회 강광진의의원

뉴워터공장에 방문하여 5분간 비디오시청을 하였으나 한국어 자막처리가 되지 않아 물재생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여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물부족 국가이며, 식수를 4가지 방법으로 조달을 하는데 첫째, 말레이시아에서 원수 수입 (30%)하고 206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며 둘째, 담수저수지 17개에서 식수를 공급 받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담수저수지로 머라이언공원 저수지이다. 셋째, 해수담수화하여 식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넷째, 뉴워터(물재생)을 통하여 식수를 생산하고 있다.

PUP 프로젝트는 빗물관리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배수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인 요소로는 저지대의 완만한 섬지형, 높은 조수간만의 차, 도시화로 인한 강우유출수 증가 약2,350mm에 달하는 강우량(한국 1년 강수량 약 1,680mm), 2회의 몬순주기를 들 수 있다.

지리적으로 말레이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현재 DTSS(Deep

Tunnel Sewerage System)이라 하는 거대한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사용하는 TBM을 가지고 직경 6.5m가량의 하수도터널을 만들어 세 개의 대형 하수처리시설로 하수와 우수를 이동시키는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을 싱가포르의 PUB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는 지난 2008년에 완료되었으며, 2단계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물재생 공장은 5군데가 있으며 여러 차례 공정을 거쳐서 WHO기준에 통과된 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민홍보를 위해 PUB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경제성, 환경성을 검토하여 PUP(Singapore National Water Agency) 물재생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미래의 수자원 확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0)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PUP 물재생(newater) 시스템 공장을 방문하였다. 진행자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 시청각실에 들어가서 물의 소중함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5분정도 시청하였고, 물이 재생되는 공정에 대하여 실제 기계와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다.

싱가포르 국민들이 마시는 물은 4가지 다른 물의 종류가 있는데, 뉴워터 이외 3가지 물 중에 대부분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 첫째가 말레이시아에서 3개의 송수관으로 원수를 수입하여 공급하는데, 전체 식수의 40% 정도 차지하고, 두 번째가 비가 내려서 물을 담수한 저수지 17개에서 정수하여 공급하는데, 20% 정도 차지하고, 세 번째가 해수 담수화로 공급하는데, 10% 정도 차지하고 네 번째가 뉴워터 공장에서 하수처리된 물을 재생하여 공급하는데, 현재 5개의 공장에서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뉴워터는 공정시스템자체가 공정시스템 플러스 이중막 및 자외선 기술을 이용해서 정제된 폐수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대부분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지만 고순도 물이 필요한 산업현장에서 대부분 사용된다.

이 물은 최상의 등급을 받은 물로써 선진화된 정수시스템과 자외선 차단 시스템을 도입시킨 물이다. 15만 여개의 다양한 테스트로 검증받은 물이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을 받았다.

뉴워터는 3가지 공정으로 물이 필터링되는 시스템인데 첫 번째 단계는 샤워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물들이 뉴워터 공장으로 들어오면 마이크로필터 네이션이라고 불리는 미세여과 시스템으로 산 처리 된 물이 촘촘한 세포막을 통과하여 여과되고 필터 속에 있는 부유물질이나 균질입자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이 남아 있고, 필터화 된 물은 분해된 무기물과 본래의 입자들만 남아있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삼투압을 역으로 사용하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역삼투압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원하지 않은 구조물들을 제거하여 삼투압보다 높은 압력을 가해 용액에서 순수한 용내 만을 빠져나오게 하는 시스템이며, 이 단계에서는 반투가성 세포막을 사용하게 된다.

이 세포막은 아주 작고 높은 입자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작은 물 입자 많이 통과할 수 있고, 머리카락 크기의 800분의1까지 걸러낸다고 한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테니스공 정도의 모양이 대부분의 물 입자라고 본다면 그 필터를 통과할 때는 박테리아나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빌딩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입자 자체가 테니스공만한 것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탁구공 정도 크기가 되면 물 입자만이 통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단계를 통과한 물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나트륨과 무기질만 남아있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상태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자외선차단 시스템이다. 앞선 두 단계만으로도 최적화된 물 상태지만 이 단계를 거치게 되어 좀 더 안전한 물임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자외선차단 시스템은 모든 생물체를 비활성화해서 정화된 물을 검증한다.

뉴워터 물탱크에 물을 보내기 전에 PH농도산성을 맞추게 되며, 이 과정에서 알칼리성 화학물질을 보존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공정을 거치게 된 뉴워터의 물은 대부분 산업현장에서 사용한다. 반도체 공정 중에 첫 번째 공정인 웨이터 공정 시스템에 대부분 사용하게 되고, 일반건물에서는 에어컨쿨링 시스템에 사용되는 냉각수 물로 사용된다.

마실 수 있는 물이지만 이 모든 물이 'DTSS' 라는 하수시스템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인식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시는 것을 꺼려한다. 그래서 비지터 센터를 만들어서 인식을 개선시키고 나중에는 마실 수 있는 생수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설명을 마치고, 뉴워터를 시음할 수 있는 물을 조그만 페트병에 담아 1인당 1병씩 제공해주었다. 당일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제공받은 뉴워터 물을 마셨는데, 여느 식수와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다.

싱가포르는 물 부족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뉴워터 공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뉴워터는 2020년도 목표로 전체 물 사용량에 40%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60년까지 5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의 사활을 건 미래성장 동력산업이 물과 필터산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20~30년 후에는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해 「물재이용촉진법」을 제정하여 빗물,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로 물 낭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당부분 하수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뉴워터 시스템이 해수담수화 시스템 비용의 절반수준이라고 하니, 싱가포르의 뉴워터 시스템 정책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또한 물 부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11)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PUB는 환경 및 수자원부서 산하의 정부기관으로서 싱가포르의 물 공급 및 집수와 하수의 통합처리 등을 담당하는 수자원 전문기관이다. PUB는 2006년 글로벌 워터 어워드(Global Water Awards)에 의하여 우수 수자원 부서로 선정되었다.

싱가포르는 실제로 물부족 국가로 ①먹는물 원수를 2062년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원수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물공급을 다각화하고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하여 집배수시설과 빗물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빗물을 저장하여 먹는 물을 생산하기 위한 ②담수화 시설을 하고 있으며, 바닷물을 정제하여 식수를 생산하기 위한 ③해수담수화 시설과 각 가정과 기관, 산업체에서 사용한 물을 재생하여 다시 음용할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④뉴워터를 2062년까지 50%이상 생산하여 싱가포르에서 물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2)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전 세계가 물이 부족하지만, 싱가포르의 물 부족 문제는 싱가포르 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주요 물 공급처가 말레이시아의 원수 수입(2062년까지 계약), 담수저수지, 해수담수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워터가 있다. 해수담수화에 드는 비용보다 절반이 저렴하다고 한다. 싱가포르 내의 직접적인 원수가 없으니, 말레이시아의 원수 수입이 가장 중요할텐데, 국가 간의 일이라는 것이 매번 좋을 수만 없는 일이라 싱가포르의 사정이 이해가 된다. 뉴워터는 총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1차 불순물제거, 2차 역삼투압방식으로 소금, 화학품, 미생물을 줄이고 3차 자외선 살균처리를 하는데 음용도 가능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산업용으로 쓰인다고 한다. 물부족 국가라 그러한지 미래 성장 동력이 물 산업과 관련된 필터산업이라고 하니 싱가포르의 노력이 상당하다 할 수 있겠다. 부산도 경남과 물문제로 한참 다툼이 있었다. 지금도 결론이 난 것은 없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물 문제에서 만큼은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13) 기획총무위원회 손분연의원

PUB(Public Utilities Board) 물재생시스템을 견학했다.

싱가포르는 물부족 국가이므로, 국가적 중요과제로 미래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① 말레이시아 생수 수입, ②17개의 저수지 담수, ③ 해수정수, ④뉴워터 물재생 등이다.

물재생과정을 홍보하며 도시의 상징물 역할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뉴워터 공장은 바닷물, 처리보다 저렴하다.

재생과정은 ①생활오수(화장실, 주방등)을 모아 이중막 초정밀 필터시스템으로 1차 처리하고, ②역삼투압방식으로 (소금, 화학물, 미생물제거로) 2차 처리, ③자외선 살균 처리한다.

현재는 마실 수 있는 물이지만 산업화에 거의 이용 중이다.

마스코트제작 활용과 정기간행물 발행, 방문객의 교육 프로그램 홍보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효과적 홍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물 부족국가이지만 국민의식과 절실함이 결여되어 있고 깨끗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홍보와 교육으로 국민의식을 높이고 물 고갈 전에 물 재생사업이 시급하다고 본다.

(14)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싱가포르 PUB는 환경 및 수자원 부서 산하 정부기관으로써 집수와 하수의 통합 처리 등을 담당하는 수자원 전문 기관이다. 싱가포르는 홍수 방지 및 피해완화 대책으로 배수로와 운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배수 시스템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 하는 데만 연간 약 천만 달러 예산을 쓴다고 한다. 우리 북구에도 낙동강 하수가 있어 셋강 등으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이 심한 편이다. 분류식 하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낙동강에 오염 물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부산의 해수담수화 사업, 싱가포르의 PUB 거울삼아야...

- 부산 기장군에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두고 5년 동안이나 논란을 빚은 부산시의 해수 담수화 사업이 결국 100%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장 해수 담수화 사업은 고리원전과 11km 떨어진 곳에 있어서 방사능 오염 논쟁과 운영비 갈등 등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가 올해 공업용수로 공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은 2009년부터 국비 823억원, 시비 425억원, 민자 706억원 등 모두 1954억원을 들여 2014년 완공됐다. 하루 4만 5000t의 수돗물을 생산하며 5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역삼투압 방식 담수화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 싱가포르의 PUB는 환경 및 수자원부서 산하의 정부기관으로서 싱가포르의 물 공급 및 집수와 하수의 통합처리 등을 담당하는 수자원 전문기관이다. 직접적인 원수가 없어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싱가포르에서 PUB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시민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 부산의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정책은 홍보부족도 정책실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싱가포르의 PUB와 같은 홍보관을 통해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시킨 다음에 정책을 실행했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정책사업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11. 싱가포르 센토사섬

가. 방문지 개요

싱가포르 본섬에서 남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센토사 섬은 1970년대까지 영국군의 군사기지였다가 이후 싱가포르 정부의 계획 하에 관광단지로 조성되었다. 본섬에서 버스, 모노레일, 케이블카로 오갈 수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하버 프론트 센터에서 출발하는 케이블카이다. 섬 내에는 실로소 비치, 팔라완 비치, 머라이언 상, 언더워터월드, 돌핀 라군,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버터플라이 파크, 음악분수 쇼, 실로소 요새, 아티스트 빌리지 등 다양한 어트랙션이 있으며 무료 셔틀버스와 비치트레인, 모노레일로 이동할 수 있다.



센토사섬을 오가는 케이블카



루지를 타고 리프트로 이동



센토사섬에 있는 번지점프대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의장 정기수의의원

센토사섬은 육로로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였다. 섬 전체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확인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시내에는 비즈니스·금융 중심 지역이라면, 센토사 섬은 완벽하게 즐기기에 위한 아이템으로 갖춰져 있었다. 펜션, 골프장, 레저 시설 등 면적은 넓지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배치해 놓았다. 우리구는 화명생태공원이라는 최적의 장소가 있다. 하천 부지라는 제약으로 개발이 어렵지만 금정산과 낙동강을 잇는 케이블카 조성, 쥘라인 설치 및 파크골프장 확장 등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한다면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이다.

(2) 부의장 김동선의의원

센토사섬은 영국군의 군사기지였다가 이후 싱가포르 정부의 계획 하에 관광단지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본섬에서 버스, 모노레일, 케이블카로 오갈 수 있는데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했다. 섬 내에는 머라이언상, 번지점프장, 루지를 타는 곳도 있어서 가족단위의 휴양지로도 적격인 것 같다. 물론 싱가포르의 주된 관광수입원이기도 하니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는 부럽게 느껴진다.

(3)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센토사섬은 1970년대까지 영국군의 군사기지였다가 이후 싱가포르 정부의 계획 하에 관광단지로 조성된 곳으로, 섬 하나가 통째로 테마파크처럼 꾸며져 있는 싱가포르 최고의 관광지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남쪽에 위치하며 아시아 최고의 인공 수족관이 있는 언더 워터 월드, 스카이 타워, 스카이라이드 등을 비롯하여 분수쇼를 볼 수 있는 음악분수, 예쁜 난꽃을 가꿔놓은 오키드 가든, 아시아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한 아시안 빌리지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판타지 아일랜드, 넓고 흰 모래사장이 펼쳐지는 센트럴 비치와 자전거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코스, 볼케이노랜드 등 센토사 섬은 ‘작은 놀이왕국’이다. 또한, 남쪽 해안에는 실로소·센트럴·탄종 해변 등의 휴양시설이 있고, 관광 명소로서 각종 해양 스포츠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함께 여러 개의 호텔과 카지노까지 들어서 있어 몇 년 전의 센토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센토사섬을 제대로 구경하려면 하루가 모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비록 정부의 계획 하에 인공적으로 관광단지로 조성되었지만 싱가포르 여행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관광지로 계속해서 손꼽히는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 아닐까?

(4)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중학의원

센토사섬은 육로나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들어갔다. 센토사섬 인근 해안에는 큰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곳이 보인다. 우리 부산의 서구에 있는 묘박지를 연상케 한다.

센토사섬은 그야말로 남녀노소 모두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청소년들이나 청춘남녀가 좋아하는 루지를 타거나 번지점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4D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으며, 밀랍인형으로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중국의 시진핑 부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을 피부색과 머리색까지 동일하게 만들어 전시해 놓고 옆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우리 부산의 관광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관광상품들이다. 우리 구에서도 센토사섬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잘 접목시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예를 들면 백양산과 화명생태공원으로 연결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낙동강의 멋진 일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것이다.

(5)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식민지시절 영국군의 군사기지였던 섬을 관광단지로 조성한 예쁜 섬이다. 본 섬에서 버스나 모노레일, 케이블카로 갈수 있는데 우리 팀은 케이블카로 센토사 섬으로 이동했다. 케이블카 밑의 광경은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고급 펜션의 모습이 보였고 긴 구간에 만들어진 아이들의 작은 보트 놀이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섬이지만 섬을 최대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서 레저시설을 잘 만든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작품이라 말하고 싶다 .

(6)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의원

금빛노을브릿지와 감동진 리버워크를 갖게 될 우리 북구.

낙동강을 중심으로 번지점프나 모노레일 음악분수 등,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해야 다리가 빛날 것이다.

이 섬에서 다시 한 번 또 느낀다.

(7)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센토사섬은 섬 하나가 통째로 테마파크처럼 꾸며져 있는 싱가포르 최고의 관광지라고 할 수 있다. 센토사섬에 위치한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가장 인기 있는 테마파크이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함께 여러 개의 호텔과 카지노까지 들어서 있어 몇 년 전의 센토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센토사섬은 각종 놀이 시설이나 대형 수족관 등 관광거리도 많지만 대형 리조트를 갖추고 있어 휴양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북구도 금정산과 낙동강이라는 천의자연 환경을 지닌 곳이다. 금정산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구개발 함으로 전국의 관광지 아니 전 세계의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8) 주민도시위원회 강광진의의원

관광 레저시설 조성,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센토사섬을 둘러보았다.

센토사섬은 섬 하나가 통째로 테마파크처럼 꾸며져 있는 싱가포르 최고의 관광지라고 할 수 있다. 센토사섬에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케이블카, 버스로 교량통행,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있다. 센토사섬에 있는 카펠라호텔은 최근에 김정은과 트럼프 회담장소로 유명하다. 우리 일행은 케이블카를 타고 들어가면서 호텔전경과 워터파크시설, 바다가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루저를 타고 동적인 스릴을 느끼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었다. 돌아올 때 리프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또 한 번 센토사섬의 전경을 볼 수 있어 좋았다. 마담투쏘 밀랍인형을 각 인물들의 체형, 피부, 머리색과

똑같이 만들어 전시해 놓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으며, 마지막으로 4D체험관에서 입체영화를 즐기고 케이블카를 타고 센토사섬을 나왔다. 센토사섬을 구경하면서 북구에도 백양산과 낙동강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모노레일,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기획하여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될 예정인 감동나루리버워크와 금빛노을브릿지를 연결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9)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싱가포르 본섬에서 남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센토사섬은 1970년대까지 영국군의 군사기지였다가 이후 싱가포르 정부의 계획 하에 가족휴양 테마파크 관광단지로 조성하였다. 센토사섬 하나가 통째로 테마파크처럼 꾸며져 있어 싱가포르 최고의 관광지라고 할 수 있다.

본섬에는 버스, 모노레일, 케이블카로 오갈 수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하버 프론트 센터에서 출발하는 케이블카이다.

센토사섬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가장 인기 있는 테마파크라고 한다. 이외에도 아시아 최고의 인공수족관이 있는 언더워터 월드, 스카이 타워, 스카이 라이드 등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섬 내에는 실로소 비치, 팔라완 비치, 머라이언상, 돌핀 라군,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버터플라이파크, 음악분수 쇼, 실로소 요새, 아티스트 빌리지 등 다양한 어트랙션이 있으며, 루지, 집라인, 번지점프, 호텔카지노 등 위락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았다. 무료 셔틀버스와 비치트레인, 모노레일로 이동할 수 있다.

우리 일행은 일요일 오후 프론트 센터에서 출발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센토사섬에 도착하여 일명 지상썰매인 루지도 타보고, 마담투쏘라는 밀랍기념관 관람과 4D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무국외연수 일정의 마지막 날에 관광지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힐링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북구도 천혜의 자연 금정산과 백양산, 낙동강과 대천천, 화명수목원, 화명생태공원 등이 있다. 이를 잘 개발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명품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10)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싱가포르 본섬에서 남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센토사 섬은 1970년대까지 영국군의 군사기지였다가 이후 싱가포르 정부의 계획아래 관광단지로 조성되었다. 센토사는 ‘평화와 고요’라는 의미로 “고요의 섬”으로도 불린다. 센토사섬에 이르는 방법은 버스를 이용하거나, 모노레일을 타거나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도착할 수 있는데 하버 프론트 센터에서 출발하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세기의 회담장소로 더욱 유명해진 곳이다. 섬 내에는 실로소 비치와 팔라완 비치 등 두 개의 해변 휴양시설이 있다. 거대한 머라이언 상과 언더워터 월드와 돌핀 라군, 이미지 오브싱가포르, 버터플라이 파크, 음악분수 쇼, 실로소 요새, 아티스트 빌리지, 밀랍인형관 등 다양한 어트랙션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흔히들 지상 썰매라고 일컫는 루지(Luge) 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센토사섬은 1970년대까지 영국군의 군사기지였지만, 싱가포르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아래 휴양시설을 위한 리조트와 인공해변을 조성하고, 도시와 섬을 연결하는 케이블카와 섬 내부를 연결하며 빼어난 경관을 둘러보고 각 체험시설들을 연결하는 내부케이블카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가운데 영국군의 군사기지의 일부를 남겨 놓아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루지 체험과 마치 살아있는 듯한 세계 유명인사의 밀랍인형을 만들어 센토사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구도 왜성 주변의 역사적 문화와 빼어난 낙동강의 낙조 경관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도입하고, 창의적인 체험시설을 도입한다면 낙후된 왜성 주변지역을 새롭게 문화관광형 도시로 개발한다면, 우리 구만의 훌륭한 역사, 문화, 관광 상품이 개발 되리라 생각된다.

(11)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지 센토사섬이다. 1970년대까지 영국군의 군사기지였다가 이후 싱가포르 정부의 계획 아래 관광단지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센토사섬으로 갈 수 있는 길은 3가지방법(버스, 모노레일, 케이블카)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본섬에 도착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루지체험을 하고, 다

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경험했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문이지만, 여전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관광객이나 인구유입을 위해서라면 역시 시설도 좋아야하겠지만, 그 속에 어떤 콘텐츠를 입히느냐가 더욱 관건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북구에서도 그 부분에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가다보면 한눈에 싱가포르의 전경이 보이고, 아래에 리조트를 즐기는 사람들, 센토사섬을 잠시 즐기다 다녀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말로만이 유명관광지가 아니라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북구를 만드는데 도시재생 및 경관사업들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12) 기획총무위원회 손분연의원

고요와 평화를 상징하는 섬이지만 케이블카, 모노레일, 워터파크등으로 또 하나의 관광명소의 섬으로 탄생시켰다.

위로는 케이블카를 타면서 아래로는 워터파크와 모노레일 등을 내려다보는 환상적인 섬이었다.

그런 점에서인지 지난번 북미정상 김정은과 트럼프회담이 이 섬에서 개최되었다.

체류의 가족섬으로 각광받는 우수 관광섬이라고 생각한다.

(13)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센토사섬은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한다. 1970년까지 영국의 군사기지였지만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으로 관광단지가 조성되었다. 싱가포르 대표 휴양지이다.

싱가포르 상징인 머라이언상을 섬 중앙에 세워 머라이언상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휴양시설 스포츠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1995년 세워진 37미터의 싱가포르 최대 크기의 머라이언상은 올해 철거될 예정이라고 한다. 낙동강 하구둑도 산책과 단순 운동 기구만 설치되어 있는데 아이들과 가족단위가 즐길 수 있는 획기적인 시설이 설치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까지 찾아올 수 있는 북구가 되길 바란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

- 센토사섬은 전체가 세계적인 휴양지이며 관광지다. 1970년대까지 영국군의 군사기지였지만 싱가포르 정부의 계획으로 관광단지로 조성되었다. 센토사섬으로 갈 수 있는 길은 3가지 방법이 있다. 즉, 버스, 모노레일, 케이블카를 타고 갈 수 있다.
-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센토사섬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번지점프, 루지, 4D 영화관, 마담투쏘라는 밀랍인형관이 있어서 미국의 오바마 전대통령을 비롯하여 중국의 시진핑 부부, 유명 영화배우, 연예인, 스포츠 선수의 밀랍인형이 만들어져 있어서 옆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족들의 휴양지로 안성맞춤인 곳이다.
- 우리 북구에도 화명수목원에서 화명생태공원까지 루지를 탈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리프트를 설치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화명생태공원에는 모노레일이나 트램을 설치해서 생태공원을 둘러 볼 수 있는 시설, 셋강 수로를 이용하여 배(곤돌라)를 탈 수 있도록 하고, 낙동강에는 요트나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드는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화를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12. 싱가포르 수변 도시재생 클락키

가. 방문지 개요

싱가포르 강 하구에 위치한 클락키(Clarke Quay)는 과거 싱가포르의 무역 중심지로, 교역을 통한 상품들을 저장해두는 물류창고 밀집지역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싱가포르 강의 오염이 심화되자 싱가포르 정부차원에서 물류사업을 타 지역으로 옮기고 환경개선 사업에 돌입하였다. 클락키 개발은 5블록에 걸친 기존의 물류창고를 철거하지 않고, 모든 건물들을 복원·개조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형형색색의 창고건물들, 수변을 따라 조성된 독특한 디자인의 테라스, 그리고 창고건물을 덮은 거대한 파고라까지, 지금의 클락키는 싱가포르 정부가 꾸준히 관리하고 개발해온 결과물로 수변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다.

사실 지금의 클락키 모습이 처음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을 때의 결과물은 아니다. 환경개선 사업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클락키 지역의 역사적인 건물을 복원하고 토지이용을 상업,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3년 클락키는 아시아 최대의 부동산회사인 캐피털랜드(Capitaland)의 소유가 되었고, 그 후 10년 뒤에 다시 한 번 클락키는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때 클락키는 본격적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 알쑥 설계사(Alsop Architects)는 클락키의 오래된 건축물 외관을 재설계하고, 싱가포르 강으로 테라스를 확장하여 새로운 강변공간을 창출하였다. 그리고 클락키 지역을 덮는 파고라를 설계하였는데, 복잡한 구조의 셰이딩 및 냉각시스템을 통한 미기후 효과의 구조물로 클락키 지역의 온도를 4도가량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클락키는 수변에서 별도의 토지이용이 없는 가로공간의 일부로, 수변공간과 인접공간에 외부활성지역(ORA)를 지정하고 임시점용허가제도(TOL)을 운영하여 수변공간의 접근성과 이용을 극대화시켰다

현재 클락키는 싱가포르에서 최고의 밤거리를 자랑한다.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더라도, 높은 파고라부터 비춰지는 불빛과 수변을 따라 화려하게 수놓아진 조명이 지역을 환하게 비춘다. 블록과 수변을 따라 전 세계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독특한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대부



클락키 주변의 야경

분의 레스토랑은 야외 테이블을 갖추고 있어 강변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노후된 건물의 외관을 리모델링하여 클락키 거리만의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클락키는 싱가포르의 나이트 스폿이라 불릴 정도로 클럽과 펍이 밀집하였는데, 가게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이 펼쳐지며 전 세계의 젊은이들과 관광객이 붐빈다.

또한 클락키는 싱가포르의 화려한 수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수상관광수단인 리버크루즈(RiverCruze)를 이용하는 선착장이 연결되어 있어, 보트키(Boat Quay), 마리나 베이(Marina bay) 등 유명 관광명소와 접근이 용이하다. 결과적으로 클락키는 2008년 아시아 베스트 워터프론트 개발(Cityscape Asia Awards, Best Waterfront Development in 2008)의 영광을 누렸으며, 연간 1,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싱가포르의 대표 관광명소가 되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강을 중심으로 로버슨키(Robertson Quay), 보트키(Boat Quay) 등 지역도 과거 이주민 사무실, 낙후 주거지, 창고 지역이 쇼핑, 식당, 전시, 주거 등의 여러 용도로 새롭게 재탄생한 사례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며, 도시 내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연간 1,400만명(2014년 기준)이 방문하는 이 관광도시는 여전히 발전 중이며, 수변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클락키 주변의 교량 야간 경관 조명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의장 정기수의원

클락키 지역은 밤의 야경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 과거 물류창고 밀집지역으로 강의 오염이 심해지자 정부차원에서 관리하여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 내었다. 종합적 계획 아래 수변지역 재생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강변 공간을 창출하여 사람이 즐길 수 있게 만든 것이 눈에 띄었다. 블록과 수변을 따라 늘어진 화려한 조명과 맛집, 다양한 상점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고 모여

들게 만들었다. 또한 오랜 노력으로 수질을 개선하여 수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리버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야경을 선상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도시의 매력에 빠지게 만들게 한다. 우리구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과 앞으로 조성될 브릿지와 구포역 광장의 경관 조명 등 외에도 수변 레스토랑 입점 등 수변을 중심으로 집중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2) 부의장 김동선의원

클락키는 싱가포르에서 밤의 명소이다. 수변에 비춰지는 형형색색의 불빛과 수변을 따라 화려하게 수놓아진 조명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 수변을 따라 전 세계의 음식을 맛 볼수 있는 레스토랑은 야외 테이블을 갖추고 있어 강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 더 플러튼 헤리티지까지 수상관광수단인 리버 크루즈를 이용하여 배를 타고 가며 수상에서 싱가포르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것도 참으로 멋지다.

(3)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싱가포르 강 하구에 위치한 클락키는 과거 싱가포르의 무역 중심지로, 교역을 통한 상품들을 저장해두는 물류창고 밀집 지역이었으나 1970년대부터 강의 오염이 심화되자 정부차원에서 물류사업을 타 지역으로 옮기고 환경개선 사업에 돌입하였다. 기존의 물류창고를 철거하지 않고 모든 건물들을 복원·개조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형형색색의 창고건물들, 수변을 따라 조성된 독특한 디자인의 테라스, 창고건물을 덮은 거대한 파고라까지, 지금의 클락키는 싱가포르 정부가 꾸준히 관리하고 개발해 온 결과물로 수변 도시재생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멋진 야경을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한 클락키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구로서는 본보기로 삼기 좋은 예라 할 것이다.

(4)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의원

클락키는 싱가포르에서 최고의 밤거리를 자랑하는 곳이다. 인근에서 저녁을 먹고 수변을 따라 내려오니 유람선을 타는 곳이 있다. 주변은 식당과 맥주와 차를 파는 카페 등이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클락키 주변은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시설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밤에는 높은 파고라로 부터 비춰지는 불빛과 수변을 따라 화려하게 수놓아진 조명이 지역을 환하게 비추고, 야외테이블에서 강변의 정취를 느끼며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한다.

이곳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은 더 플러튼 헤리티지까지 왕복하는 코스로 머라이언상을 비롯한 호텔들이 늘어서 있는 멋진 수변공간의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싱가포르의 관광수입을 올리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북구도 감동진 나룻터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강 마리나 사업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5)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싱가포르 강 하구에 위치한 클락키는 과거 싱가포르의 무역중심지로 교역을 통한 상품들을 저장하는 물류창고 밀집 지역이었다. 싱가포르 강의 오염이 심화되자 정부차원에서 물류사업을 타 지역으로 옮기고 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하였다. 물류창고를 철거하지 않고 복원, 개조하여 지금의 아름다운 수변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오래된 건축물 외관을 재설계하고 싱가포르 강으로 테라스를 확장하여 새로운 강변공간을 만들고 수변공간과 인접공간에 외부활성지역을 지정하고 임시점용허가 제도를 운영하여 수변공간의 접근성과 이용을 극대화시키고 싱가포르 정부가 꾸준히 관리하고 개발해온 결과로 수변 도시재생에 성공하였다. 수변을 따라 비추는 조명이 화려함을 과시하고 전 세계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과 상점에는 관광객이 북적인다.

수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수상관광수단인 리버크루즈를 이용하는 선착장이 연결되어 있어 보트키, 마리나베이 등 유명관광명소와도 접근을 쉽도록 했기에 연간 1,2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싱가포르의 대표 관광명소가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6)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의원

싱가포르 최고의 밤거리 클락키. 수려한 낙동강을 가지고 있는 북구.

야간 수상관광은 흥분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강변을 따라 상가들이 즐비하고 배위에서 야경을 즐기고 경치에 취해, 내려와선 또 한 잔의 술에 젖게 만든다. 해운대 바다경관을 벤치마킹한듯하다.

우리 북구도 유람선을 띄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듯하다

(7)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싱가포르 강 하구에 위치한 클락키는 과거 싱가포르의 무역 중심지로, 교역을 통한 상품들을 저장해두는 물류창고 밀집지역 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부터 싱가포르강의 오염이 심화되자 정부차원에서 물류사업을 타 지역으로 옮기고 환경개선 사업에 돌입하였다. 클락키 개발은 5블럭에 걸친 기존의 물류창고를 철거 하지 않고, 복원. 개조하여 형형색색의 건물들, 수변을 따라 조성된 독특한 디자인의 테라스, 그리고 창고건물을 덮은 거대한 파고라 까지, 지금의 클락키는 싱가포르 정부가 꾸준히 관리하고 개발해온 결과물로 수변도시재생의 대표 사례이다. 당시 알숍 설계사는 건축물 외관을 재설계하고, 싱가포르 강으로 테라스를 확장하여 새로운 강변공원을 창출하였다. 또한, 클락키는 수변공원에서 별도의 토지이용이 없는 가로공간의 일부로, 수변공간과 인접공간에 외부활성지역을 지정하고 임시점용 허가제도를 운영하여 수변공간의 접근성과 이용을 극대화 시켰다. 우리 북구도 낙동강과 화명 생태공원을 잇는 금빛노을브릿지와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다리건설을 추진하는데 철저한 준비와 설계를 통해 관리, 접근성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8) 주민도시위원회 강광진의원

클락키는 “싱가포르의 강” 을 끼고 있는 곳인데요.

싱가포르 강을 따라서 이동하는 보트를 탈 수 있는 곳이면서, 다양한 음식점과 술집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싱가포르의 변화가 중의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싱가포르의 클락키는 특히 “멋진 야경” 을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싱가포르 강을 따라서 부두가 발달하고 상점이 발달한 모습 자체에서 제법 멋진 분위기를 뽐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강을 따라서 시원한 강바람이 계속

해서 불어오는 곳이기에, 주변을 둘러보면, 클락키 주변의 강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북구는 지리적으로 낙동강을 접하고 있었으므로 대동까지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통선을 운행하였고, 구포역 앞 강에 선창을 설치하여 고기잡이배와 뗏목 등을 정박해 놓는 시설이 있었으며, 둔치에는 밤에는 포장마차가 수십여 점포가 장사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면서 강문화의 정서를 즐기던 곳이었으나 도시전철역이 강쪽에 설치되고 예전 선창에는 강변도로가 설치되어 현재에는 옛 정취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번 클락키를 보고 느낀 점은 북구도 낙동강을 접하고 있으므로 우선 강정화사업을 실시하여 강의 수질과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선착장을 설치하여 현재 4개의 교량과 앞으로 설치될 감동나루길 리버워크와 금빛노을브릿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유람선을 운행하고, 강둔치에 현대식 포장마차, 푸드트럭을 운영한다면 한다면 충분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공무국외연수 마지막 일정으로 싱가포르 수변 도시재생 클락키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면서 유람선으로 관람을 하였다.

싱가포르 강 하구에 위치한 클락키(Clarke Quay)는 싱가포르 리버사이드에 자리한 유서 깊은 명소이며, 과거 거룻배가 드나들던 중요한 항구였고, 싱가포르의 무역 중심지로 교역을 통한 상품들을 저장해두는 물류창고 밀집 지역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싱가포르 강의 오염이 심화되자 싱가포르 정부차원에서 물류사업을 타 지역으로 옮기고 환경개선사업에 돌입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클락키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옛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곡물과 향신료 등을 저장하던 창고를 복원한 건물에는 다섯 구획에 걸쳐 골동품을 파는 상점과 레스토랑, 노천카페 등이 들어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특별한 풍경을 이룬다.

형형색색의 창고 건물들, 수변을 따라 조성된 독특한 디자인의 테라스 그리고 창고 건물을 덮은 거대한 파고라까지 지금의 클락키는 싱가포르 정부가 꾸준히 관리하고 개발해온 결과물로 수변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강변에 위치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싱가포르 강이 흐르는 야경과 더불어 근사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더 유명하다. 클락키에 위치한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야외 테이블을 갖추고 있어 강변의 정취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유람선을 타고 클락키 주변은 물론 싱가포르 강 하구까지 야경을 관람하았는데, 싱가포르 역사와 함께하는 강의 야경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옛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특별한 풍경을 이루어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킨 싱가포르 정부의 재개발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북구도 화명대교나 금빛노을브릿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 금곡동에서 구포까지 낙동강변에 있는 아파트 벽면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면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질 것이며, 야간에 낙동강에 유람선까지 띄우면 더욱 멋진 장관이 연출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0)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싱가포르 강 하구에 위치한 클락키(Clake Quay)는 과거 싱가포르 무역의 중심지로, 교역을 통한 상품 등을 저장해두는 물류창고 밀집지역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싱가포르강의 오염이 심화되자 정부차원에서 물류사업을 타 지역으로 옮기고 환경개선 사업에 돌입하였다.

클락키(Clake Quay) 개발은 기존의 물류창고를 철거하지 않고, 모든 건물을 복원·개조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형형색색의 창고건물들, 수변을 따라 조성된 독특한 디자인의 테라스와 창고건물을 덮는 거대한 파고라까지 지금의 클락키(Clake Quay)는 싱가포르 정부가 꾸준히 관리하고 개발해 온 결과물로 수변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의 클락키(Clake Quay)는 싱가포르에서 최고의 밤거리를 자랑한다.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면 높은 파고라에서 비춰지는 형형색색 변하는 불빛과 수변을 따라 화려하게 수놓아진 조명이 강변을 환하게 비춘다. 블록과 수변을 따라 전 세계의 음식도 맛 볼수 있는 레스토랑은 야외 테이블을 갖추고 있어 강변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노후된 건물의 외관을 리모델링하여

클락키(Clake Quay) 거리만의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클락키(Clake Quay)는 싱가포르의 나이트스팟이라 불릴 정도로 클럽과 펍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가게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이 펼쳐지며 전 세계의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또한 클락키(Clake Quay)는 싱가포르의 화려한 수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수상관광수단인 리버 크루즈(River Cruze)를 이용하여 보트키(Boat Quay), 마리나베이(Marina Bay)등 유명 관광명소의 화려한 야경을 관람할 수 있다. 클락키(Clake Quay)는 2008년 아시아 베스트 워터프론트 개발(Cityscape Asia Awards, Best Waterfront Development in 2008)의 영광을 누렸으며, 연간 1,2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싱가포르의 대표 관광명소가 되었다.

싱가포르 최대의 관광명소처럼 우리 구도 구포시장을 중심으로 금빛노을브릿지와 감동나룻길 리버워크를 잘 개발하고 낙동강을 따라 이어지는 감동진나루터와 화명 생태공원을 잇는 강변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한다면 우리 구만의 강점을 살린 멋진 경관구역이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고,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함께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1)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싱가포르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 싱가포르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이곳을 보지 않고 싱가포르를 이야기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싱가포르 무역의 중심지였지만 강의 오염 등의 심화로 정부차원에서 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했다고하는데, 옛 모습은 즉 기존의 물류창고 등 건물들을 복원 개조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손색없는 관광지로 변화한 것이다. 클락키를 통해 수상관광수단인 리버보트를 탑승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리버보트를 탑승하려면 클락키를 방문해야 하고 클락키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리버보트를 탑승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다. 도시 내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싱가포르 사례를 접하면서, 역시 건물을 짓고 다리를 한 두 개 더 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콘텐츠의 다양화... 그 속에 조화로움... 이러한 것들이 모

두 하나로 융합되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한창인 북구도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조화롭게 접목을 시키고 사업에 녹아내야할지를 더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12) 기획총무위원회 손분연의원

클락키 주변은 어둠이 내리는 저녁시간 때에는 주변상권의 먹거리 시장과 유람선운행으로 수입창출과 야경을 즐기게 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이 좋게 보이지 않고, 안전 무의식으로 구멍조끼를 착용하게 하지 않는 것은 옥의 티로 위험을 안고 있으며, 선진국 싱가포르에서까지 이런 시스템에 실망했고, 세계적으로도 문제로 보인다.

(13)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1970년대 무역 중심지였던 클락키는 그 당시의 건축물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싱가포르 무역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지역이었다. 1970년대 급격한 도시 성장과 개발은 지역을 오염시키기 시작 하였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지역을 오염시키는 공장 이전은 물론 무분별한 건설은 지양하면서, 환경을 지키며 건축 리모델링과 에코 정책을 통해 자연을 지키고 있다. 현재, 클락키는 다양한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식당가로 입소문 퍼지면서, 세계 각국의 미식가들을 불러 모일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재탄생 할 수 있었다. 무분별한 건설로 환경오염을 유발 시키는 관광지가 아닌 클락키와 같은 친환경적인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지역에 조합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음식 문화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구포수변공원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조성

- 북구 비전 2030발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구포수변공원 조성은 감동진 나루터, 수상레저 시설 확보, 낙동강 브릿지 파크(강서구 대저~북구 구포를 잇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낙동강 전망대와 휴식공간을 조성)를 연계한 체험형 수변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
- 구포수변공원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인근지역의 수상레저시설과 휴식공간을 연계하여 수변공원에는 캠핑장을 비롯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길,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레저스포츠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 구포수변공원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을 잘 조성 한다면 싱가포르의 클락키와 같은 관광벨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방문] 야시장(대만: 라오허제, 스린, 싱가포르: 라우파삿)

가. 방문지 개요

대만의 라오허제 야시장과 스린 야시장은 야시장의 천국 타이완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인기 명소이다. 오후 6시에 장이 열리면, 보통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한다. 지파이, 굴전, 게 튀김, 대왕 오징어튀김 등 시장 먹거리가 유명하다. 평균기온이 20도가 넘고 유독 여름이 길어, 더위를 피하고자 해가 진 후, 저녁에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야시장이 발달한 이유이다.

대만 여행에서 가장 즐거운 것 중의 하나가 야시장의 포장마차 구경이다. 저녁이 되면 하나 둘씩 점포가 들어서서 6시를 넘으면 거리는 점포로 꽉 차게 된다. 색색의 진귀한 대만 과일, 신선한 어패류, 중국 구두 등을 보면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잠겨서 흥분하게 된다. 몇 년 동안 정부가 거리에 있는 점포에 대해 정비 계획을 권유하여 얼마 전부터는 균형 있게 정비되었다. 외화 보유율 세계 제1위의 파워와는 달리 서민들의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리이다. 밤이 되면 떠들썩한 분위기가 무르익는 곳이다.

싱가포르의 라우파삿 야시장은 옛날 시장(Old Market)이라는 뜻을 가진 팔각형의 라우파삿 페스티벌 마켓은 사테로 유명하다. 평일 저녁부터 라우파삿 페스티벌 마켓 옆 분탄 스트리트에는 도로를 통제해 채 거대한 사테 노점상이 열린다. 맥주와 함께 사테를 즐기기에 여행객들은 물론 근처 직장인들 역시 퇴근 후 즐겨 찾는다고. 사테가 아니더라도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24시간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으니 주머니가 가벼운 여행객들이라면 이곳에서 한 끼를 해결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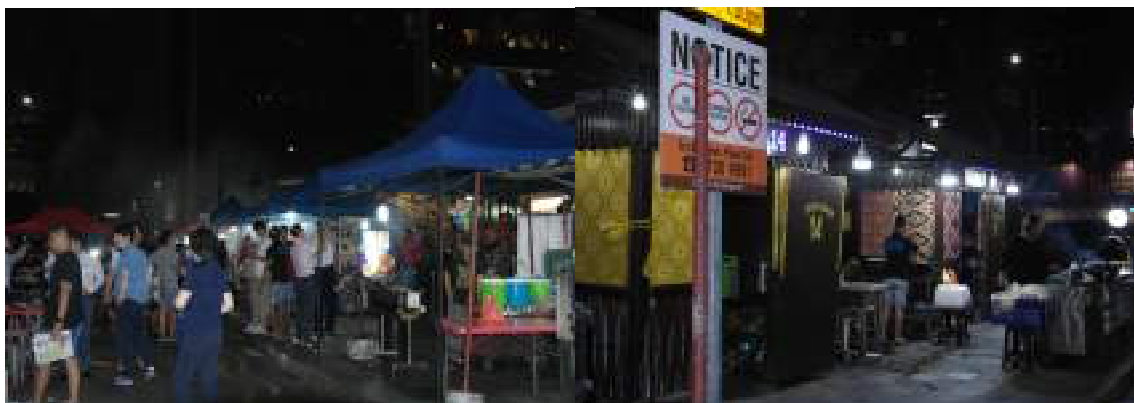




대만의 스린 야시장과 라오허제 야시장



고층빌딩에 둘러싸인 싱가포르 라우파삿 야시장(차량 출입 통제)



싱가포르 라우파삿 야시장에 들어선 포장마차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의장 정기수의원

구포 가축시장 폐쇄를 계기로 향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금번 국외 출장에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야시장을 견학하게 되었다. 총 세 군대를 다녀왔는데 대만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로 사람들이 매우 붐비었고 싱가포르에서는 일정 시간이 되면 게릴라처럼 야시장이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대도시 빌딩 아래에 이색적인 풍경이 벌어지는 것이 인상 깊었다. 구포 가축시장은 부지가 협소한 편이므로 싱가포르 모델이 우리 실정에 맞을 것 같다. 저녁시간에 경쟁력 있는 야시장이 형성되어 구포시장을 방문하는 주민이나 인근 젊음의 거리에서 쇼핑하는 청년층을 흡수하여 사람이 돌게 하면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것이다.

(2) 부의장 김동선의원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라오파샷 야시장은 저녁 7시 이후가 되면 수십 가지의 음식이 있지만 그중 꼬지구이라는 점포가 열리면서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로 대단히 인상적이다.

저녁시간이 되면 한 차선을 막고 포장마차식의 가게들이 하나 두 개 생겨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우리 북구의 전통시장도 먹거리 구경거리등 여러 가지 볼거리를 조성하여 세계 각국의 야시장처럼 부산의 대표적인 야시장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대만과 싱가포르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야시장이 발달한 것 같다. 대만의 야시장은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의 한복판에 푸드마차를 비롯하여 각종 악세사리 등을 파는 곳이 들어서 있어서 그렇게 낯설지 않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저녁이 되면 차량을 통제하고 도로 한복판에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끼지구이 등을 파는 곳을 만들어 두었다. 우리 부산에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야시장이 들어서 성업을 이루고 있는 부평동 야시장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 구의 구포가축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구포 야시장을 기획해 보는 것은 어떨지 깊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4)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의원

대만의 라오허제 야시장과 스린 야시장은 야시장의 천국 대만에서 비교적 큰 규모다. 오후 6시에 장이 열리면, 보통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굴전, 게 튀김, 대왕 오징어튀김, 과일 등 시장 먹거리가 유명하다. 평균기온이 20도가 넘고 유난히 여름이 길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가 진 후, 저녁에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야시장이 발달한 이유라고 한다.

싱가포르의 라오파삿 야시장은 예전 어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고층빌딩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그곳에서 저녁 7시가 지나면 도로위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푸드 트럭이나 포장마차가 들어서서 꼬치구이를 비롯한 술안주 등을 팔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야시장이다.

우리 구의 구포시장, 젊음의 거리, 구포 만세거리와 구포역을 잇는 야시장을 만들면 상권 활성화와 관광자원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5)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저녁이 되면 하나둘씩 점포가 들어서서 6시가 지나면 거리는 점포로 꽉차게 된다는 라오허제 야시장 방문했다.

소문대로 수많은 점포에 형형색색 과일과 다양한 먹거리 상품에 놀라웠고 점포마다 겹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가 신기하고 구름처럼 몰려드는 인파에 들뜬 기분을 감출수가 없었다. 몇 번에 걸쳐 정부가 거리에 있는 점포에 대해 정비계획을 세워 깨끗하고 균형 있게 정비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야시장이 발달하여 문화로 자리 잡고 밤이 되면 현지인들의 삶의 모습과 야식문화와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밤의 분위기로 떠들썩한 곳이었다.

스린 야시장은 천국 타이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인기 명소이다. 오후 6시에 장이 열리면 새벽3시까지 열린다고 하니 대만은 유독 여름이 긴 탓이 아닐까?

더위를 피하고자 해가 진후인 저녁에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야시장이 발달

한 이유라고 한다. 타이완 사람들은 저녁식사를 대부분 바깥에서 해결한다고 한다. 타이완의 야시장 풍경을 보면 타이완의 문화로 발전되어 자리를 잡았다. 우리 북구는 야시장이 필요할까? 한다면 어디에~ 라는 마음속의 물음표를 던지며 시장을 나왔다.

싱가포르의 라오파삿 야시장은 평일저녁부터 도로를 일부 통제한 후 주위의 가게들도 함께 하면서 거대한 노점상형태의 야시장이 펼쳐졌다. 맥주와 사테를 즐기기 위해 근처 직장인들이 찾는 곳이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야시장속에서 한국말로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에 한국 여행객도 많이 찾는 곳임을 알 수 있었고, 색다른 모습의 야시장이었다. 우리북구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발걸음을 옮겼다.

(6)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의원

외식을 밥 먹듯이 하는 중국문화. 그래서인지 곳곳에 야시장이 형성되어있다. 관광객까지 합류하여 인파가 부러움을 산다. 구포시장도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타이페이에서 이틀 동안 두 곳의 야시장을 둘러봤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초저녁부터 곳곳에 긴 줄이 만들어져있다. 각각의 코너 마다 깔끔하게 준비가 잘되어있고 점포주들도 원칙을 잘 지키며, 일하는 듯 보여 진다.

열대과일이 풍부한곳이라 과일주스가 제일 많은듯하다. 우리일행도 여러 가지 열대과일과 튀김요리 등을 맛보았다. 엄지척 올려 주고 싶은 맛. 장사가 잘되는 곳은 세금도 낸다하니 우리 구포시장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리라.

(7)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싱가포르에는 라오파삿 야시장은 신도시 중심 한복판에 주말에 일방통행로의 도로를 막고 도로위에 야시장을 세워 즐길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북적되는 야시장은 사람 사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곳이다. 싱가포르는 치안이 잘된 국가로 밤늦도록 다녀도 별탈이 없는 곳이며 먹을거리에 나쁜 성분을 넣으면 태형에 처할 정도로

먹거리에 세심하게 신경 쓰는 나라이기에 무얼 먹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시장입구에 들어서자 열대과일은 물론이고 먹을거리도 즐비해 역시 싱가포르를 소비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북구 시장과 별 차이 없이 거리감 없는 음식을 파는 곳이라 이런 저런 냄새로 인해 모기들이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모기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는 것이다.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한사람이 휴지를 버리면 세 사람이 청소 할 정도로 깨끗한 나라라고 한다. 우리 북구도 구포시장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야시장을 벤처 마킹은 물론 구포시장의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8) 주민도시위원회 강광진의원

랴오허제 야시장은 입구에 큰 도교사원이 위치해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고, 시장 가게 중앙에 포장마차를 설치해서 즉석음식을 조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 판매음식은 신선한 과일, 각종 고기, 생선류, 어패류 등 각각 다르고 다양해서 보는 사람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스린 야시장은 일반가게들에서 각종 즉석요리음식과 각종 오락게임장 등 영업을 하고 있어 그 규모가 랴오허제 야시장보다 더 크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었다. 싱가포르에 가서도 저녁에 라우파삿 야시장을 잠깐 구경하였는데 도로를 양쪽으로 막아서 차량 진입을 막고 의자, 테이블을 설치하여 즉석에서 연기를 피우며 구워내는 꼬치구이인 사테와 주류를 함께 먹을 수 있는 특색 있는 곳이다. 북구의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사업에 대만, 싱가포르 야시장을 벤치마킹한다면 북구 구포시장과 덕천상가를 연결하여 주변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9)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옛날 시장(Old Market)이라는 뜻을 가진 팔각형의 라우파삿 페스티벌 마켓은 사테로 유명하다.

평일 저녁부터 라우파삿 페스티벌 마켓 옆 분탄 스트리트에는 도로를 통제 한 채 거대한 사테 노점상이 열린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저녁 7시부터 새벽3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도로를 통제한다는 안내표지판을 볼 수 있었다. 맥주와 함께 사테를 즐기기 위해 여행객들은 물론 근처 직장인들도 퇴근 후 즐겨 찾는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토요일 저녁에 견학하였는데, 한국인의 입맛에 제일 잘 맞는다는 7, 8번 테이블의 손님 중 절반이 한국인은 여행객으로 보이며, 이곳의 메뉴판에는 세트 A 가격은 26싱가포르달러로 메뉴는 닭고기 10꼬치, 양고기/소고기 10꼬치, 새우 6꼬치이며, 세트 B 가격은 41싱가포르달러로 메뉴는 닭고기 15꼬치, 양고기/소고기 15꼬치, 새우 10꼬치이며, 세트 C 가격은 65싱가포르달러로 메뉴는 닭고기 25꼬치, 양고기/소고기 25꼬치, 새우 15꼬치이며, 세트 D 가격은 96싱가포르달러로 메뉴는 닭고기 40꼬치, 양고기/소고기 40꼬치, 새우 20꼬치이며, 세트 E 가격은 130싱가포르달러로 메뉴는 닭고기 50꼬치, 양고기/소고기 50꼬치, 새우 30꼬치이며, 세트 F 가격은 185싱가포르달러로 메뉴는 닭고기 75꼬치, 양고기/소고기 75꼬치, 새우 40꼬치이다.

저녁식사 후에 견학을 하였기에 특별히 맛을 보지는 못했지만 길이가 약 70~80미터, 넓이가 약 20미터 정도 보이는 공간의 도로에 노점상들이 즐비해 있으며, 많은 손님들로 인해 활력이 넘쳐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 같았다.

이곳은 싱가포르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점포의 임대는 공개입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우리도 금곡이나 만덕의 차량소통이 적은 도로에 라우파삿 야시장처럼 저녁에 차량을 통제하고 야시장 거리를 조성하면 새로운 먹거리 문화와 함께 지역 경제도 살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10)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대만은 화시지예(華西街), 스린(士林), 라오허제(饒河街), 닝시아(寧夏), 사대(師大), 공관(公館), 루이핑 등 그 지방의 특색을 담은 크고 작은 7개의 유명한 야시장(夜市場)이 있다. 그야말로 대만은 ‘야시장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중에서도 스린(士林)야시장은 야시장의 천국 대만에서도 매우 큰 규모를

자랑한다. 오후 6시에 장이 열리면 보통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한다. 평균기온이 20도가 훨씬 넘고 유독 여름이 길어 해가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고자 집밖으로 활동하면서 야시장이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야시장에서는 지파이, 굴전, 게 튀김, 대왕오징어 튀김, 치즈 감자튀김 등 점포마다 다른 상품으로 현지인들과 야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롭고, 이색적인 볼거리와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인형뽑기를 비롯한 간단한 게임도 즐길 수 있도록 떠들썩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그야말로 옛날 조선시대 저잣거리 난전(亂塵)을 형성한 것처럼 시끌벅적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다.

싱가포르의 라우파삿 야시장은 옛날 시장(Old Market)이라는 뜻을 가진 팔각형의 페스티벌 마켓으로 사테(꼬치구이)로 유명한 곳이다. 원래 이곳은 처음엔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개발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주변에 상업시설과 금융기관 등이 생겨나면서 수산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팔각형태의 건물을 허물고 고층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였으나, 싱가포르 정부에서 건물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전하고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도시재생형 페스티벌 상설 시장으로 개발되어 새로운 관광상품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저녁에는 라우파삿 페스티벌 마켓과 함께 바로 옆 분탄 스트리트에는 도로를 막아 거대한 사테(꼬치구이) 노점상이 열린다. 퇴근 후 직장인들과 연인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 라우파삿 야시장 어우러져 시원한 맥주와 사테를 즐기며 거대한 축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야간에 사테가 아니더라도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고, 주머니가 가벼운 알뜰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는 곳으로 유명하다.

우리 구에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400년 전통의 구포시장을 중심으로 한 좌우에 3.1만세운동과 구포국수 거리등의 역사테마거리와 ‘젊음의 거리’가 함께 자리 잡고 있어 이러한 장점을 잘 엮을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연결한다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 매개체의 중심에 야시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구포시장 동문에서 폐쇄된 구포가축시장까지의 거리를 잘 활용하여 우리만

의 특색이 있는 전통음식과 이색적인 외국의 다양한 음식과 악세서리 판매와 이색적인 체험부스를 다양한 거리 예술, 공연등과 어우러진다면 새로운 관광의 메카 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대만의 야시장과 싱가포르의 야시장을 특색이 달랐다. 특히 대만은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았다. 다양한 먹거리 중에는 중목되는 메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해서 즐기러 온 관광객을 매료시킬 만 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위생상 관리는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도 그들의 문화라고 생각했고, 역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들이 그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다.

싱가포르의 야시장은 일방통행로를 막아 꼬치구이전문점으로 만들어져 있어 한국의 포장마차 거리를 연상케 했다. 꼬치거리의 특성은 좋았으나, 상인들이 고객을 유치하려는 상행위는 손님 입장에서는 불편함도 있었다. 대만과 싱가포르의 야시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북구에 벤치마킹할 부분은 물론 야시장이 개설되면 지역경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상가를 가진 분들과의 협의, 그리고 메뉴의 다양화, 볼거리, 즐길 거리를 얼마나 조화롭게 하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12) 기획총무위원회 손분연의원

우리 북구에서는 많은 전통시장이 있지만 타이페이의 시장 활성화와 관광수입원의 야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볼 때, 우리 구에서는 구포개시장 철거 후에 현대화 사업 시 접목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한다.

현재 북구의 도시재생 공모사업도 준비 중에 있지만, 보여주기식의 도로와 주차장, 체육시설등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간판개선보다는 실내시설 지원이 더 절실하고 주택, 상권 모두 안과 밖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는 보이는 곳을 먼저하고 보이지 않는 곳은 차후에 처리하는 경향이 다수 있는 것 같아 아쉽다.

(13)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타이완에서 가장 큰 야시장으로만 듣고 직접 보니 규모가 남다른 했다. 야시장을 많이 다녀 본 것은 아니지만 쾌적해 구경하기 좋았고 스린 야시장은 먹거리가 많았다. 또한 각종 오락거리, 공산품 등 전 계층을 아울러 끌어들이는 다양한 요인이 많았다.

동남아는 여름이 길어 저녁 활동이 활발해 진 것이 자연스럽게 야시장이 발달 한 이유인데 우리나라도 여름이 길어지고 있어 우리 구를 대표하는 구포시장을 늦은 시간까지 개방하고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야시장을 개설한다면 구포시장 일대의 상권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구포가축시장 일원에 야시장 신설 모색

- 구포가축시장은 6.25 전쟁 이후 처음 생겨나 전국 최대 규모의 개시장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지난 해 말부터 구포개시장의 업종전환에 대한 조건부 동의서를 받고, 폐업논의 끝에 총사업비 199억원으로 하는 구포가축시장 정비계획을 추진하게 되어 구포시장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소공원 및 공공용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과 함께 이 일대에 야시장을 신설하게 되면 젊음의 거리에 있는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서 구포시장을 비롯한 구포, 덕천동 일원의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대만의 야시장처럼 전통시장의 가운데에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구포시장에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며, 싱가포르 야시장처럼 만세거리나 구포역 일원, 젊음의 거리 등에도 차량을 통제하고 야시장을 만드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구포가축시장 일원에 야시장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점포를 가진 상인들과의 갈등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업화된 포장마차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대만이나 싱가포르처럼 기온이 20도 이상 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는 추워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여름 장마철에는 장기간 운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등 기후 조건도 잘 고려해야 한다.
대만의 야시장의 경우에는 음식 메뉴나 파는 물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볼거리도 많았는데, 이러한 업종선택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구포시장 내 빈점포의 증가와 상인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청년몰, 청년푸드트럭존 등으로 조성된 구포야시장은 구포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넣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편 결론

지난 10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야시장을 비롯한 도시재생, 공원관리 등,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대만과 싱가포르의 주요지역을 선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돌아 왔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경험함으로써, 세계화 마인드 제고 및 선진 의정활동을 위한 의식을 함양하고, 글로벌 국제화 시대에 외국의 도시개발 전략과 문화·제도 및 교통·도시·관광분야 등의 시설 및 운영실태 견학을 통하여, 우리의 실정과 비교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모색과 벤치마킹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이번 연수단은 의원 14명 전원과 직원 6명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식방문 기관(지역) 3개소, 비공식방문기관(지역) 9개소를 비롯한 총 12곳의 도시재생지역 및 공원관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특히 대만과 싱가포르의 야시장을 방문하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접목시킬 야시장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였으며, 그밖에 교통체계를 비롯한 도시·환경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번 연수는 작년에 이어 의원 개인별로 대만과 싱가포르의 주요방문지에서 느낀 점과 우리 구에 접목시킬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매일 분임토의하고 그 결과를 작성토록 하여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수였다고 생각한다.

5박 6일간의 고된 일정 속에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보람된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매일 아침 방문지에 대한 주요 착안사항을 토의한 후 일정을 시작

[붙임자료]

1. 방문지 녹취 자료

[주] 녹취 자료는 방문지에서 통역이나, 이동시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임.

10월 2일(타이페이시청 도시재개발국)

저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여기 도시개발 보전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어떻게 발전하는 건지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도시를 대노선 거리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는 테페(도시이름)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한약자재 도매상이 많은 약재골목이 많고 새로운 문화분야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옛날 건물과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분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대도성(도시이름)에 대해 설명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변화를 시킬 건지 알려드릴 것이고 설명 드리고 그다음 토론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는 산이 있고 강이 2개 흐르고 있어요. 265만 명이 있습니다. 타이페이시 크기는 272Km²입니다. 여기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옛날 청나라 때 도시 모습입니다. 타이페이가 거의 강 옆에 건물이 있고요. 일제시대 때 도시계획을 세워서 서서히 발전해 나갑니다. 1970년부터 1980년대 갑자기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시기라 도시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옆으로 도시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거의 도시가 대도성으로 시작했지만 동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길거리 산을 한번 볼게요. 원래 옆에 강을 보셨잖아요. 강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항구로 운송을 많이 했으니까 항구나 배를 볼 수 있지요. 일제시대 때부터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도 일제 때 발전하기 전에 대만에 태풍이 많이 오니까 훼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부분 건물들을 수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수해방지를 위해 저런 식으로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건물이 하나씩 들어서면서 옆으로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뒤에 전신주도 보이고요. 여기서부터는 건

물을 지으려고 하면 규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대부분 돈 많고 장사하는 밀집지역이 이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건물형태가 바뀝니다. 건물이 많이 들어선 이유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면서 도로도 넓혀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도로계획 때문에 중간에 집들을 많이 없었습니다. 1988년부터 정식으로 여기를 도로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으로 좁은 길은 건물을 다 헐었습니다. 많이 훼손되다 보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이런 길을 보존하고 싶어서 기금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보존할 가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같이 세웠습니다. 여기 거리에 있는 건물들의 특색을 알려드리면 일반건물들보다 좁게 만들었고요. 입구를 작게 만들고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어요. 높이는 그때 규정이 있어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요. 여기는 중국의 남쪽 민난 지역에 있는 풍습인 빨간 벽돌을 많이 썼습니다. 현대 건축과 결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현대식도 있고 옛날식으로 지은 것도 있고 조금씩은 달라요. 크게 침체되어 있어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옵니다. 여기를 발전시켜서 옛날보다 잘 살수있게 개발했어요. 사진에 보이는 이 자리 건물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927년에 병원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2000년에 여기를 고유재산으로 나라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여기 집 주인이 3대째 있는 분이 타이페이시에 2000년에 기증했어요. 2007년에 내부 리모델링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대도성이라는 구입니다. 보존되어 있는 건물은 91채가 있어요. 신식건물은 110채가 있고요. 도시계획을 설명드릴게요. 도시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많이 알리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발전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6가지 단계가 있어요. 얼마나 훼손시키지 않고 발전시키는지,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발전시키는 계획을 세울 것이고, 노후된 환경을 새롭게 개선을 할 겁니다. 최고 변화를 시키는 목적을 알릴 것이고 이 동네 사람들 중에는 옛날 건물을 많이 기증해서 발전시킬 수 있었다. 2010년에 11채 기증을 받았다. 대도성에 보면 4분류로 나눈다. 길거리에 번호를 붙인다. 길을 숫자로 표기했다. 27번가 쪽을 보겠다. 27번가에 있는 가게들은 집중적으로 영구개발하는 곳이다. 여기서부터 역으로 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곳이다. 127번가를 보겠다. 주택하고 가게를 겸용해서 할 수 있게 변형했다. 155번가 길을 보면 한약재를 만들어 파는

곳이다. 320번가 도로는 대부분 쌀 관련된 가게들이 있다. 이번에 여기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말하시라. 대만사람들은 잘한다고 찍어주면 도움이 많이 된다. 조금 있다가 이 자료를 드리겠다. 도시개발을 위해서 같이 연구하는 학생들 시간표다. 녹색지역을 강조하는 녹색생활을 강조하고 있고요. 찍어서 좋다고 올려주시고요. 여기도 있다가 다 드리면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보시면 된다. 좋다고 눌러주면 고맙겠다.

여기가 첫 번째 문제인데 물어보니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옛날 역사가 있는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복합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고요. 모든 건물들이 대부분 다 사적인 재산인 게 발전시키기 어려운 제일 큰 문제다. 시에서 특별히 개인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훼손하지 말고 보존할 수 있는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교환했다. 많은 건물주들이 빌딩 세우려고 했었다. 그래서 대만이 계획을 세운 게 이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건물주들이 하고 싶은 거는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많은 옛날건물들을 보존할 수 있었다. 여기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부분 혜택을 줬기에 가능했다. 제일 처음에는 건물보존을 목적을 뒀지만 한약재, 쌀 등을 팔면서 현대화를 받아들이면서 이 건물들이 활력소가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대만 도시계획은 이 동네입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101층 타워 근처를 신지구로 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어도 아무 상관없이 그쪽을 특구로 지정하고 발전은 동쪽으로 계속 이전하면서 101타워가 있는 곳이 타이페이에서 제일 변화가로 보시면 된다. 백화점이라든지 지금 101층 타워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 계획은 휴식할 수 있고 조금씩 현대식 먹고 쇼핑하는 두 분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여기는 일단 기존에 있는 집들은 잘 보존되어 있지만 다른 신식방식으로 바뀌 나간다. 여기는 일제 때 서양식으로 건물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유럽식으로 만들었고 대만전통식은 아니고 원주민 계통의 건물은 또 따로 있어요. 이 동네는 특별히 완벽하게 남아있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이 동네는 건물이 크게 못 들어서게 지정해버렸음. 건물은 똑같이 있지만 안에는 생활할 수 있도록 건물주들과 의논해서 시행 중이다. 여기 주민들과 정부는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발전시킬지

의논한다. 아까 봤던 게 첫 번째 설명 드린 23번가가 영구 개발한 게 있는데 이 공간을 비우고 싶다면 빌려주고 있다. 계속 정부와 주민들은 협조할 만큼 계속 도움을 주기 위해 대화를 자주 하고 있다.

질문하시라.

○ **백종학 위원장** 이 건물자체가 1920년도에 완성됐다고 하셨는데 보전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 대한민국에 한번 와서 도시계획한 그분들이 왔다 갔는가?

－ 한국에 방문해봤는데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에 많이 보러 갔다. 상가 쪽 말고. 나 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 **백종학 위원장** 한국 건물들을 보고 느낀 점 말해보라.

－ 한국은 가정집이라든지 환경들이 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다. 도시개발이 주민거처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대만 인구밀도가 아주 높기에 주민이 사는 거처를 많이 중시하는 편이다. 부산에서도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 조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다.

○ **이영란 의원** 보전하는 개인에게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주느냐?

－ 대상은 여기 집을 하나 기증하면 10층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은 2층 빼고 다른 데에서 8층 건물을 하나 지어준다. 그런 가치가 있는 건물을 기증받고 혜택을 준다.

10월 3일(타이페이 시의회)

한국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교류 부탁드린다. 타이페이는 대만의 수도뿐만 아니라 맛있는 것도 많고 구석구석 구경하시고 가시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환영한다. 대만에 있는 동안 유쾌하고 좋은 시간되시라.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

○ **이영란 의원** 지자체에서 당을 만드는 게 가능한지, 초선은 30대가 있단데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 답변 : 가능하다. 젊은 사람들이 의원에 선출되는 이유는 구세대가 아니라 신세대를 국민들이 원한다. 그래서 관심 있어 한다.

○ **김성택 위원장** 작년 12월 25일에 새로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신당도 있고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건데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나?

－ 지금 당이 대부분 여러 당이 있어도 과반수가 넘어도 국민당, 민진당 어느 쪽을 붙든지 모르니까 시장이 새로 만든 민중당은 국민당도 아니고 민진당도 아닌 금년부터 새로 나온 당이다.

○ **김성택 위원장** 잘 소통되느냐

－ 국민당이든 민진당이 됐든 큰 안이 들어오면 밑에서 작업을 한다. 의원들한테. 안되면 다른 발언권으로 시행되게 합니다.

○ **김명석 의원** 대강 들었는데 선거구가 몇 개 있고 선거구마다 의원을 몇 명씩 선출하는지. 구의회가 없다고 했는데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는지 아니면 별도 선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인구 대비 선출을 한다. 시청에서 구청장을 임명한다. 여기는 구의회가 없고 광역시다.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대만에 대도시에는 없고 시에는 의장, 부의장이 있어요. 시의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시정부에서 하는 일을 재산이나 재물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다. 시에서 예산이 대만 돈으로 1년에 1800억 정도 금액을 갖고 한다.

○ **강광진 의원** 북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산이 70프로가 넘는다. 대만시 같은 경우 복지, 문화, 교통, 건설 중 어느 분야에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되느냐?

－ 교육, 과학, 문화 분야가 제일 많이 지출된다. 사회복지 쪽은 16프로 정도 차지한다.

○ **하병수 국장** 인구 30만에 의원 수가 14명이다. 직원 수가 16명이다. 속기사 포함해서. 타이페이 의회 직원 수는 얼마냐?

－ 직속 직원은 7~8명 정도까지 있을 수 있다. 공무원들은 86명 있고 임시 공무원도 있다. 합치면 220명 정도. 시 전체로. 시청 뿐 아니라 공무원 8만 명이다.

○ **백종학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냐?

－ 의장이 한 달에 20만원 정도, 월급은 13만원 넘는다. 대만 돈으로. 그리고 부의장은 17만원 정도. 의장은 19만원 정도.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15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많이 삭감됐다. 중앙정부에서 그 돈을 낮추라고 해서 낮아

지고 있다. *[주] 1대만달러는 약 44원(2019. 9. 26. 기준)이므로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880만원 정도임.

10월 4일(더 플러튼 헤리티지로 이동 중)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심어만 놓는 게 아니고 가꾸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그린시티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아파트들은 공항에서 시내쪽으로 쪽 나가고 있는데 아파트 디자인이 멋있는 아파트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아파트도 있을 거고 디자인이요. 이런 아파트들은 민영라고 보시면 돼요. 고급아파트죠. 싱가포르는 크게 정부 아파트와 민영아파트로 구별하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가 정부 아파트죠. 정부아파트 플러스 일반 건설회사가 지은 민영아파트. 그런데 싱가포르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민의 85%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가소유율이 85%거든요.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비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 56, 57% 자가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싱가포르 85% 엄청나죠. 그 중심이 바로 정부아파트입니다. 이런 민영아파트하고 정부아파트는 아마 나중에 다녀보시면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빨래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정부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영아파트 디자인이 아주 좋은, 누구나 봐도 디자인이 아주 특이하고 멋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다 민영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영아파트 안에는 수영장, 헬스클럽, 사우나 이런 부대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여기가 도심으로부터 거의 한 20km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시내 한복판, 도심 한복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싱가포르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이켜봤을 때 제일 중심이 되는 미래에도 여기가 아마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좌측 뒤로 보시면 골프장이예요. 정부골프장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명동에 있는 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댐으로 막아져 있죠. 육지와 육지 사이에 댐으로 막아져 있는데 여기가 저수지,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가건물에 관람석이 쪽 되어 있잖아요. 혹시 F1경기 아시죠. 포뮬러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 영암에서 F1경기를 유치했었죠. 이 F1은 우리나라에서는 관

심도가 떨어지지만 세계3대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올림픽, 월드컵, F1. 싱가포르의 F1경기가 올해 12년차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9월 18일부터 21일까지인가 F1경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장이 있냐 없냐를 여쭙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싱가포르는 F1경기를 일반도로에서 했습니다. 여기 시내 한복판을 막아놓고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심 한복판을 막아놓고 일주일동안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로 저녁에 했습니다. F1경기를 저녁에 하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녁 8시에 F1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원, 일반도로를 막아놓고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했다는 것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연장을 하거든요. 싱가포르는 2번 연장했어요. 5년하고 나서 5년하고 그 다음에 10년째 되는 해에 4년 연장해서 올해가 지금 12번째 14년간 앞으로 2번 더 남았거든요. 싱가포르가 성공적으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제가 일반도로를 막아놓고 세계적인 대회를 했다고 그러면 질문 중에 하나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 안에 장사하는 사람 누가 책임져 주냐, 이걸 대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여기는 싱가포르 시스템 자체가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나라가 아니고 국가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나라. 보상해 주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됐어요. 왜냐 일주일동안만 참으면 약간의 손해는 볼 수 있지만 개인이, 국가적인 전체를 보면 훨씬 더 이익이에요. 5년 10년 후를 바라보면 더 많은 이익이 개인한테도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런 국제대회를 시내 한복판에서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들을 다니시다 보시고. 지금 저희들이 가시는 곳이 플러튼 헤리티지라고 해서 예전에는 머라이언 공원 주변이거든요. 그 바로 앞이 전부다 바다였어요. 50년 전만 해도. 지금은 매립을 해서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완전 탈바꿈됐죠. 오른쪽이 건물이 래플스시티라고 되어 있죠. 1887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 된 호텔이에요. 거의 140년 정도 됐나요? 1887년이니 까 135년 가까이, 이 건물의 리모델링을 쌍용에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회사가 했는데. 쌍용건설에서. 여기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전통

과 역사가 있는 호텔입니다. 비싸고 이 래플스의 의미가 이 싱가포르가 1819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에 들어가거든요. 그 당시에 싱가포르의 총 책임자로 파견된 사람이 스탠포드 래플스 경입니다. 영국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호텔이에요. 래플스라는 의미는 사람이지만 건물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래플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학교는 래플스 학교이고 최고의 병원은 래플스 병원이고 최고의 호텔은 래플스 호텔이고 이런 의미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영국에 식민지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규정이라든지 그런 이런 부분들이 영국시스템이 대개 많습시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받은 거죠.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이라는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걸어가는 코스는 더 플러튼 헤리티지라고 해서 예전에는 부두였어요. 주변 섬들로 이동하는 그런 부두터미널이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주변에 있고 그런 어떤 건물들을 지금은 완전히 호텔과 그다음에 카페 이런 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풍스러운 건물 중에 하나가 중앙부처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도 호텔로 플러튼 호텔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벽이 철조망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F1경기장이었어요.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다 막아놓고 설치해놨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가로등이 쪽 설치되어 있죠. 야간 경기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예요. 철거작업을 여기 일부 남아있네요. 철거작업을 통해서 다시 도로가 예전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을 보고 머라이언 공원 주변 쪽으로 건너갈 거예요. 이 머라이언의 의미가 싱가포르의 상징이에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인어. 영어로 사자가 라이언이고 몸통 인어가 머메이드이거든요. 머메이드+라이언의 합성어가 머라이언입니다. 그 주변까지 천천히 이동하시면서 산책하시고 왼쪽에 보시는 건물은 오페라 하우스. 우리나라의 서울의 예술의 전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머라이언이 댐으로 되어 있죠. 뽕족하게 열대과일의 왕이라고 그러죠. 두리안을 닮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마리아 베이샌즈 호텔 그다음에 머라이언 공원을 가로 질러서 넘어오겠습니다.

10월 4일(URA 씨티갤러리로 이동 중)

팔짱끼고 있는 동상 과거에 싱가포르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건물이 이 주변의 풍경이다. 오른쪽에 더플러톤 호텔 지금은 호텔이지만 일본 식민지 당시엔 병원으로 사용했고 그전 영국 식민지 당시엔 영국총독의 집무실이었고 지금은 6성급의 특급호텔. 싱가포르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건물이다. 오른쪽 싱가포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싱가포르 F1경기장. 시내 한복판이 싱가포르의 세계적인 빅이벤트 중의 하나인 F1 여기서 열렸다. 그 당시 9월은 싱가포르 호텔요금이 30퍼센트로 올라간다. 그래서 일반관광객이 안 온다. 요금이 올라가는 이유가 F1경기 때문에. 왜 요금이 오르냐? 정부에서 30퍼센트로 가지고 간다. 외국인한테 30퍼센트 받아서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아이디어다. 싱가포르의 마인드가 기업 마인드다. 철저하게 수익으로 가는 마인드다. 싱가포르 정책 중 하나다. 지금은 URA이라고 해서 싱가포르 도심재개발지역을 보시겠다. 이 도심지역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도심재개발부서. 1층, 2층이 전시관 형태다. 좀 전에 보셨던 이 주변을 미니어처로 전시해놨다. 한눈에 싱가포르 도시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관이자 홍보관이다. 도심개발부분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과거의 건물도 허물지 않고 새로운 건물과 조화롭게 어울리는데 포인트가 있다. 차이나타운 좌측 건물은 다 오래된 보존건물이다. 전체 허물기는 어렵고 리모델링한다. 동과 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도심개발의 포인트를 싱가포르 정부가 지향하고 있다. 왼쪽에 1층은 상점, 2층은 주거공간 천장이 1.5미터 정도 들어가 있다.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옛날에는 그 공간에서 노점을 했는데 지금은 싱가포르 전통가옥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같으면 한옥 같은 곳이다. 싱가포르 골든 건물로 지정되어 과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다. ura 홍보관을 잠깐 들러 관람하시겠다. 중국계 싱가포르 사람들의 최초 정착지가 차이나타운이다. 오른쪽은 불교사원이다. 옆에 외관이 허름한 정부? 아파트 50년 됐다. 진입로, 외벽, 엘리베이터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꾸준히 관리된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로 안 보인다.

10월 4일(URA 시티 갤러리)

도심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축소해 놓았어요. URA전시관을 보시면 싱가포르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도시의 풍경이 되어 있는지 아마 쉽게 이해하시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URA라고 그러는데 Th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라고 그룹니다. 거기의 약자인지 도심재개발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의 도심을 재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1층하고 2층이 전시관 형태로 되어 있어요. 2층에 가면 머라이언 공원 주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주변을 실제 똑같은 건물을 축소해 놓았어요. 미니어처로 해서. 그래서 한눈에 싱가포르 도심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마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이면서 홍보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싱가포르의 도심개발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싱가포르 도심개발 포인트 중 하나는 과거의 건물도 허물지 않고 새로운 건물과 함께 조화스럽게 어울려지는 도심개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차이나타운인데 좌측에 있는 건물들은 오래 된 건물이죠. 뼈대만 놔두고 리모델링을 강요하지만 전체 허물기는 힘들어요. 과거의 건물들과 오른 쪽 현대화된 건물들이 즉 동과 서가 조화스럽게 어우러지는 도심개발의 포인트를 싱가포르 정부가 지향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왼쪽에 저런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샵하우스라고 합니다. 1층은 상점, 2층 3층은 주거공간 이라서 조금 전에 지나가면서도 보시면 천장이 1.5m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비를 피할수 있고 햇볕을 피할수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공간에서 노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싱가포르 전통가옥으로 지정되어서 우리나라에 많은 한옥에 비유할 수 있는 전통가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들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전건물로 지정되어서 아마 싱가포르란 나라의 과거의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건축물 중의 하나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URA라고 해서 싱가포르 도심재개발청의 홍보관을 잠깐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보시면 1.5m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현대식 건물들도 이런 형태로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도 저희들 걱정 안 해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오른 쪽에 힌두사원이 있죠. 인도사람들이 믿는 종교인 힌두교. 오른쪽에 차이나타운 싱가포르 대표적인 그런 어떤 민족 중국계 싱가포르 사람들의 최초의 정착지가 바로 차이나타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원은 불화사라고 해서 불교사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아파트 외관이 좀 허름하게 보이는데 꽤 오래 되었는데 5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아파트의 특징 중의 하나는 집안에는 집주인이 관리하면 되는데 외벽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정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꾸준히 페인트만 칠해줘도 깨끗하거든요. 그런 관리를 정부차원에서 꾸준히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오래 된 아파트처럼 안보이죠.

10월 4일(가든스 바이 더 베이로 이동 중)

싱가포르는 어딜 다녀도 문화유적이 없어서 계속 개발한다. 열대고산지대에 사는 식물. 일교차가 심한 식물을 에어컨으로 조절한다. 싱가포르에는 산이 없다. 인공폭포 앞에서 사진 찍고 안에 들어가면 에르베이트 타고 제일 높은 층이 6층이다. 옆으로 나가면 계단 1층 올라가면 7층에서 내려오면서 관람.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과학적,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거창한 관광지로 만들어 왔다.

싱가포르 인구는 570만명이다. 서울인구의 절반. 순수 싱가포르사람은 340만명. 60만명이 영주권자, 나머지가 170만 명이 일하고 있는 외국인, 전체 인구의 40%가 외국인이다. 중국계 싱가포르 70%, 말레이계 14%, 인도계 8% 반민족국가다. 뿌리가 없는 민족이다.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산다. 다민족이라는 단점의 한계를 장점으로 뒤바꾼 나라다. 제일 검은 사람 인도계, 조금 검은 사람 말레이계, 나머지는 중국계. 인구목표가 700만인데 순수 340만으로는 700만이 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과 외국 기업이 정착될 수 있게 조성함. 출산율 1.15. 피부색이 다양. 버스나 택시에 광고물을 붙여 광고한다. 택시의 60%가 현대, 기아차다. 2000년 초엔 택시 거의가 일본차인데 중반부터 현대, 기아차다. 라오파삿 예전 어시장이었는데 저

녁 7시가 지나면 꼬치구이를 포장마차에서 판다. 싱가포르에서 느낄 수 없는 정서를 느끼는 곳이다.

10월 4일(가든스 바이더 베이)

인공산을 만들어서 35m높이에서 폭포가 떨어집니다. 자연폭포보다 못하지만 사진을 찍어 놓으면 아주 멋있게 나와요. 안으로 쪽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타는 입구가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일 높은 층이 6층입니다. 6층에서 계단으로 7층까지 올라가서 6, 5, 4, 3, 2, 1을 내려오면서 보는 코스입니다. 입구 하나 출구 하나라서 길 잃을 염려 없음.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보실 텐데 그 인공산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식물들이 촘촘히 식재되어 있음. 그 이유가 유기화합물하고 흙하고 잘 배합을 해서 10cm두께로 발라 났음. 거기에 식물들이 살고 있음. 생태계를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그 생태계에 맞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거창한 관광지로 탈바꿈. 7층부터 4층은 층과 층 사이를 구름다리로 만들어 놓음. 4층부터 1층까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옴. 2층부터 1층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파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육관임. 1층에는 영상도 보여줌. 지구의 온도가 향후 100년 안에 5도 까지 올라갔을 때 미치는 영향들-쓰나미 발생, 홍수, 물의 고갈 등 예측영상을 보여줌.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임.

슈퍼트리쇼-나무의 모형을 형상화한 조형물. 인체 신경 세포인 뉴런의 모양을 닮음. 저녁이 되면 촘촘한 전구에서 조명이 나오고 음악도 나와서 쇼를 함.

10월 5일

싱가포르 - clean, green, fine(별금). 대중교통에서는 음식물 섭취 금지. 휘발유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리터가 1,500 플러스 마이너스한다. 말레이시아는 700원 정도. 동서 42Km, 남북 23Km, 싱가포르 전체 길이가.

4.2Km 넘어가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로 가서 주유한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제한한다. 기름 3/4 이상 채우고 지나야 한다. 3키로 도로표지판부터 기름눈금 그려져 있음. 싱가포르카 500불. 그 표지판의 의미는 반드시 기름 3/4 넘겨라. 싱가포르 사람들은 말레이, 인도네시아를 그냥 자기나라처럼 오고 가는데 이게 싱가포르 국민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다. 싱가포르는 더운 나라이면서 습한데 왜 모기나 벌레가 없느냐 하면 환경부 직원들이 더러운 웅덩이 체크하러 다니는데 적발되면 벌금을 낸다. 어떤 아는 사람은 집 앞에 화분을 기르는데 어느 날 환경부에서 편지가 와서 더러운 유충이 산다며 200불 벌금 내라고 했다함.

10월 5일(비산뉴타운 · 파크로 이동 중)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신도시주거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지역은 예전에는 공동묘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77%가 중국계 싱가포르 사람들 그래서 그 공동묘지를 옮기고 거기에 주거지역을 세운다는 계획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여 넘게 거기에 묘지 주인들하고 협상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주거지역이 시행이 되는데요. 완공이 1984년 시작에서 1992년도에 신도시가 세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싱가포르의 주거의 중심지역으로서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가시는 공원을 통해서 주변모습들을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 방문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제가 싱가포르에 민족구성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싱가포르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제가 봤을 때는 언어정책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싱가포르의 주거는 영어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말레이어가 싱가포르의 국어입니다. 실제로 이광요(리관유) 전 수상이 1960년대 초반에 집권초기에 싱가포르 국민들이 사용해야 될 언어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국어가 말레이어이니까 말레이어는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계가 77%이다 보니까 중국어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

들이 사용해야 될 공용어에 대해서 고심 끝에 주변에서는 이 나라 국어인 말레이어와 중국어를 아마 공용으로 채택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광요 전 수상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어떻게 보면 엘리트죠. 싱가포르의 영국의 식민지를 1819년~1959년까지 140년을 영국의 식민지를 거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영어도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식민지 언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채택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싱가포르의 공용어와 행정어를 영어로 채택한 게 지금 돌이켜보면 신의 한수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전 국민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드물다고 생각되는데 영어를 과감하게 채택했고 아울러 하나 더 잘한 게 각자의 모국어를 공부시킨 게 플러스적인 요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중국계 싱가포르 사람들은 영어, 중국어를 배웁니다. 말레이계 싱가포르 사람들은 영어 말레이어. 인도계 싱가포르 사람들은 영어 인도 말을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즉 이중언어 정책을 통해서 싱가포르란 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도 동남아시아 주변국가 중국이라든지 주변의 인재들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도 싱가포르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싱가포르 토대를 다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요인들이 싱가포르의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싱가포르의 날씨가 1년 내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올해만 해도 태풍이 몇 차례 오는 바람에 상당히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복받은 나라죠. 왜냐 하면 자연재해로 인명적인 재산피해가 없다는 거죠. 태풍이 없고 적도로부터 137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태풍이 없고 지진이 없어요. 지금까지 독립 이후로 지진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여진은 인도네시아 때문에 약간 느꼈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었어요. 홍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침수된 지역이 약간 있지만 배수지라든지 저수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예방처리가 됐기 때문에 자

연재해 큰 부분 중의 하나인 홍수 태풍 지진이 없다는 게 싱가포르의 어떻게 보면 복 받은 나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일년 내내 덥죠. 항상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계절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면 건기냐 우기냐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건기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해서 우기입니다. 그래서 건기하고 우기의 차이는 온도변화는 약간 있습니다만 강수량인 것 같아요. 우기철에 집중적으로 오는데요. 스킨이라고 그러죠.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퍼붓습니다. 그 비가 30분에서 1시간정도 내리고 그쳐버리니까 작년만 해도 싱가포르 연평균 강수량이 2500mm정도 왔었어요 우리나라가 1400mm내외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비가 오더라도 홍수가 나지 않은 이유가 잠깐 왔다 그치고 잠깐 왔다 그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싱가포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에만 23만명이 방문했다고 그러합니다. 우리나라분들은 작년에 62만명 정도가 인구비율로 따지면 싱가포르는 570만에 23만이고 우리나라는 5,000만에 62만명 왔으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싱가포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방문하는 비율이 더 높은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영향 중의 하나가 한류영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올 1월에 방탄소년단이 싱가포르에 왔었거든요. 그때 오만석 규모의 종합경기장에서 공연했었는데 서서 보는 입장료도 150불 우리나라돈으로 12만 원 정도하는데 매진이에요.

싸이라든지 브라운아이드걸즈 슈퍼주니어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브랜드의 값어치를 그 친구들이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그 나라를 한번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 크다 보니까 특히 10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 왜냐하면 일 년 내내 여름이기 때문에 겨울이 계절인 우리나라를 한류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지 않나 보고 나서 다 좋다고 그래요. 이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자연자원들이 워낙 많고 특히 제주도는 다시 한 번 가고 싶다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싱가포르의 자연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주변국들의 여행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린 눈을 전혀 접할 수가 없는데 여행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 작년에 입국자수로 따지면 1,760만 명에 외국인관광객 중에서 제일 많은 나라 1위는 중국입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350만명 정도가 간다고 그러면 그리고 대한민국분들이 입국자수로 따지면 12위정도 된다고 합니다. 10위권 밖이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포지션은 1위 2위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광객하게 되면 직원들이 우리나라 말로 인사해 줄 정도의 그런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를 쌓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다민족이고 그 다음에 다언어이고 일 년 내내 더운 나라이지만 그런 어떤 장단점이 다있겠지만 그런 어떤 한계를 아마 딛고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아마 독보적인 존재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하면 세 가지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클린시티 두 번째 그린시티 세 번째 파인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린은 일단 주변이 깨끗하죠. 하늘빛이 상당히 맑은 편인데 지난 달 초에 인도네시아가 산불을 내어서 산불을 내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다국적 기업이 뒤에서 조종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일일이 배워서 거기에 고무나무라든지 팜나무를 심으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산불을 내버린 거죠. 고무나무와 팜나무를 매년 반복되거든요. 올해는 좀더 심했던 것 같아요. 하늘이 뿌옇거든요. 지난 달 하순부터 비가 오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청명한 하늘빛을 보실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싱가포르를 하면 클린, 클린 안에는 날씨 공기 주변부분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정부의 투명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부정부패 없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나라 세계투명성기구에서 매년 각국의 부정부패 지수를 조사하는 항상 세계 5순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투명성을 인정받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투명한 요인 중의 하나가 첫번째로 공직자에 대한 처우가 좋은 것 같아요. 재작년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나라 대통령 연봉이 18억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지도자들 중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지도자 중의 하나가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차관급도 거의 8억 정

도의 수준을 연봉을 유지한다고 그룹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하는 연봉을 보장해서 아마 사명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클린시티라고 두 번째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린 어디를 가더라도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녹음이 우거져 있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싱가포르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린시티 정원속의 국가라고 감히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녹지죠. 그래서 항상 푸르름을 볼 수 있는 실제로 3박4일 여행 계시면 상당히 좋아하세요.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녹색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일 년 내내 똑같다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1월도 녹색이고 8월 11월 12월도 녹색이다 보니까 변화가 없죠. 사람 사는 맛이 안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이 되면 가을에 대한 상상을 하시잖아요. 단풍이 울긋불긋한 산행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기다림과 설렘이 있는데 여기는 일 년 내내 똑같다보니까 그런 기다림과 설렘이 덜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보면 감정의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미하게 그래서 뭘 하나 시키더라도 아주 여유롭습니다. 빨리 빨리라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담배피고 가는 것은 상관없어요. 버리면 벌금 내는 거죠. 걸리면. 여기도 사람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걸리면 벌금 내는 것이고 반대로 피우는 장소는 거리가면서 상관없습니다. 대신 정부가 지정하는 룰이 있죠. 건물로부터 몇m 떨어져야 되고 처마가 있는 밑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시내 한복판은 아예 안되고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거리 가면서 피고 이런 것은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걸 심하게 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싱가포르하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린 시티 그린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전체가 다 정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지만 요즈음 도심의 녹지공간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싱가포르 안에 정원을 만드는 컨셉으로 갔다 하면 지금은 정원 안에 싱가포르를 만드는 컨셉으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더 큰 개념이 됐죠 정원 안에 싱가포르를 만드는 개념이

됐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항상 녹음이 우거져 있죠. 잠깐 어제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의 적도로부터 137km 떨어져있는데 같은 위도 선상에 있는 열대 국가보다 평균온도가 2도가 낮다고 했죠 그 이유가 나무하고 잔디를 빼곡히 심어놨기 때문에 대구에서 간혹 관광객분들 오시면 대구의 온도가 예전에 비하면 1~2도 정도 낮은 걸 체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나무를 도심에도 많이 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든스 바이 더 베이 (GARDENS BY THE BAY)에서 보셨듯이 지구온난화 온난화 계속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런 환경에 대한 대처하는 회의도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10월 5일(리아무이 치매요양원)

1960년대 초에 설립자 이분의 어머니가 요양원의 설립을 시작했다. 1960년대 초에 요양원이 설립되었을 때 설명을 드리면 중국의 삼수이 여성들 5명과 함께 시작했다. 이 요양원에 환자는 5~6명밖에 없었음. 삼수이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고 일자리가 필요해서 와서 막노동한 사람들이다. 20년이 지난 1980년에 이 장소로 이사를 했는데 여기는 싱가포르초등학교였다. 정부가 인허가를 줄 때 총 인원수가 110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여기 인원은 여자 수용자 55명, 남자수용자 25명 고객이 있고 최연장자가 108세 여자분이다. 다음 분이 102세. 평균 나이는 80세, 젊은 여성 한 분이 있는데 40대이고 일종의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다. 정상인인데 요양원에 있는 사람은 없다. 1번 카테고리 사람은 혼자 가능한 사람, 2번 카테고리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3번 카테고리는 치매환자들과 4번 카테고리는 아예 이동이 불가능하고 침대에 누워서 못 움직이는 사람으로 식사도 대신 먹여줘야 함. a동- 직접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람들, b동- 남성들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들, c동- 여성들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들. 여기는 식사를 6회 제공 - 아침, 티 브레이크 간식시간, 점심, 간식, 저녁, 잠자기 전 간식 제공. 싱가포르의 사실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직원이 46명인데 전부 외국인임-필리핀,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출신 사람들이 숙소에서 있음. 싱가포르

포르사람들은 이런데서 일하려고 안함. 수간호사도 있고 전체 요양원에서 관리사 매니저가 있는데 두 사람은 싱가포르사람이다. 급여는 90만원~150만원 받음. 여기 고용주는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고 있음. 거동이 가능한 여성분들이 있는 방이다. 들어가서 보시라. 한 방에 열 분이다. 정부에서 재계약 안 해주면 나가야 하는 상황. 비싼 땅이라고 함. 요양원 여기에서 세탁물이 나왔을 때 먼저 1차 밖에서 세탁하고 세탁기에 넣어서 소독제를 같이 넣어 세탁을 한 대요. 건조기에 넣어 말릴 때 온도가 65도이고 이중으로 세탁물에 대한 소독을 할 수 있음. 병균이 있어도 없앨 수 있는 작용을 이중으로 하고 있다고 함. 리여사의 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와서 인사함. 다른 요양원과 큰 차이는 없으나 1층에 있어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밖을 볼 수 있고 자원봉사자의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 분들이 이 시설은 정부로부터 임대 받은 것이다. 1982년부터 연장해서 내년 만기되는 날인데 정부에서는 연장을 해 주겠다는 답변이 없다. 여기서 계속 있고 싶다. 옮기는 것도 돈이 많이 드니까. 모든 요양원이 비슷한 것 같다. 여기서 두 범주를 나눌 수 있다. 정상인 사람 한달에 1600불. 아내와 남편이 같이 맞벌이를 해서 벌면 1만불이라고 할 때 여기 요양원에 한명 맡길 때 정상인 한 사람일 때 1600불이다. 호스로 식사를 받아야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싱가포르 2300불~2500불임. 환율이 870원까지 하니까 곱하기 870원 하면 됨. 그런데 그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사가 정부에 가족을 대신해서 보조를 신청함. 노인을 여기에 맡겨야 하는 한 가계소득이 1900불 이하인 가족만 보조받음. 1900불 이상 소득 있는 사람은 정부의 보조를 못 받음. 정부는 75% 보조해줌. 15%만 가족이 부담을 함. 3개월 이후에 정부가 돈을 넣어줌. 그래서 매달 본인이 내야하는 돈이 500~600불 정도 됨. 카테고리 1,2,3,4 중 3번과 4번만 75% 지원됨. 원칙상 가족이 없는 고객들은 안 받는데, 정부는 홈리스를 위한 별도의 시설에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가족들이 장례를 처리하도록 하는데 가족들이 장례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 장의사가 일부 무료로 하고 여기 요양원에서 일부 해서 장례식을 함. 싱가포르에서는 부모를 돌보지 않으려는 자식들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자식이 부양비를 안 준다고 신청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비용을 지원하라고 정부가 명령을 하면 부모에게 월급을 주게 되어

있는 복지제도가 있고 노인인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최소 2명의 노인이 있으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가 있다. 아예 오픈이 된 원룸아파트를 신청해서 한 달에 매우 적은 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홈리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노인 2명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요양병원은 없고 요양원. 개인이 운영함. 요양원이 한 60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이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경우 에어컨이 없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만 에어컨이 있음. 가족이 에어컨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하다 보면 공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병이 자기 부모에게 옮기기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있는 시설을 원한다. 110명 인원 중 75%가 정부보조다. 아까 정부보조에 보면 3개월 이후에 돈을 주기 때문에 매달 경영난이 있다. 25%로 유지하다 보니까 항상 쪼들린다. 임대비를 정부에 2만5천불을 정부에 내고 있다. 직원들 월급 줘야 해서 상당히 쪼들린다. 기부금은 한달에 들어오는 돈은 몇 백불. 운 좋으면 천 불 넘음.

재개발이 되면서 여기를 쇼핑의 중심, 세계적인 명품들이 즐비하게 있다. 임대료가 꽤 비싼데도 성업 중인 이유가 싱가포르 인구가 560만인데 그에 비해 샵이 너무나 많은 이유는 관광객 숫자와 유동인구를 3천만명이라 소비에 집중되어 전략적으로 세계적인 명품들이 싱가포르에 오픈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이광요라는 전 수상에 의해서 90 퍼센트가 세팅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싱가포르는 아무리 길어야 200년 역사임 1819년, 1959년, 1965년. 1819년은 영국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시기. 그 전에는 바다에 떠 있는 조그만 어촌. 여기는 한적한 시골마을이었어요. 제일 고가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있는 도시지역이다. 1819년 전에는 어촌이었는데 식민지에 들어가면서 1959년까지 약 140년을 영국의 통치를 받음. 1942~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를 거쳤음. 3년간 엄청난 고통과 만행을 당함. 1959년에 비로소 영국으로부터 자치정부로 인정받는데 그때 수상이 이광요.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 중에 정치에 입문해 수상에 오른. 집권 4년 만에 1963년도에 말레이시아와 합병을 함. 국가와 국가의 합병이 아니고 말레이시아의 한 연방주로 편입됨. 1963~1965년까지 3년간 말레이시아의 한 주로써 여러 가지 도움과 시스템을 받았다. 결국은 1964년도에 뜻하지 않는 인종문제로 말레이시아와 분리가 됨. 1965년 8월 9일에 독립이 됨. 싱가포르 최초의 독립기념일로 현대사에 이야기를 함. 원하는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막막했다고 함. 이광요 수상의 인터뷰를 보면 국민과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데 세계에서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함. 1960년대 후반부터 1,2,3호정책이라고 하는데 1명의 와이프와 2명의 자녀, 3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로 주거안정에 제일 우선순위를 둬. 제일 선호하는 아파트는 방 3개짜리임.

10월 5일(쥬롱새공원으로 이동 중)

1965년 당시와 비교하면 100배 성장함. 2015년도 91살에 이광요 죽었지만 본인이 약속한 일부를 이루었다고 봄. 표현의 자유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됨. 외국의 나쁜 소식은 신문의 탐으로 나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암시적인 언론 케어 및 제재라고 봄.

10월 5일(쥬롱새공원)

새공원 관람. 앵무새들이 중국어로 쇼를 함. 새만 있는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곳. 거의 50년 되다 보니 새로운 새공원을 내년 하반기에 조성할 예정이라고 함. 10월에 어린이날 행사를 해서 어린이 동반은 무료입장이라 복잡할 수 있다. 왼쪽 보시면 싱가포르의 국립병원 중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다. 동서남북 주요 포인트에 주요시설들을 꾸준히 건설해서 시내로 집중하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새공원 가는 쪽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있다. 경쟁을 통한 교육제도다. 우리나라는 원통형 구조로 고등 졸업자 중 80%가 대학을 가는 구조인데 싱가포르는 피라미드 구조로 초등학교가 190개, 중학교가 160개, 고등학교가 24개로 확 줄어버림. 그래서 전체 국민의 평균학력이 60%가 중학교 졸업임. 4년제 국공립대학이 6개. 사립대학도 수십여개 정도 있는데 큰 의미가 없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고사가 제일 중요한 시험임. 상위 62%가 4년제 중학교를 가고 하위권 36%는 5년제 중학교를 갑니다. 학습부진아는 유급을 시킨다. 또 유급되면 기술교육을 받아 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시스템

입니다. 상위 20%만 똑똑하면 된다. 엘리트코스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대학이 6개뿐이지만 2개가 세계 10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 국립대학이 재작년에 세계대학 20위권 안에 들어 있다. 빨리 양분화됨.

10월 5일(국립도서관으로 이동 중)

국토 면적 대비해서 골프장이 많다. 여기서부터 보면 기름 눈금 3/4 넘겨라고 표시되어 있음. 그나마 밀리지 않는데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그때부터 시작한다. 왼쪽 보시면 맥주 좋아하시면 싱가포르 타이거비어 생산공장, 1932년에 만들어졌다고 함.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들의 맥주 주공급원. 정면에 보면 3/4 기름 넘기라고 도로표지판 되어 있지요?

도서관 가는 중 13층. 지하1층은 공공도서관, 5층 같은 경우 스터디룸, 그 외 전문서적. 어린이놀이시설도 비치해서 친근하게 책을 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주의할 점은 사진 촬영 금지. 각 지역마다 공공도서관이 있다. 싱가포르에 도서관이 상징적이다. 건물들이 특색 있다.

전자도로요금시스템이 있다. 도심쪽으로 다니다 보면 중간중간에 통과대가 있다. ERP, 러시아워시간대. 빨간색 기계가 부착되어 있다. 2004년에 시행됐다. 세계 최초로 통행세를 내게끔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패스. 하루에 걷힌 통행세가 2,500만원~ 3,000만원 정도. 한달이면 8억원 내외, 1년이면 100억이 통행세로 걷힘. 운전자들의 불만이 있지만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흐름 조절 수단 중 하나다. 왼쪽에 보시면 대법원. 대리석으로 되어 있음. 싱가포르 국회의사당, 정면에 보시면 코너 돌 때 보면 ERP시스템. 싱가포르 리버. 내일 저녁에 씨푸드식당에 예약되어 있음. 예전에는 냄새나는 부두였는데 지금은 분위기 좋은 요트카페로 바뀌어져있음. 식당은 쇼핑몰 2층에 있음.

10월 6일(보타닉가든으로 이동 중)

녹지공원이다. 1859년도에 만들어진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출입 안 되고 영국인 귀족들의 산책로였다. 오늘 일요일이라 현지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산책시간~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문화유산이 없어요. 2015년도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유네스코에다가 지금 가시는 보타닉가든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함. 서류페이지가 700페이지였다. 그 서류에 간절함을 실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한 것 같음.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녹지공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됨.

더플러톤호텔 주변 풍경들이 눈에 익으실 듯. 클라키. 주변을 배를 타고 밤 풍경을 즐기시고 박물관 빅토리아 메모리얼 팔짱끼고 있는 동상 스텐포드 1819년에 영국식민지 동인도회사 직원인데 파견된 총독의 역할을 한 사람. 실제 레플스는 사람이름이지만 그 분야의 최고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오른쪽 보시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인데 맨 위에 배를 올려놨는데 배의 길이가 340미터, 넓이가 축구장 2배. 저 건물을 쌍용건설에서 지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건물 중의 하나다. 이 주변지역은 싱가포르의 입법, 행정, 사법의 중심지역으로 이해하면 될 듯. 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다. 한달에 한번은 도로를 막아놓고 인라인이나 자전거 타는 프로그램 있다. 간절한 소원 중 하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보는 것. 문화예술 체육쪽에는 다른 나라보다 떨어진 그런 상태. 플러튼 헤리티지, 뽀족한 지붕 오페라하우스 두리안 모양 2004년도에 개장. 싱가포르인들의 문화공연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장소다. 2008년도에 체육분야에 한 획을 그은 것이 북경 올림픽때 탁구 단체전 은메달을 땀. 싱가포르 토종이 아니고 중국에서 귀화시킨 선수들임. 1980년대생 사업가인 고무생산 대박난 교육쪽에 관심을 가져 자선사업가. 모든 재산을 교육에 기부한. 도서관이 그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음. 수영으로 금메달을 땀. 접영100미터로.

10월 6일(PUP 물재생시스템)

진행자의 설명 후 비디오관람 : 물의 중요성, 물과 관련되어 있는 홍보프로그램.

싱가포르는 물이 부족한 나라로 식수는 4가지로 구분하는데 ①말레이시아에서 원수를 수입한다. 3개의 송수관을 가지고 30% 수입하고 ②비가 내려서 물이 저장되는 저수지가 싱가포르에 17개 있다. 마리나 저수지. ③해수 바닷물을 정수해서 하는 것. ④지금 가시는 뉴워터 물을 재생하는 공장이 5개 있어요. 뉴워터는 정부가 사활을 걸고 엄청난 투자를 한 결과물이다. 그런 영상을 한 7분 정도 보여준다. 전시관 관람을 한 5분 정도 보고 물이 재생하는 공장의 과정을 설명 듣기. 샤워하고 설거지한 물들이 뉴워터로 들어오면 필터를 거쳐 불순물을 걸러내고 2차는 역삼투압 방식으로 물 아래에 있는 소금이라든지 화학물이라든지 미생물을 걸러냄. 2차까지 걸러내면 먹을 수 있는 물인데 3차로 걸러지는 과정까지 설명을 준다함. 뉴워터 시음가능함. 뉴워터에서 나오는 물은 거의 산업용. 물 부족이 싱가포르의 문제임.

뉴워터는 싱가포르 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서 생산된 생수에 부여된 브랜드이름. 여기 공정시스템 + 이중막+ 자외선 기술 등을 이용해서 정제된 폐수를 처리하는 시스템. 대부분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지만 산업에서 사용된다. 15만 여개의 다양한 테스트로 검증받은 물이고 WTO 인정을 받았다. 4가지 다른 물의 종류가 있는데 뉴워터 이외 3개 물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2020년 목표로 전체 물 사용량의 40%를 충족하는 것이다. 2060년까지 총 물 사용량의 55%를 충족하는 것이 목표다. 1차 미세여과시스템으로 2단계에서는 사용된 물이 촘촘한 세포막필터를 통과하여 여과되고 필터 속의 부유물질이나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이 남아있다. 2번째 시스템은 역삼투 시스템이다. 역삼투압 장치를 통과시킴으로서 바이러스, 중금속, 염화물 등 걸러냄. 3번째 자외선 살균과정.

2. 기타 방문지에 대한 소감 및 사진자료

□ 벤치



건물의 바깥쪽 유희공간에는 벤치를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가 디자인하여 만든 벤치는 그 자체로 하나의 훌륭한 조형예술품으로 도시를 아름답게 한다[사진은 싱가포르 URA 시티갤러리 건물 외부에 있는 벤치, Peter Chen(1973)의 작품]

□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실내온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야외정원



화명고가교 및 금빛노을브릿지 하부 경관 조명 벤치마킹

○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는 2012년도에 개장, 정원의 도시라는 계획 하에 만들어진 거대한 열대 정원으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관광자원 중에 하나이다. 열대식물을 키우기 위해 인공 환경을 조성해서 꾸며놓은 모습을 보면 경이로울 뿐이다.

이곳은 크게 야외정원과 실내온실로 구분되며, 실내온실은 플라워 돔과 클라우드 포레스트 두 개의 돔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외에도 베이 이스트 가든, 슈퍼트리 그로브, 헤리티지 가든스, 선 파빌리온 등 야외에 다양한 테마관이 조성되어 있어 싱가포르 관광지 중에서 제일 추억에 많이 남을 만한

관광지이다.

나무의 모양을 형성화한 조형물 슈퍼트리 그로브는 육체의 신경세포를 누르는 모양을 닮았다고 한다. 밤에는 이 조형물을 대상으로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조명쇼를 펼치는데, 이 또한 일품이다.

우리 북구도 화명대교나 금빛노을브릿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 금곡동에서 구포까지 낙동강변에 있는 아파트 벽면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면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질 것이며, 야간에 낙동강에 유람선까지 띄우면 멋진 장관이 연출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김명석 의원).

○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는 정원의 도시라는 계획 하에 만들어진 거대한 인공 열대 정원이다. 열대 식물을 키우기 위해 인공환경을 조성해 꾸며 놓은 곳으로 공원은 크게 플라워 돔과 클라우드 포레스트 두 개의 돔으로 나뉘어져있다.

플라워 돔은 7층 높이의 인공으로 만든 폭포와 온갖 희귀한 열대식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에서 바깥 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천장이 유리로 된 반구형 건물이고, E/V를 타고 7층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열대 플라워를 구경하며, 인공 폭포의 정상부에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돌출형 포토존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도 베이 이스트 가든과 슈퍼트리 그루브, 선 파빌리온, 헤리티지 가든 등 야외에 다양한 테마공원이 조성되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특히 인체의 신경세포 조직을 본떠 만든 슈퍼트리 그루브는 매일 밤 2차례씩 슈퍼트리 쇼를 땅바닥에 누워서 밤하늘의 달과 별빛이 음악과 함께 펼치는 조명 쇼는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다.

우리 구와는 사뭇 다른 환경이지만 우리 구에도 리버워크 브릿지와 감동진 나루터 그리고 금빛노을브릿지와 구포시장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교량 기둥 부분과 상판을 경관조명 시설을 하여, 달빛에 어우러진 낙동강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화명대교 기둥과 상판을 활용하여 경관조명과 음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화명대교 밑 부분의 공간을 쌈지공원과 공연장을 만들어 문화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우리 구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김태식 의원).

3. 공무국외출장을 마치며

정기수 의장: 이번 국외출장은 우리구가 필요한 분야에 맞는 주제와 국가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의장으로서 방문기관, 방문코스, 안전사고 등 무언가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준비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사고 없이 많은 것을 배우고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 모두 감사드리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금번 출장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고 아쉬운 것은 보완하여 보다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선 부의장: 싱가포르를 도시재생과 함께 높이 치솟은 건물들의 야간 경관이 어울려져 관광지로 자리 잡은 아름다운 나라이다. 구포역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둘레길(산책로)로 해운대처럼 높은 건물들의 경관은 있지만 둘레길의 조용하고 한적한 낙동강의 푸르름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대만의 거리는 항상 이륜차(오토바이)로 가득하다. 그렇게 이륜차가 많아도 헬멧을 안쓴 사람은 한명도 없고 질서와 교통법규를 잘 지키므로 원활한 소통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헬멧 쓰는 사람은 보기가 힘들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운전은 보면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과속 및 인도로도 질주하는 교통질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우리나라도 그런 점을 본받아 교통질서가 확립되고 운전자들의 안전 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국민들의 마음 자세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김창희 위원장: 공존의 도시 타이페이, 자연친화적인 도시 싱가포르를 방문하며, 북구의 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성장과 현대 첨단 기술의 도입만을 우선 시 하여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상실한 채 미래의 북구상을 그려서는 안될 것이다.

연수를 마치며, 북구의 미래 속에 북구의 과거와 현재가 다 담겨 있는 지 북구 장기발전발계획을 반드시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성택 위원장:

타이베이와 싱가포르를 다녀온 이번 공무국외 출장에서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지역이 인상 깊었다. 타이베이와 싱가포르의 도시재생 사업은 유적을 보존, 복원하는 형태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과거의 유산과 현대의 세련된 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최근 우리구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의 변신은 항상 사람과 함께 해야 하며, 변화된 공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창조와 변화의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구의 도시재생 사업도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민들과 함께 진행해 나가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백종학 위원장: 5박 6일 간의 일정으로 대만과 싱가포르의 도시재생과 야시장을 비롯한 도시관리, 환경, 수자원 관리 등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만과 싱가포르의 야시장을 특별일정으로 잡아서 그 나라의 야시장 운영과 현황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계획에 맞춰 훌륭한 벤치마킹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적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태 부위원장:

경상북도 크기의 면적에 항만과 물류의 허브로 만들고 제2의 스위스라는 금융허브를 만들고 정유시설은 세계 3위로 만들었다. 외국 기업들이 쉽게 투자하게 만들고 싱가포르에 도움이 된다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쉽게 주고 의료부분을 집중 발전시켜 고가의 외국 환자를 받아들여 1인 병실로 1달에 2억이지만 대기 상태이고 1년에 60~70만의 환자가 올수 있도록 만들었다. 싱가포르 건축의 기본은 나무와 꽃이 함께 하도록 설계되고 면적도 작고 문화유적도 없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결정하고 혁신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의 부강한 싱가포르를 만들었을 것이다.

2019년 해외 연수를 마치면서 싱가포르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고 국가의 정책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눈으로 보고 느꼈다.

강광진 의원: 이번 2019년 10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 간의 일정으로 대만 타이베이시와 싱가포르의 도시재생 사례와 야시장을 둘러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대만 타이베이시 도시재생국에서 시 주도하에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한 뒤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도시재생의 전진기지로 이용하고, 고(古)건물과 현대적 건물이 공존하는 재생도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구 도시재생계획에도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은 철거되기 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겠다고 하겠다.

저녁에는 대만에선 라오허제 야시장과 스린 야시장을 가보았고, 싱가포르에서는 라우파삿 야시장을 방문하였다. 방문한 야시장별로 각각 특색이 있었고 외국관광객이 많이 구경하러 와서 또 하나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지가 되고 있어서 북구의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사업에도 야시장을 벤치마킹을 하여 북구의 명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명석 의원: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2019년도 공무국의 출장으로 대만과 싱가포르 두 나라를 다녀왔다.

첫 방문국가는 대만이었으나, 대만은 경제위기 때 정리해고를 택하지 않고 임금을 삭감하여 일자리를 보존하는 정책을 폈다고 한다. 그리하여 지금의 급료가 20년 전의 급료수준이라고 한다.

타이베이 시는 기초의회는 없고 광역의회만 있으며, 의회는 선진화되었으나, 도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80~90년대를 연상케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은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 대외적으로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국민소득 6만 불이 넘는 국가로 성장하지 않았나 싶다.

그 단적인 예가 주택부족을 극복하고자 공동묘지 소유주들을 설득하여, 도심 한 복판에 비산뉴타운을 건설한 점, 오염된 싱가포르 강 주변 클락키 수변을 개발하면서 과거 창고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여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로 조성한 점, 벤토사섬 전체를 위락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한 점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물 부족에 대비하여 PUB(물재생 시스템) Newater 공장을 건설하여 산업현장과 일반건물에 물 공급량을 꾸준히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실 수 있는 식생수로 사용하기 위해 비지터 센터를 만들어서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되에서 현재는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우리 북구도 싱가포르처럼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사람과 자연이 잘 어우러진, 누구나 찾고 싶은, 미래를 준비하는 북구형 도시로 탈바꿈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며, 이번 공무국외 출장에서 습득한 지식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끝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김태식 의원:

이번 공무연수는 지난 10월2일부터 7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야시장을 비롯한 도시재생 사업과 공원관리 등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대만과 싱가포르의 주요지역을 선정하여 공무국외 연수 활동을 펼쳤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대만과 싱가포르의 성공한 도시개발과 공간 재생사업 그리고 야시장들을 둘러보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벤치마킹하고, 두 나라의 역사, 자연환경, 문화를 토대로 한 관광 사업들도 함께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도시재생사업은 그 나라와 지역만이 가지는 고유한 역사·문화적 특징과 환경적 특성을 잘 살려서 사업으로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차가 아닌 사람중심의 도시로 탈바꿈해야 하며, 걷기에 알맞은 보행 친화성과 청결하고 현대적인 빠른 대중교통 확보와 친환경적인 도시 생태공원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북구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과 환경이 구체적 사업으로 잘 접목될 때만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김효정 의원: 금번 공무국외연수는 당초 일본을 계획했다가, 국내외적인 문제로 급히 새롭게 계획을 했던 곳이라, 사실 어떤 주제로 어떤 것을 위주로 보겠다는 생각은 세심하게 하지는 못했다. 7대 의회 후반기에 다녀온 곳이기도 해서 좀 더 편하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두 번째 방문이라 첫 번째 방문 때는 보지 못했던 도시재생과 관련된 두 나라의 철학을 읽을 수 있었고, 두 나라 모두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나라의 장기발전방향에 최우선으로 두고 있음을 더욱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우리 북구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라 이러한 가치를 우리도 더욱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더욱 느끼는 연수였다.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문화는 조금 생소하고 다르지만,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로 탈바꿈해나가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배우고 벤치마킹할 부분은 과감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북구보다 못한 시설이나 환경도 있었지만, 나라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어느 곳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는가에 국민들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타이트한 일정, 더운 날씨 등으로 인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알찬 연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하병수 국장님, 허전 수석전문위원님과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손분연 의원: 대만과 싱가포르의 5박6일 첫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가장 큰 느낌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녀온 두 나라는 구 건물 보존을 최대한 노력하며 길보기에는 깨끗하지 않아도 내부를 청결히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아닌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내실은 감추고 외부의 모습을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북구의 일부 도시재생 사업은 근본적인 내실보다는 간판개선, 외부도색, 도로포장 등 보여 주기식의 재생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 북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와 친환경적 환경을 위해서 자전거 대여사업, ERP 시간대별 통행세 징수 등의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끝으로 보람 있는 연수를 위해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동철 의원: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대만과 싱가포르를 방문 하고 새로운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각 지역 특색과 전통을 살리고 역사적 문화유산을 재활용하여 지역 내의 시장으로써, 주민들의 쉼터로써, 지역민의 편익 증진과 도시 재생이 되는 것을 보았고, 관광 상품으로 까지 활용되는 것을 보며 도시 재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더 플러튼 헤리티지는 싱가포르만의 장점을 살린 매력적인 관광지였다. 다양한 문화, 예술 건축물들이 한데 어울려 관광객들을 유치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역항으로만 남아있을 지역을 건설, 금융 사업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하면서 큰 발전하게 된 모습을 보며, 우리 지역 구에도 충분히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소들에 투자를 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지역구에 모두를 반영할 수는 없지만 보고 느낀 것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병수 의회사무국장: 2019년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10.2.~10.7. ▷ 5박6일)은 대만(타이페이)과 싱가포르 2개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회 운영과 도시재생, 공원녹지, 친수공간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과 현지방문, 체험 중심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했으며, 이를 이행하는 일정을 소화하였다. 일정 내내 정말 좋은 경험과 체험을 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다. 특히 개인적으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소화하는 일정이라 감회가 남달랐으며 전 일정을 통해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낀점을 적고자 한다. 먼저 의회운영 분야에서는 대만(타이페이) 의회를 방문하였는데 타이페이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국회 수준의 독립된 기구와 조직(홍보, 의정활동지원보좌관 등)으로 시민을 대변하는(전문 직업 의원 활동) 의정활동이 인상적이었으며 우리나라도 장래에 헌법상 명시된 지방의회로 전문직업제 의정활동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도시재생과 전통시장 활성화, 공원 녹지는 우리와 비슷한 면도 많았지만 무조건적인 철거와 개발을 우선하는 우리 사고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도시재생지역에서는 역사적 근거에 의한 구역지정과

제한적 개발, 그리고 단기간이 아닌 장기비전을 가지고 주민과 협력하는 도시재생이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타이페이 도시재생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 후 보상 차원으로 다른 개발지역을 지정하여 보상한 것은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보도블록을 석재로 바꾸면서 경계석은 1990년대 우리나라 시멘트 경계석을 그대로 재활용한 사례도 특이했다.(외관보다는 실속과 실용을 중시하는 대만 국민의 국민성을 보는 듯 함.) 어느 나라 없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과 재개발 공원녹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조그마한 근거(역사, 전설, 지역정서 등)도 적절히 잘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재밋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우리구도 인접 지자체와 협력하여 우리 북구가 자랑할 수 있는 낙동강·금정산·백양산 자연경관과 구포·덕천·만덕·화명·금곡의 지명과 여기서 살아온 삶의 이야기, 그리고 지형적 특성의 전통시장, 공원 등을 구민이 필요로 하고 그 속에서 외부 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레길, 트레킹코스, 전망대 트랩, 모노레일, 레일바이크, 루지, 유람선 등과 더불어 야간 레이저쇼(도시경관과 어우러진 야경 빛 잔치 등 도시경관 개선)등도 적극 도입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같이 할 수 있었던 정기수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전 직원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소통과 배려로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북구의회가 전국 최고의 기초의회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대만, 싱가포르의 도시재생과 야시장에 대한 자료수집을 중심으로 일정이 편성되었다. 20여 년 전에 와서 봤던 대만 타이페이의 모습은 찾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했다. 싱가포르는 처음 방문이었지만 듣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도시정책이 잘 추진된 것 같다. 특히 도시 전체가 숲으로 둘러싸인 듯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아 열대지방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더운 것 같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두 나라가 국가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공통점은 지도자의 리더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양이 이끄는 사자 군대보다 더 강하다.”

정기섭 수석전문위원: 10월2일 부산출발.., 기내에서부터 5박6일의 뽐뽐한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구와 가장 접목하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도시재생이다. 옛날 역사(건축물)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문화(스토리텔링)를 받아들여, 건물의 특성을 살리고 놀 수 있는 공간과 휴식공간을 만들어, 먹거리를 제공하면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이 유입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역사·관광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련의 절차가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끊임없는 지원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과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사소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된다고 챙겨 보는 마음을 더 길러야 하겠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 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시인의 “나하나 꽃피어” 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나부터 조금씩 학습하고 실천해서 변화 한다면 건강하고 살기 좋은 북구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주무관: 5박 6일 동안 빠듯한 일정 속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만 도시재생의 거점 역할을 하는 타이베이 URS(도시재생 전진기지)의 ‘소프트 도시주의’ 도시재생정책과 싱가포르의 URA(도시재개발청)를 통한 토지를 공공재로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이다.

타이베이 시정부는 근대유적을 보존, 복원하는 형태로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9개의 URS 중 타이베이의 핫한 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디화제 거리는 100년도 넘는 건축물들을 그대로 살려서 카페, 소품전문점, 레스토랑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근대와 현대의 조화로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토지는 공공재라는 전제 아래 장기임대제도를 기반으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도시재개발청 URA에서는 도심지의 개발과 도시 문화유산의 보존을 함께 고려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두 나라의 도시재생 사례를 보며 과거와 현재의 것을 보존하면서 도시개발의 균형을 맞춰가는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느꼈으며, 도시의 변화는 사람과 함께 하며 사람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동준 주무관: 아시아 지역에서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대만과 싱가포르를 처음 방문하였다. 마침 구포가축시장이 폐쇄되는 시점에 이 지역에 활성화 되어 있는 야시장을 볼 수 있어서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야시장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대만은 생각보다는 건물도 낡고 나라의 국력에 비해 외관은 아쉬웠으나 잘 보존하면서 체계적인 도시 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배울만한 점이라고 생각되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물류·금융 허브답게 세계적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어 역동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받았다. 그 가운데서도 과거의 유산을 잘 보존하여 현대에 맞게 재생시킨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익을 우선시하는 꾸준한 정책이 세계로부터 신뢰를 얻어 현재의 싱가포르를 이룬 것을 볼 때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장원우 주무관: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뒤 현재 고도의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이룩한 대만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경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출장을 마치고 난 뒤 드는 생각은 ‘주어진 자원과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잃지 않으며 한걸음씩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였다. 도시의 과거를 품고 있는 건물들의 외관보다는 그 건물의 기능을 중시하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대만 국민들과, 또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유지하며 도시를 재생하고 개발하여 현대 사회에 맞춰 나가고 있는 타이페이 시의 정책 또한 인상적이었다. 대만에서는 서로를 보완하며 진화해가는 유기체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에 반해 싱가포르는 정형화된 공장 같은 인상을 주었다. 철저한 계획과 통제에 의한 발전을 하고 있는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자칫 경직되어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니 언제나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든든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싱가포르에 관한 책을 쓰면서 “유리벽 안에서 행복한 나라” 라고 제목을 지은 어느 작가의 생각에 다시 한 번 공감하면서 북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빈틈없이 녹지를 조성하고 심지어 건물에 조차 식물을 심어 도시 온도 감소, 대기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싱가포르의 모습은 우리 지역의 기온 상승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 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존지역 지정 및 제한적인 개발과 함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보상을 개발지역에 있는 동등한 가치의 건물로 함으로써 시민들을 현대사회로 인도하는 대만 타이페이 시의 도시재생 정책과, 과거와 현재가 이질감 없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지·보수하며 발전하는 체계적인 싱가포르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우리 북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발행일 2019년 10월 일

발행인 의장 정 기 수

발행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

TEL.(051)309-4600, FAX.(051)309-4099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할 수 없습니다.